발표자료집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2019. 12. 13.(금) |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

주최 · 주관 | 국립국어원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강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2019년을 돌아보는 12월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국제 학술 대회는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고, 심층적으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는 1996년에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해 남북과 재외동포 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나누는 학술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2009년 이후 북측 학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민족 언어 통합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언어 전문가들이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중국 전 연변대학 조문학과 최희수 선생님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분야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모신 한양대학교 신중진 교수님, 중앙대학교 이성우 선생님, 경희대학교 엄태경 선생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창균 실장님, 삼일회계법인의 이태호 센터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병선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인천대학교 이현주 교수님, 서울대학교 양수경 선생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용운 편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의 언어와 언어문화는 분단 후 70여 년이 흘러 다르게 변화했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언어의 변화 또한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언어 통합은 우리 민족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이루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제 학술 대회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우리 학술 대회를 찾아주신 여러 청중들,

그리고 발표를 맡아 주신 연사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 가까운 시기에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12. 13.

국립국어원장 소 강 춘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따라 그 노력의 결실이 불투명해질 때도 있었지만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의 토대를 다져 나가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 분야에서도 남과 북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를 남과 북에서 정반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전문용어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고, 학문 교류 배경이 달라 차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남북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 내에서도 정리하고 표준화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용어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학술 대회에서도 여러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한반도 언어 통합을 준비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학술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12. 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일정표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

시 간			내 용	발표자
등 록	9:30~10:00	30’	• 참석자 등록	국립국어원
개회식	10:00~10:30	30’	• 개회사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 축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부	10:30~11:10	40’	• **주제 1** - 전문용어 한자음 규범화에 대한 소견	최희수 전 중국 연변대학 조문학과
	11:10~11:50	40’	• **주제 2** -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및 자료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성우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점심 식사	11:50~13:30	100‘	• 점심 식사	
2부	13:30~14:10	40’	• **주제 3** -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원리와 방향	엄태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14:10~14:50	40’	• **주제 4** - 통일인가 표준인가 -컴퓨터 용어 남북통일안(1996)의 회고와 전망-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휴식	14:50~15:10	20’	• 휴식	
3부	15:10~15:50	40’	• **주제 5** -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용어 통합 방안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15:50~16:30	40’	• **주제 6** -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 방안 연구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16:30~17:00	30’	• 종합 토론	이현주 인천대학교 불문과 양수경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한용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폐회	17:00~		• 폐회	

차 례

1부

"주제" *1*

전문용어 한자음 규범화에 대한 소견 *1*
최희수_전 중국 연변대학

"주제" *2*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및 자료 *29*
신중진_한양대학교 · 이성우_중앙대학교

2부

"주제" *3*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원리와 방향 *49*
엄태경_경희대학교

"주제" *4*

통일인가 표준인가 - 컴퓨터 용어 남북통일안(1996)의 회고와 전망 - *65*
김병선_한국학중앙연구원

3부

"주제" *5*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용어 통합 방안 *87*
이태호_삼일회계법인

"주제" *6*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 방안 연구 *111*
표창균_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주제" *7*

중국에서 남북중 전문용어 사용의 현황과 문제점 *131*
백해파_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주제" 1

전문용어 한자음 규범화에 대한 소견

최희수 전 중국 연변대학 조문학과

전문용어 한자음 규범화에 대한 소견

최 희 수(전 중국 연변대학 조문학과)

전문용어와 문화의 관계는 마치 그림자와 형체의 관계와도 같이 갈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전문용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고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용어 사용에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도 많아지게 되고, 전문용어 규범화는 지속적으로 참답게 연구되지 않으면 아니 될 사회적 과제로 된다.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전문용어 규범화를 나라의 과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과 같이 분단되어 있는 민족 언어에서의 규범화는 더욱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거족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민족어 규범화에서 회피할 수 없는 한자음, 한자어 규범을 위주로 소견을 피력하려 한다.

1. 전문용어의 특성

이른바 전문용어란 어음이나 문자로 한정된 과학의 개념을 나타내는 약정(約定)된 언어의 부호로 교제의 도구이다. 때문에 전문용어는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 쓰이는 단어나 복합어로, 그 가운데의 일부는 사회 문화의 발전에 따라 점차 사회 전반에 보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의 전문용어인 “휴대폰”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되어 쓰이고 있다. 특정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는 일반 용어와 구별되는 아래의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1) 전문용어는 대상을 지칭(指称)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창조된 사물, 현상, 특성 등에 대한 지칭이 전문용어의 속성(属性)이다. 모든 전문용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명사적 단어나 복합어(“단어결합”)

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용언형 형태로 된 단어나 복합어는 전문용어로 쓰이지 못하고 용언이 체언형태로 되어야 전문용어로 된다. 예를 들어 일반 용어 “올리다”, “맑다”가 “올림”, “맑음”과 같이 체언형으로 되었을 때에야 전문용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전문용어 사전에 용언형태의 단어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바이다.

전문용어가 약정된 언어의 부호인 것만큼, 개개의 용어마다 능지(能指)(signifiant)와 소지(所指)(signifie)의 통일체를 이루게 된다. 능지(能指)와 소지(所指)는 소쉬르가 《일반언어학교정》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능지는 어음이나 문자로 된 언어부호의 외적 형태를 가리키고, 소지는 해당 부호가 나타내는 내적 개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전문용어는 능지와 소지의 통일로 나타내는 의미가 고정적이다.

전문용어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에 어떠한 개념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참답게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전문용어 형태와 해석의 간결성은 전문용어 제정에서 참답게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2) 전문용어는 쓰이는 범위가 제한된다.

전문용어는 특정된 분야의 사회에서 만들어졌고, 주로 특정된 분야의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이므로 쓰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는 전문용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고 특정된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쓰이게 된다.

그러나 전문용어도 단어인 것만큼 대중 속에서 사용되면서 사용범위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용되는 범위의 크기에 따라 세 개의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그 첫째는 사용범위가 제일 좁아 전문분야 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로 이들을 순수 전문용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사용범위가 좀 더 넓은 용어들로 이들을 일반 전문용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일반 대중들 속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로 이들을 준전문용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언어학에서 “교착어”는 순수용어, “주어”는 일반용어, “언어”는 준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용어의 사용범위는 문화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비례가 되는데, 문화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문용어의 사용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3) 전문용어는 의미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의미의 정확성은 모든 단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용어의 경우는 일반단어보다 더욱 정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용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과학성의 구체

요구이기도 하다. 즉 전문용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첫째는 자세하고 둘째는 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날씨가 맑다"의 경우 "맑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공기가 흐리지 않고 깨끗하다"로의 해석이 완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모호한 해석으로 "흐리지 않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맑다"가 기상용어 "맑음"으로 쓰일 때의 "맑음"이 나타내는 의미 해석에서는 "구름 함량이 30% 이내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즉 과학적인 수치로 상태의 정도를 자세히 확실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4) 전문용어는 의미의 단일성을 요구한다.

의미의 단일성은 전문용어가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의미의 단일성 요구는 전문용어의 유일성(唯一性), 과학성, 확실성, 간명성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일반 용어는 여러 대상에 두루 쓰이게 되므로 나타내는 의미가 여러 갈래일 수 있고 모호하다. 하지만 전문용어는 오직 하나의 사물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의미가 단일해야 한다. 만약 전문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개별적 전문용어는 부동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언어"란 용어는 언어학에서와 컴퓨터 공학에서 공용하는 전문용어로 언어학에서 나타내는 의미와 컴퓨터 공학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5) 전문용어는 파생성을 갖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날마다 새로운 사물이 산생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공(电工)·전자(电子) 분야에서만 쓰이는 개념의 수량이 수만 개라고 한다. 그러니 개개의 신생사물마다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둘째는 인간이 기지의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기지의 단어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거나 기지의 단어로 새로운 복합어(단어결합)를 만들어 전문용어로 쓰게 된다. 즉 많은 파생어들이 생성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용어로 쓰이는 "제출(提出)"(submission), "잠금"(locking), "옮김"(move) 등이 일반 용어에 특정된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전문용어이다.

전문용어의 파생성은 아래의 두 가지로 표현된다. 그 하나는 단어형태의 파생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파생이다. 위의 예에서의 "잠금"과 "옮김"은 형태와 의미가 모두 파생된 용어이고, "제출"은 기존의 형태에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킨 용어이다. 용어의 파생성으로 하여 형태가 같은 단어가 부동한 학과영역에서 서로 차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

문용어 “운동(运动)”의 경우 물리학에서는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고, 체육학에서는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용은 언어사용의 필연적인 결과로 오직 부동한 영역에서 나타내는 의미의 단일화로 사용영역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전문용어 규범화에서 참답게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6) 전문용어는 안정성을 요구한다.

안정성은 언어문자의 기본 요구이며 언어문자 사용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전문용어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일반용어보다 높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결여하여 용어의 형태나 의미가 이리저리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사유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빚어내고 사회적인 모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물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용어의 제정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정해 놓은 다음에는 경솔하게 고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7) 전문용어는 민족성을 갖는다.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본 민족이 사용하는 문자로 적힌 단어나 복합어로 구성되므로 형식적으로는 민족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사용에서의 민족성은 복잡한 문제로 표현형식인 문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기록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어 “学习”를 “쉐시”로 적었을 때에는 중국어로 보아야 하고 “학습”으로 적었을 때에는 한국어로 보아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언어마다 고유어와 외래어가 있게 되고 외래어 표기를 위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의 언어에서 생겨나고 다른 언어들은 원어에서 차용하게 된다. 외국어에서 일반 용어와 전문용어를 차용하는 방법은 같으나 차용어의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외래어와 전문용어로 구별되는데 구별적 표식은 전문성의 유무이다. 즉 차용된 용어가 전문성을 띠면 전문용어로 되고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일반적인 외래어로 된다.

외래어 차용의 방법은 번역이다. 번역에는 일반적으로 음역(音譯), 의역(意譯), 반음반의역(半音半意譯)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용어에서 “컴퓨터”(computer)는 음역에 속하고, “보내기”(export)는 의역에 속하며, “컴퓨터 미술”(computer art)은 반음반의역에 속한다. 상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용어의 민족성은 전문용어의 번역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에서 의역이나 반음반의역 단어의 비례가 높으면 민족성이 잘 체현되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이면 민족성의 결여(缺如)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말에서의 민족성 문제는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복잡한 과제의 하나로 아래의 장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전문용어의 규범화

규범이란 명문(明文)으로 규정하였거나 사회적으로 약속된 표준(标准)이다. 우리말에서 단어 "규범" 뒤에 접미사 "화(化)"를 붙여 "규범화"라고 할 때에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뒤에 접미사 "적(的)"을 붙여 "규범적"이라고 할 때에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여 쓰임에서도 "규범화" 뒤에는 "하다"를 붙여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규범적" 뒤에는 판단을 나타내는 "이다"를 붙여 사물의 상태를 형용한다. 그러니 우리말에서 "…화(化)하다"는 동사로 보고, "…적(的)이다"는 형용사로 보아야 마땅하나 지금의 우리말 문법이론은 그렇지가 않다. 참답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 느껴진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규범화하다"에는 아래의 두 가지의 동적(动的) 의미가 내포된다. 하나는 객관사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반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정되어 반포된 표준을 실행(实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규범화란 모종의 표준의 제정과 반포 및 그 표준의 실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규범화의 목적은 객관사물에 대한 지칭의 사회적 통일을 이루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효율과 이익을 거두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규범화를 요구하게 된다. 규범은 규범의 표준을 제정한 기구, 규범의 적용범위나 영역 등에 따라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위표준, 학과표준 등으로 나뉘게 된다. 그 가운데의 일부 규범은 사회의 안정, 나라의 안전 및 국민의 이익과 관계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전문용어의 남북통일 규범은 국가를 초월한 민족어표준의 제정으로 거족적인 과업이다,

전문용어 규범화는 언어문자 규범화의 일종이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문자의 규범화는 어음, 어휘, 문법, 문자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거기에는 표준어의 확정, 맞춤법·발음법·문장부호법·외래어 표기법 등 법규의 제정, 용어의 규범화, 문법의 규범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용어의 규범화는 다시 일반용어 규범화와 전문용어 규범화로 나뉜다.

전문용어 규범화는 아래의 몇 가지에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1) 전문용어 규범화는 표준어에 준하고 기존의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언어 규범의 일종인 전문용어 규범화가 표준어에 준하고 기존의 표준을 준수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민족어의 경우에는 반도의 남과 북이 확정한 표준어가 다르고, 제정해 놓은 언어문자 사용 법규들이 다른 것만큼 통일 규범의 제정을 위해서는 양측의 법규들을 통합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어 자체에는 계급성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이 해당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지만 언어의 사용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변화·발전하게 된다. 즉 사회의 변화가 언어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사회의 분화가 언어의 분화를 가져오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우리말에서는 차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민족 사회가 걱정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민족 전문용어의 규범은 복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2) 전문용어 규범화는 단어조성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문용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용어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의 언어로 명명되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차용해 쓰게 된다. 우리말 전문용어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말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외래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만든 단어 또는 복합어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말 단어조성법(造成法)의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단어조성법과 단어구성법(构成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어조성법은 어떠한 언어 자료로 어떻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가를 연구하게 되고 단어구성법은 만들어진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가 연구된다. 그러므로 파생법이나 합성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조성법과 구성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어음법, 음역법(음차법), 약어법 등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조성법과 구성법의 관계가 소원하다. 우리말 단어조성법에는 어음법(어음 교체법, 의성의태법), 파생법, 합성법, 약어법, 음역법, 자모법(字母法), 품사전성법 등이 있다.

우리말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외국어를 번역하게 되는데 음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어느 언어의 발음에 기준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기원한 단어 “computer(전자계산기)”를 남에서는 “컴퓨터”라 하고 북에서는 “콤퓨터”라 하는데 이는 받아들일 때 어느 나라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느냐에 의해 발음과 표기가 달라진 결과이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발음을 음역 발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의역의 경우에는 새로 만든 단어나 복합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주로는 접사법과 합성법이 쓰이는데 전문용어의 조성에서 쓰일 접사의 범위와 수량을 제한하고 그것들이 전문용어에서 나타내는 의미도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예를 들어 접미사 "기"가 전문용어에 잘 쓰인다. "기"의 사전식 해석은 "일부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것이 명사형이 되게 한다"로 되어 있다. 이 해석이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결여하다고 느껴진다. 그 이유의 첫째는 접미사 "기"가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기"의 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용어 "끌기"의 "기"는 "그 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전문용어에서 접미사 "기"의 의미는 "주로 동사의 뒤에 쓰이어 그 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진행 또는 지속을 나타낸다"로의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전문용어에는 약어법, 자모법에 의해 단어가 축약되거나 자모로 표시된 용어도 쓰이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진다.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말 자모로 단어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약어를 만들어 내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ㄲㅈ(꺼져)", "ㄱㅅ(감사)", "ㄴㄴ(nono)", "ㄷㅊ(닥쳐)", "놀토(노는 토요일)", "버정(버스정류소)", "생선(생일선물)", "깜놀(깜짝 놀라다)", "냉무(내용이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어조성법의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전문용어 기준 제정에서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전문용어 규범화는 역사적 범주에 속한다.

전문용어의 규범화가 역사적 범주에 속함은 우리민족 언어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민족의 전문용어 규범화, 더 나아가서는 언어의 규범화는 통일-분단-재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갈라놓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같이 전문용어 규범화가 민족 역사의 제약을 받게 됨이 역사적 범주의 하나의 측면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언어 자체의 역사적 변화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 모든 사물이 다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용어의 규범화는 언어발전이 일정한 단계의 산물로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산생되는 과정이므로 규범화한 용어의 안정성과 계승성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어규범화 작업에서 언어발전의 법칙에 맞게 규범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어의 객관법칙에 맞게 규범화된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보급되고 널리 쓰이면서 역사의 고험을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문용어 규범화는 조화(调和)(harmony)를 요구한다.

조화는 객관 사물이 대립이나 모순이 없이 잘 어울림을 의미한다. 전문용어 규범화는 단어의 선정(选定)과 개념의 확정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니 전문용어의 조화란 선택된 단어의 형태가 조화(调和)롭고 정리된 개념이 조화(调和)로움을 의미한다. 즉 제일 좋은 단어의 선택과 제일 좋은 개념의 선택을 요구한다.

외래어가 많은 비례를 차지하는 전문용어의 조화를 위해서는 번역원칙의 제정이 필수(必须) 조건이라 생각된다. 즉 번역에서 음역의 원칙, 의역의 원칙, 반음반의역의 원칙 등이 제정되어 번역 실천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를 들어 음역의 경우에는 고유명사로 명명된 개념(예를 들면 "볼트")은 음역한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음역한다,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번역하면 너무 길어 단어조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는 음역한다, 발음표기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발음에 준한다, 등과 같은 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의역이나 반음반의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5) 전문용어 규범화는 협상과 자각을 요구한다.

규범화에서의 협상과 자각은 규범 표준의 제정과 실행의 기본 원칙이라 느껴진다. 왜냐하면 협상이 없이는 규범의 표준을 제정할 수 없고, 자각이 없이는 제정된 표준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은 백화제방(百花齐放) 백가쟁명(百家争鸣)의 분위기, 즉 모든 학술이 자유롭게 논쟁하는 가운데서만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규범표준 제정에서 용어의 선택과 개념의 정립을 둘러싸고 전개될 논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서로 양보하는 정신과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규범표준 제정의 목적이 지칭의 통일이지 학술관점이나 사상의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범화의 실행은 법률의 실행과 비슷하나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 법률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나 규범은 사람들에게 자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규범의 실행은 주요하게 선전, 제창, 쟁명 등의 형식을 통하여 실현하게 되므로 선전 매체인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와 학교교육을 통한 보급이 주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3. 우리말 한자음, 한자어 규범화에 대한 소견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한국, 조선, 중국 세 나라에서 제각기 우리말 규범을 제정한 상황에서 우리말 규범화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말 규범화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인 한자음, 한자어의 규범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우리민족 사회와 학계에서 한자와 한자음 및 한자어의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인식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방면에 있겠으나 주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느껴진다.

1) 한자

현대의 한자는 중국 한족(汉族)의 언어인 한어(汉语)를 기록하는 문자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원적으로는 한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산생된 문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가 중국의 한족이 형성되기 전에 생겨났고 사용되어 오던 문자로 한족이 생겨난 이후 한어를 기록하면서부터 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자의 기원 및 그의 영향 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문자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문자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로 언어의 시각적 기호 체계이다. 문자는 결승(结绳) 등의 실물기사(实物记事)로부터 도화기사(图画记事), 부호(符号)새김, 원시적 도화문자(图画文字), 상형문자(象形文字)의 단계를 거쳐 오늘의 음절문자(音节文字), 음소문자(音素文字)로 발전하였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의 창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모종의 언어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산생된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분이나 모두를 다른 문자를 차용하거나 자기언어의 특점에 맞게 고치어 쓰는 문자이다. 전자를 “자생문자(自生文字)”[또는 “자원문자(自源文字)”]라고 하는데 상형문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를 "타생문자(他生文字)"[또는 “타원문자(他源文字)”]라고 하는데 자생문자 이외의 모든 문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공인하는 자생문자에는 고대 중국의 갑골문자, 아프리카북부의 고대 이집트 문자, 중동지역의 고대 수메르 설형문자, 중아아메리카의 고대 마야문자 및 중국 서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족(彝族)의 이족문자(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8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에서 마야문자는 소실되고, 고대 이집트문자와 설형문자가 점차 표

음문자로 발전하여 지금에는 음소문자인 라틴문자와 아라비아문자로 되었다. 갑골문자는 글자체가 변화하고 육서(六书)의 제자(製字)원리에 의해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까지 쓰이고 있다. 육서 가운데의 형성자(形声字) 비례가 증가됨에 따라 한자의 표의(表意) 기능이 점차 표음(表音)의 기능으로도 발전하여 한자체계의 과학성을 높이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자 가운데에서 자생문자는 한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타생문자들이다. 타생문자가 비록 타민족의 문자를 차용하지만 많이는 자기 언어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거나 창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자는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건 관계없이 어느 언어를 기록하는가에 따라 해당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된다. 예를 들어 영국문자, 불란서문자, 독일문자, 러시아문자 등이 모두 희랍자모나 라틴자모를 차용하여 쓰지만 각기 해당 나라의 언어를 기록하기에 모두 그 나라의 문자로 인정된다.

(2) 한자

한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몇 개 나라와 지역에서 쓰이는 자생문자이다. 역사적으로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쓰기 어려움으로 하여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발전하여 왔다. 우리민족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오랜 기간 한자를 서사도구로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써오다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면서 한자사용을 둘러싸고 폐지론, 활용론, 제한론 등의 주장들이 제기되어 논쟁하고 있다.

한자와 우리민족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한자와 관련된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ㄱ. 한자의 기원

한자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은 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다 이 학설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한자가 중동지역에서 전래한 문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삼(苏三)은 그의 저서 《汉字起源新解》(东方出版社 2010年01月)에서 많은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여 중국의 갑골문자가 고대의 인도, 중동지역 문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타생문자라고 하였다. 만약 앞으로 더 많은 고고학 자료에 의해 소삼의 관점이 입증되면 중국 고대문명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갑골문자도 어느 한 개별적인 부족이나 민족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러 개 민족들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되어 온 문자이다. 주지하다시피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된 민족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한나라에 이르러 통일된

민족인 한족이 형성되었다. 춘추전국 시기의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개 부족들이 세운 나라로 제각기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이후 문자를 통일하였다는 사실은 한자가 여러 개 나라들에서 만들어졌고 통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시황에 의해 회멸(灰灭)된 문자 가운데에는 한자와 체계를 달리하는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진시황이 비록 분서갱유(焚书坑儒)를 하였으나 중국경내의 모든 문자를 다 회멸시키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경내에서 한자보다 역사가 오래된 문자인 이족문자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갑골문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경내 수족(水族)의 문자인 수서(水书)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는 창제된 이후 주변 지역과 나라들에 전파되면서 널리 쓰이었고 점차 수량이 증가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기원전 221년 진(秦)나라 때 쓰인 한자가 3300자, 기원 121년 한(汉)나라 허신(许慎)의 《说文解字》에 수록된 한자가 9353자, 기원 543년 남조(南朝) 고야왕(顾野王)의 《玉篇》에 수록된 한자가 16917자, 기원 997년 요(辽)나라 해균(行均)의 《龙龛手鉴》에 수록된 한자가 26430자, 기원 1011년 송(宋)나라 진팽년(陈彭年)의 《广韵》에 수록된 한자가 26194자, 기원 1067년 송(宋)나라 정도(丁度)의 《集韵》에 수록된 한자가 53525자[이 속에는 이체자(异体字)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기원 1615년 명(明)나라 매응조(梅膺祚)의 《字汇》에 수록된 한자가 33179자, 기원 1671년 명(明)나라 장자열(张自烈)의 《正字通》에 수록된 한자가 33549자, 기원 1716년 청나라 《康熙字典》에 수록된 한자가 47043자, 기원 1915년 중화민국 육비규(陆费逵)의 《中华大字典》에 수록된 한자가 44904자, 기원 1990년 중국 서중서(徐中舒) 주편의 《汉语大字典》에 수록된 한자가 60370자, 기원 1994년 중화서국과 중화우의출판사 연합으로 된 《中华字海》에 수록된 한자가 86000자 라고 한다. 이 많은 한자들이 모두 한족들이 만들어 낸 것일까?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만든 것들도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중원에 진출하였던 여러 소수 민족들이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자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러 민족들이 한자를 모방하여 자기의 언어를 기록하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진문자, 거란문자, 서하문자 등이다. 우리민족의 이두자["국자(国字)"라고도 불림]도 사실상 한자를 모방하여 만든 우리의 글자이다. 이들 역시 한자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냈을 수도 있다.

상술한 사실들과 문자의 일반이론으로부터 볼 때 한자가 어디에서 기원하였느냐를 막론하고 한자는 그것을 사용하였던 민족들의 공유의 문화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ㄴ. 한자의 특성과 장단점

한자의 특성은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데 있다. 한자는 상형문자로부터 점차 뜻과 소리

를 나타내는 문자로 발전하였다. 한자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한자를 주유광(周有光)은 “의음문자(意音文字)”라 하고, 조원임(赵元任)은 “형태소문자(语素文字)”라 하고, 엽비성(叶蜚声) 등은 “형태소-음절문자(语素-音节文字)”라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귀납이 다르나 한자가 의미와 음을 나타내는 문자라는 데 대한 인식은 일치하다.

한자는 거의 모두가 뜻을 갖고 있다. 개개의 한자가 나타내는 의미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자를 뜻글자라고도 한다.

한자가 나타내는 음은 음절이다. 모든 문자는 어음을 기록하는데 문자가 어음의 어느 단위를 기록하는가에 따라 음소문자와 음절문자로 나뉜다. 음소문자는 개개의 음소를 기록하고 음절문자는 개개의 음절을 기록한다. 우리민족의 문자는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다. 즉 개개의 자모는 음소를 기록하나 철자법은 자모들을 묶어서 음절로 표기하도록 되었기에 “음소-음절문자”라고 보게 된다. 한자의 수량은 수만 개를 헤아리나 현대 한어가 나타내는 음절의 수량은 415개(학자에 따라 약간한 차이가 있다)로 많지 않다.

한자는 아래의 몇 가지 우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형태로 뜻을 나타낸다.

한자는 형(形), 음(音), 의(意)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문자이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형태와 의미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글자의 형태를 보고 글자의 뜻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연상사유(联想思维) 능력 양성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불 화(火)가 들어있는 글자를 보면 불과 관련된 사물을 연상하게 되고, 발 족(足)이 들어간 글자를 보면 발과 관련되는 사물이나 동작을 연상하게 된다.

한자는 글자마다 형태가 달라 구별성이 강하기에 열독능력을 제고시킨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차에서 한자와 로마자로 표기된 지명 표시 식별 실험을 한 결과 한자로 된 지명 표시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로마자로 된 지명표시의 인식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자의 구별성이 뚜렷하고 인지에 이로움을 의미한다.

둘째, 정보량이 많다.

언어문자의 정보란 그것들에 의해 표현되는 내용이다. 한자의 정보량이 많음은 한자의 사용역사와 갈라놓을 수 없다. 일부분 한자는 이미 수천 년간 계속하여 써내려왔다. 이러한 한자들은 오랫동안의 사용과정에서 누적된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에 한자 전체가 나타내는 정보량은 매우 방대하다.

셋째, 단어조성능력이 강하다.

한자의 90%가 하나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 개개의 한자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던 데로부터 점차 복합어가 생겨나면서 개개의 한자가 형태소로 되어 단어조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복합어의 산생과정에서 매 한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어 여러 가지 유형의 단어들을 대량으로 생성하였다. 이리하여 대량의 복합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객관 사물이나 인간의 사상을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한자는 초언어(超语言)적 교제기능을 가진 문자이다.

단순 표음문자는 그 문자를 쓰는 언어를 모르고는 문자로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자는 글자마다 의미를 나타내기에 언어를 초월한 교제가 가능하다.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를 몰라도 한자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필담(笔谈)”이다. 이 방법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이는 방법이다. 이는 한자의 표의(表意)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한자는 인간의 오른쪽 두뇌의 개발에 유리하다.

최근 년간 신경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 두뇌의 문자정보 인식에서, 병음문자가 나타내는 어음코딩 인식은 왼쪽 두뇌가 하고, 한자가 나타내는 도형코딩 인식은 오른쪽 두뇌가 한다고 한다. 하여 한자가 인간의 오른쪽 두뇌 개발에 유리하다고 한다.

한자에 상기의 우점들이 있는 반면에 아래와 같은 결점도 있다.

첫째, 글자의 수량이 방대하다.

둘째, 글자의 구조가 복잡하다.

셋째, 글자의 음을 기억하기 어렵다.

넷째, 글자의 뜻이 비교적 복잡하다.

한자의 이러한 결함으로 하여 20세기 70년대까지는 한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긍정적인 평가가 적었으나 80년대부터 학계에서 한자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자가 컴퓨터처리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결점이 있는 좋은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여 학계에서는 앞으로 한자가 멸망할 수는 없고 좀 더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보고 있다.

ㄷ. 한자의 교육

중국문헌《신당서·고려전(新唐书 高丽传)》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俗爱书籍, 至于衡门厮養之家, 各於街衡造大屋, 谓之扃堂, 子弟未婚之前, 昼夜於此读书习射。其书有《五经》及《史记》,《汉书》, 范晔《后汉书》,《三国志》, 孙盛《晋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选》, 尤爱重之。” 이 기록은 우리민족이 일찍 고구려시기에 평민백성들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습득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록에서는 젊은이들이 한자를 배우기 위해《玉篇》,《字統》,《字林》등과 같은 한자 자서들을 널리 이용했고, 한시를 배우기 위해《文选》을 열심히 읽었음을 밝혀주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민족의 한자교육의 역사가 역사문헌에 기록된 역사만 보아도 천여 년이 넘었고 그것이 오늘에까지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민족 한자교육의 목적은 아래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문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고, 둘째는 우리말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어를 더 잘 이해하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목적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주차가 다를 수 있다. 먼 옛날 한시로 과거시험을 볼 때와 현대에 옛 문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주요 목적이 되겠고, 일반 민중에게는 두 번째가 주요 목적으로 된다. 김민수 교수는 일찍 한자의 이해는 국어능력의 기초가 된다(金敏洙《现代语文政策论》한국문화사 2007년 310페이지)고 하였는데 매우 지당한 논단이다. 형태, 독음,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의 이해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터득이다. 여기에서 터득해야 할 한자의 음은 다른 언어의 발음이 아닌 우리말의 발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말 한자어는 우리말 한자의 발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민족 언어의 이해와 사용에 필요한 한자와 한자어 사용도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민족 사회에서는 한자와 한자어 교육을 둘러싸고 반대와 찬성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민족 문화의 발전역사와 현실을 감안할 때, 한자교육과 한자어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이라 인정된다.

2) 한자음

한자음이란 한자를 소리 내어 읽는 소리이다. 한자는 음절문자로 대다수의 한자가 하나의 음절로 되어 있다. 초언어적 문자인 한자의 독음은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에 따라 다르다. 즉 꼭 같은 한자라도 중국어의 한자독음, 우리말의 한자독음, 일본어의 한자독음, 베트남어의 한자독음이 제각각이다. 이는 해당 언어 한자음의 형성 시기와 해당 언어의 어음체계의 제약을 받아 다르게 된 것이다.

한나라 이후 한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된 한자의 글자 형태는 2천여 년간 변하지 않았으나 한자를 읽는 한어의 어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어 어음의 발전역사를 대체로 상고기(기원 3세기 이전), 중고시기(기원4～12세기), 근대시기(기원13～20세기 초), 현대시기(1919년～현재)로 나눈다. 한어에서의 한자 독음은 한어의 어음 변화에 따라 부동한 역사시기에 부동하게 읽었다. 때문에 주변의 언어들이 어느 시기에 한자를 차용하였는가와 어느 지역의 한자음을 차용하였는가에 따라 한자의 독음이 다르게 된다. 그다음으로 차용된 한어의 음이 차용한 언어의 어음체계 제약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자체의 독특한 한자음 체계가 형성된다.

(1) 우리말 한자음의 형성과 특점

우리민족은 일찍 기원전부터 한자를 차용하여 썼다. 그러니 우리말 한자음의 연원은 한어의 상고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통용되는 전통 한자음을 분석한 결과, 우리말 한자음의 대다수가 한어의 중고음과 대응되고, 한어 상고음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개별적인 한자의 독음은 중고 이후 한어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말의 전통적 한자음은 한어 중고시기 한자의 독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말 한자음의 특점은 고도로 통일되고 규범화된 독음이라는 것이다. 일본 한자음의 경우에는 오음(吴音), 한음(汉音), 당음(唐音)의 구별이 있으나 우리말 한자음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삼국 시기에는 한자의 발음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 신라 시기로부터는 점차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 우리말 한자음은 고려왕조와 이조를 거쳐 통일되고 규범화된 음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 우리말 전통 한자음의 형성 및 사용의 역사가 천여 년이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말 한자음의 통일과 규범은 향교를 통한 한자교육의 보급, 특히는 과거제도의 실시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느껴진다.

(2) 우리말 한자음 개혁의 역사

천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말 한자음의 사용 역사를 돌이켜보면 순탄하지 않았고 네 차례의 개혁에 직면하였었다.

첫 번째 개혁

첫 번째 개혁은 1448년에 편찬된《동국정운(东国正韵)》이다.

《동국정운》은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으로 편집한 최초의 운서이다. 《동국정운》의 편집 목적은 전통적으로 써 내려오던 우리말 한자음에 대한 개혁이었다. 한어

중고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우리말 한자음은 그 당시 근세중국어의 한자 발음과 차이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한 세종은 전통적인 우리말 한자음을 그 당시 중국어의 발음대로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운서를 편찬하게 하였다. 즉 한자음의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제정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전통적 한자음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고 최세진의 《훈몽자회(训蒙字汇) 》가 나오면서 제정 80년 만에 폐지되었다.

두 번째 개혁

두 번째 개혁은 1933년에 반포된 《한글맞춤법통일안》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의 개혁은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른바 두음법칙에 따르는 개별 한자음(ㄴ, ㄹ로 시작된 한자음)과 한자어 표기의 괴리이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두음법칙 이론이 과연 우리말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이론일까? 이 법칙은 알타이어 특징설을 우리말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먼저 이른바 알타이어 특징설(김승곤《한국어의 기원》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4)을 보기로 하자.

첫째, 모음조화가 있다.

둘째, 어두에 겹자음이 쓰이지 않는다.

셋째, 두음법칙이 있다.

넷째, 음절말음은 모음이나 단자음으로 끝난다.

다섯째, 문장 구조는 주어-목적어-술어로 된다.

이상의 다섯 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우리말에 적응되는 것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이고 나머지는 우리말에 부합되지 않는 특징이다. 우리말 중세어에서 어두에 겹자음이 많이 씌었고, 어말에서는 지금도 겹자음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두음법칙이 과연 우리말 고유의 법칙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라면 우리 민족은 자음 ㄹ로 시작된 음절 발음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순조롭게 발음한다. 자음 [*r*]나 [l]가 없는 언어 사용자들이 이 두 가지 음을 발음하지 못함을 쉽게 볼 수 있고, 중국인들이 우리말 자음 발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ㄹ의 발음이다. 왜냐하면 중국어에 우리말 ㄹ과 대응되는 자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라면 ㄹ이 우리말 어음체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훈민정음》에서도 굳이 자모 ㄹ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에서는 "ㄹ。

半舌音。如閭字初發聲”이라 하여 ㄹ이 우리말에서 초성으로 쓰임을 분명히 하였다. 《훈민정음》에서 예를 든 글자 “閭”자가 두음법칙에 따르면 “여”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려”로 발음하였으니 두음법칙과 배치되는 발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만약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라면 우리말에서는 ㄹ을 첫소리로 하는 단어가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말 고어에서 보면 ㄹ을 첫소리로 하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의 다수가 한자어이고 고유어들도 있다. 예를 들면 “러울(너구리)”, “러피다(넓히다)”, “려다(가다)”, “력(녘)”, “롤애(노래)”, “루르다(누르다)” 등이다.

넷째, 외래어는 받아들이는 언어의 어음체계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받아들이는 언어에 없는 어음은 부득이 다른 음으로 바꿔 쓰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 우리 언어에는 외래어의 자음 [f]와 꼭 같은 자음이 없기에 외래어 표기에서는 우리말 자음 “ㅍ”으로 표기한다. 만약 두음법칙이 우리언어의 고유한 법칙이라면 외래어인 “라디오”, “로마”는 “나디오”, “노마”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거침없이 잘하고 있다. 이는 ㄹ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이상에서 두음법칙이 우리말 고유의 법칙이 아님을 밝히었다.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두음법칙을 제정하게 된 원인은 그 시기 이론의 제약을 받은 데 있다고 느껴진다. 즉 20세기 30년대 우리민족어 학계에서 우리말이 알타이어계통에 속한다고 믿었고, 알타이어 특징설을 신봉하면서 그것을 우리말의 특징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느껴진다. 모든 이론은 역사적 제약성을 받게 된다. 지금 국제적으로 알타이어계학설 자체가 논쟁 중에 있고 우리말과 일본어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는 것도 가설에 불과하며 이 두 언어의 계통 문제가 쟁론 중에 있다. 그러므로 알타이어 특징설에 기초한 우리말 두음법칙은 참답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세 번째 개혁

세 번째 개혁은 1946년 조선에서 진행된 《한글맞춤법통일안》 개정이다.

1946년 8월, 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면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 하느냐 아니면 “노동당”이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을 준수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거쳐 “로동당”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로동당”으로의 표기는 그 시기에 조선에서도 준수해 오던 《한글맞춤법통일안》과 모순되므로 “로동당”으로의 표기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혀주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임무를 수행한 첫 논문이 바로 김수경의 논문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중에서 개정할 몇 가지, 그 하나로서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두음 ㄴ 및 ㄹ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로동신문” 1947년

6월 6, 7, 8, 10일 호에 실리었다. 논문에서는 통일안의 두음법칙의 제한성에 대해 아래의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표음주의 경향, 둘째는 비체계성, 셋째는 다른 외래어 표기와의 모순성, 넷째는 언어음 발전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이다. 그 이후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이 제정되면서 반도의 남과 북은 맞춤법을 달리하게 되었다. 중국 조선어에서도 1948년부터 조선의 원칙대로 어두에서 ㄴ, ㄹ을 표기하였다. 보다시피 김수경의 논문에서는 두음법칙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였지 그것이 우리말 실제를 떠난 그릇된 이론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조선에서는 한자의 발음과 한자어의 발음을 일치시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북 맞춤법 사이의 모순이 한자어 표기를 둘러싸고 인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자음과 한자어 표기가 우리말에서는 참답게 연구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 번째 개혁

네 번째 개혁은 한국에서 제정한 1986년 《외래어 표기법》이다.

동북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전통은 무릇 한자로 기록된 단어와 인명, 지명은 자국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한자문화권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되어 온 전통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때문에 서로가 한자로 표기된 상대방의 단어는 자기 언어의 발음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한자로 기록된 지명 설악산의 한자표기 雪岳山을 중국어에서는 중국어의 한자 발음대로, 일본어에서는 일본어의 한자 발음대로 읽어왔지 우리말 발음대로 읽지 않았다. 앞으로도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절대 우리말 발음대로 읽지 않는다. 이는 한자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례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로 간의 문화교류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의 문화발전에 유리하였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만이 상대방 언어의 발음대로 표기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형성된 관례와 전통이 한국의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말 한자음이 혼란해지고 있다. 이 표기법이 중국어 표기의 개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게 하는 항목이 있다. 즉 표기법 “제4장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이다. 이 절은 한자문화권의 관례와 전통을 의식하고 만든 절로 모두 4개 항으로 되어있다. 제1항 중국의 인명표기에서는 과거인은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로 표기한다고 했다. 제2항 중국의 지명 표기에서는 지금 쓰이지 않는 역사지명은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지금 쓰이는 것은 중국어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제3항은 일본어 인명 지명에 관한 항목으로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제4항은 중국이

나 일본의 지명 가운데에서 한국어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일본의 인명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구분이 없이 일본어로 읽고 쓰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우리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노예로, 일본어를 배우고 쓰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인명 지명 발음에서 과거와 현대의 구분이 없게 된 것이 아닐까?

총적으로 한국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례와 전통을 타파하고 한자를 중국어의 원음대로 읽고 표기하자는 것이다. 이는《동국정운》과 궤(軌)를 완전히 같이 하는 개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남북의 언어 차이가 확대된다.

중국사람 江泽民을 한국에서는 "쟝쩌민"이라 부르고 조선에서는 "강택민"이라고 부르는데 대해 외국인들이 매우 의아해한다.

둘째, 중국어로의 표기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주로 외국의 고유명사 표기를 목적으로 제정한 규범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인터넷에서 보면 중국어로의 표기가 "광군제(光棍节)", "솽스이(双十一)"와 같이 일반 단어에도 남용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표기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셋째, 한자음 표기가 혼란해진다.

우선 과거인은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로 표기하게 되면 꼭 같은 한자를 두 가지 발음으로 표기하게 된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한자음표기의 혼란이다.

다음은 한자의 중국음 표기가 혼란한 상태이다. 한국 인터넷에서 한자의 중국음 표기가 사람에 따라 다름을 흔히 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중국음 표기의 혼란이다. 예를 들면 한자 "江"의 중국음을 "장", "쟝", "쨩"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 원인에는 표기법 자체의 문제도 있다.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의 표 5가 "중국어 주음부호와 한글대조표"로 되어 있다. 우선은 왜 중국 대륙에서 쓰이지 않는 주음부호와의 대조표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다음은 발음표기에서 그릇된 것들이 보인다. 나아가 조선의 중국음 표기법과 대조해 보면 차이가 있다. 그 결과는 한자의 중국음 표기도 남북이 다르게 되면서 우리말 한자음 표기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일례로 "波" 자의 중국음 발음을 한국에서는 "보"라 하고 조선에서는 "붜"라 하였다. 한국의 표기는 자모의 발음대로 하고 조선의 표기는 실제의 발음대로 하였다. 이는 앞으로 남과 북이 외래어 표기법도 통일하지 않으면 아니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음 표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득이 새로운 한자음 옥편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말 한자음에는 전통적 한자음과 개정 한자음 두 가지 체계가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민족 문화의 발전에 유익한 길일지 숙고해야 할 일이다.

(3) 우리말 한자음의 성질

상기의 한자음 개혁의 역사에서 초래된 문제들이 우리말 한자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힐 필요를 느끼게 한다.

최세진은 일찍 우리의 한자음을 "국음(国音)"이라 하고 중국한자음을 "한음(汉音)"이라 하였다. 이는 우리 한자음의 성질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이다. 한자어 "국음"을 고유어로 풀이하면 "나라 소리"가 되니 우리의 한자음은 중국 한어의 발음과 구별되는 우리의 말소리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자음은 우리들이 아끼고 보호해야 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 한자음이 비록 한어 중고음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으나 그것이 차용될 때 우리말 어음체계의 제약을 받으며 들어왔고, 그 이후 점차 중국 한어의 독음과 달라지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었다. 한자를 차용해 쓴 일본 한자음이나 베트남 한자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공동조어(共同祖语)에서 기원한 여러 언어들이 점차 부동한 언어로 분화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도리이다.

둘째, 우리말 한자음은 유일무이(唯一无二)의 한자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말 한자음과 꼭 같은 한자음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말 한자음이 형성된 이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와 다른 언어의 한자음과 구별되고 점차 우리문화의 구성 요소로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말 한자음은 천여 년의 풍상을 겪어온 음으로 우리민족의 언어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즉 우리말에서 쓰이는 수많은 한자어의 발음은 한결 같이 우리의 전통적 한자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찍 절대적인 왕권으로 전통적 한자음을 개정하려 하였던 세종대왕의 웅대한 포부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기(铭记)할 필요가 있다. 세종의 한자음 개정의 목적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문화전통에 대한 배반에 있다. 즉《동국정운》한자음 발음이 우리 언어에 침투된 한자어의 발음과 괴리가 생기면서 민중이 개정 한자음을 수용(收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금동서에서 문화전통에 대한 배반이 실패로 끝나거나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문자의 개혁이 민족문화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총적으로 우리말 한자음이 비록 기원적으로는 중국의 한어 음에 기초하였으나 오래전부터 한어의 음에서 분화되었고, 천여 년간의 사용과정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된 한자음의 사용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그로 하여금 우리민족의 문화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하게 해야 한다.

3) 한자어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어 사용에 대해서도 견해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의 해소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에 대해 논하게 된다.

(1) 한자어의 특징

한자어란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나 복합어이다. 여기에서 규정한 한자로 적을 수 있음은 단어나 복합어를 구성한 모든 형태소를 다 한자로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자어 형태소와 고유어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예를 들면 "강(强)하다"]나 한자어 형태소와 외래어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예를 들면 "비타민(vitamin) 결핍증(缺乏症)"]는 구조적으로 보아 혼합어라고 하게 된다.

우리말 한자어는 아래의 특징이 있다.

ㄱ. 어음적 특징

첫째, 한자어 어음은 독자적인 체계를 이룬다.

둘째, 한자어는 음절수가 제한되어 있어 485개의 음절이 쓰인다.

셋째, 한자어 자음체계에서 된소리가 쓰이지 않는다. 된소리가 들어간 음절 "끽(吃), 뿐(分), 쌍(双), 씨(氏)" 네 음절은 우리말 표기 시(时)에 쓰인 음절이거나 뒤늦게 생긴 음절이다.

ㄴ. 어휘적 특징

첫째, 거의 모든 한자가 우리말에서 형태소로 쓰인다.

둘째, 한자어에는 동음이의(同音异义)어가 많다. 우리말에서 쓰이는 음절수는 2000여개이다. 그러나 우리말 한자어에서 쓰이는 음절수는 485개로 제한되어 있으니 불가피하게 동음이의어들이 많이 생겨난다. "가정"이라는 한자어를 예로 들어도 "加定", "苛政", "家丁", "家庭", "假定", "假晶", "驾丁", "家政" 등과 같이 여럿이 있다. 이 같은 동음이의어들의 의미 식별을 위해서는 한자로의 표기가 필요하다.

셋째, 한자어 어근이 우리말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로는 되나 동사, 형용사로는 되지 못한다.

넷째, 한자어 명사는 어근 뒤에 "-하다" 등의 접미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명사(静名词)[접미사 "하다" 등을 붙이지 못하고 "이다"를 붙일 수 있는 명사 "산(山)" 등], 동명

사(动名词)[접미사 “하다”를 붙이어 동사로 되는 명사 “건설(建设)” 등], 형명사(形名词)[접미사 “하다”를 붙이어 형용사로 되는 명사 “건강(健康)” 등]로 나뉜다.

다섯째, 일부분 합성어의 단어결합에서 “술어 + 목적어”의 중국어 문법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내한(来韩)” 등이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합성어이다.

(2) 한자어의 내원(来源)

우리말 한자어 하면 중국어에서 차용한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말 한자어의 내원은 단원이 아니라 다원이다. 즉 한자어에는 중국어에서 온 것이 많지만 그 외에 우리말에서 만든 것[예를 들면 “남동생(男同生)”, “삼촌(三寸)”], 일본어에서 차용한 것[예를 들면 “가극(歌剧)”, “가정(假定)”], 몽골어에서 차용한 것[예를 들면 “사돈(查顿)”] , 만주어에서 차용한 것[예를 들면 인명(人名) “부의(溥仪)”, “누르하치(努尔哈赤)”] 등 여러 가지 언어에서 기원하였다.

우리는 일찍부터 한자의 음이나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었고 새로운 단어도 많이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단어들이 한자로 기록되었다 하여 한어에서 왔다고 매도하며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 한자어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고 어느 것이 다른 언어에서 차용한 것인지도 똑똑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말 어휘 연구에서 미흡한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말에서 기원한 한자어를 밝혀내는 문제는 우리말 연구에서 마땅히 전개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라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분명히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였고 한자로의 표기도 같다 하지만 우리말의 의미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중국어에서 차용한 한자어 접미사 “-가(哥)”의 의미를 보자. 이 글자가 우리말에서는 성씨(姓氏)의 뜻을 나타낸다. 즉 “김가(金哥)”, “박가(朴哥)” 할 때에 쓰인다. 그런데 이 글자가 중국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없다. 중국어 상고시기에는 “노래”의 뜻을 나타냈고, 그 이후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아 형(兄)의 뜻을 나타내면서 오늘까지 쓰이고 있다. 우리말에서도 일찍 형의 뜻을 나타냈는데 후에 점차 의미가 변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가 잘 연구되어야 한다. 이같이 형태가 같으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한자어들이 많다. 동형이의(同形异意) 한자어 의미의 차이 연구도 어휘연구에서 참답게 전개되어야 할 과제이나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총적으로 우리말 한자어가 어디에서 왔건을 막론하고 이미 한자의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우리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그것이 타민족의 문화가 아닌 우리민족의 문화임을 시인해야 한다.

(3) 한자어의 사용

한자어 사용을 둘러싸고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 한자와 한자어를 폐지하고 국어를 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俞昌均《国语学史》螢雪出版社 1992 435페이지) 우리말에서의 한자어 폐지가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말 한자어는 형성된 역사가 오래다.

우리말 한자어는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전개된 문화교류의 결과로, 중국어와의 접촉과정에서 중국어를 차용하면서 생성되었다고 보는 데는 이의가 없으리라 믿는다. 우리말 한자어의 형성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었고, 그 후 서한(西汉)시기 양웅(扬雄)이 정리한 《방언(方言)》에 고조선 지역 단어 27개가 수록되어 있고, 동한(东汉)시기 허신(许慎)의 《설문해자(说文解字)》에도 고조선 지역의 단어 17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찍 기원전부터 중국과 고조선 사이에 문화교류가 있었고, 이에 기초한 우리말 한자어가 형성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에서 상고시기의 한자음에 겹자음이 있었다는 연구 성과가 나온 이후 상고시기 한자의 겹자음과 우리말 대비연구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자 “风”과 “바람”, 한자 “器”와 “그릇”, 한자 “街”와 “거리”, 한자 “丝”와 “실”, 한자 “路”와 “길”, 한자 “棵”와 “그루”, 한자 “鲸”과 “고래” 등등의 단어들이 대응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연구 성과들이다. 보시다시피 한자와 대응되는 우리말 단어는 모두가 우리의 고유어로 인식되는 단어들이다.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한자와 우리민족 언어의 관계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한자의 상고 겹자음과 우리말 단어의 대비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올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룩한 우리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실들은 우리말 한자어의 산생이 이미 2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우리말 한자어는 수량이 방대하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의 폐지는 어리석은 일이다. 폐지한다면 그것들을 대치할 단어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난 시기에 전개된 한국의 국어순화운동이나 조선의 말다듬기 운동의 실례로 보아도 한자어의

폐지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우리말 교제가 제약을 받게 된다.

한자어 폐지가 우리말 교제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일부분 영역, 특히는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일례로 정보 통신영역의 용어를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 편찬한 《정보통신용어사전》(제3판)에 어림잡아도 15000개 이상의 단어가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고유어로 된 용어는 겨우 76개를 찾았다.(부록을 참고하라) 이는 겨우 정보 통신 용어 총수의 0.005%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나머지의 절대다수가 한자어나 한자 혼합어이고 그다음이 외래어이다. 만약 이 영역에서 한자어 사용을 폐지한다면 교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우리의 모든 연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는 민속으로부터 문물제도에 이르기까지 중국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고유어만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음은 우리말로의 이름 짓기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우리말로 지었다고 자랑하는 이름도 성씨는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 이런 이름은 혼합어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민족의 성씨의 대부분이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고 한자로 쓰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버릴 수 있을까? 우리민족이 한자 성씨를 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다.

넷째, 우리민족의 문화발전을 제한한다.

언어는 교제의 도구이고 사유의 도구이다. 한자어 사용폐지가 우선은 우리민족 대중의 교제의 영역이 좁아지게 하고, 다음은 사유의 공간이 좁아지게 하므로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몇 가지로부터 보아 우리말 전문용어 제정에서 한자어를 배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한자어 통일도 고려해 볼 만한 과제라 느껴진다. 즉 한자어 선택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에서의 한자어 표기를 참조하여 될 수 있으면 세 나라에서 형태가 같은 한자어 용어를 쓰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 “전문용어”를 보기로 하자. 이 단어를 중국어에서는 “술어(术语)”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전문용어”와 뜻을 같이하는 동의어로는 “전문술어(专门术语)”, “전문어(专门语)(‘전문용어’의 준말)”, “학술전문용어(学术专门用语)”, “학술어(学术语)”, “술어(术语)(‘학술어’의 준말)”, “갈말”, “용어(用语)” 등 여럿이 있다. 가령 일본어에서도 “술어(术语)”라고 한다면 우리말에서도 함께 “술어(术语)”를 표준으로 하면 한자문화권에서 한자 술어의 통일을 가져오리라 느껴진다. 이러한 통일이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교류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귀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음, 한자어의 통합은 우리민족 언어 규범화에서 회피할 수 없는 거족적 역사적 과업이다.

둘째, 용어통합에서 남북 규범의 차이로 당장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은 남북의 표기법을 존중하는 복수안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이른바 우리말 두음법칙은 우리말 고유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릇된 이론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한자와 한자음 및 한자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므로 우리말 이해에 이로운 합리적인 사용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지속되어 온 한자 문화권의 전통은 준수되어야 하고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문화의 특징은 확고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기초한자교육은 민족문화교육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단지 한자 학습 정도(程度)의 확정은 각자의 수요에 따라야 한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본고에서 논의된 문제들에는 학계의 정설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통책(痛责)이 쇄도하리라 믿는다. 학술은 오직 논쟁 가운데에서만이 발전하게 되므로 독자들의 반론과 질정을 삼가 바란다.

부 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편찬《정보통신용어사전》(제3판 1997년)에 수록된 전문용어가 대략 1만 5천여 개이다. 조사결과 그 가운데에서 순수 고유어로 된 용어는 76개로, 총수의 0.005%를 차지한다. 조사한 고유어 용어는 아래와 같다.

거짓, 거짓 버림, 거짓 빛깔, 꺼짐, 끌기, 끝내기, 끌어놓기, 끼어들기, 끼어들기 막기, 끼어들기 받음, 끼우기, 나무 꼴, 나르개, 낮은 자리, 넘침, 높은 자리 먼저, 다발, 닫기, 덧붙임, 덧셈, 되돌림, 뒤바꿈기, 들여오기, 뛰어넘기, 뜻으로 본 잘못, 모두 옮겨놓기, 몫, 묶음, 묶음 풀기, 바꿔 넣기, 바꿔 놓기, 바뀌다, 밝기, 보내기, 빈칸, 뽑아내다, 뽑아냄, 뿌리, 손뼉 크기, 아래 자리 넘침, 올려놓기, 올리개, 올림, 올림 마루, 옮겨 바꾸기, 옮겨 보내기, 옮겨 비우기, 옮겨 쓰기, 옮김, 이름, 이웃 자리, 읽기, 자르기, 자리 맞추기, 자리 맞춤, 자리올림, 자리 옮김, 자리 찾기, 잘라버림, 잘라 내어 버림, 잘라 올림, 잠금, 주고받기, 지움, 지워 쓰기, 짜 넣기, 짜 맞추기, 쪽 올림, 쪽 틀, 찾아보기, 채우개, 채우기, 틈새, 하나로 합침, 흐름, 흔들림

"주제" 2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및 자료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성우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및 자료

신 중 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성 우(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차례〉

1. 서론
2.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
3.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자료
4. 결론

1. 서론

국립국어원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수행한 지 벌써 5년차에 이르렀다. 5년 동안 한양대학교 신중진 교수 연구 팀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즉,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을 시작으로 2019년의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중진 교수 연구 팀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여러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를 발굴해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중진 외(2015-2019)를 되짚어 보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을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을 시도한다.[1] 이를 통해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및 통합 작업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제시하려고 한다.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의 비교 및 통합을 위한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조망해 볼 것이다.

1) 신중진 외(2015-2019)란 국립국어원에서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말한다. 과제 명칭은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7 국어 분야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8 역사 분야 남북 전문용어 구축>, <2019 음악 미술 분야 남북 전문용어 구축>이다.

2.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

2.1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의의와 한계

2.1.1 연구 의의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남북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특정 교과 분야에 한정하여 일정 수량의 남북 전문용어를 비교하고 통합해 왔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새로운 전환기를 개척한 것으로, 기존의 여러 남북 전문용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의의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남북 전문용어 비교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 수량도 적지 않다. 5년 동안 약 1만여 개의 전문용어를 통합했다. 또한 그 대상이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들 용어는 일반 어휘처럼 두루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과 분야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예체능이 두루 섞여 있어서,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문용어 수집 과정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언급될 기존 연구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결과를 단순히 제시만 하고 있다. 즉, 근거가 되는 자료와 수집 절차, 그리고 비교 기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고, 북측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우열을 정리하여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2)]

셋째, 전문용어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ISO 704를 바탕으로 통합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통합 기준은 두 가지 장점을 갖는데, 하나는 전문용어 표준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기준을 따랐다는 점이다. 아울러 분야별로 기준의 조정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 이는 분야의 특색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어종 분석과 조어 분석이 대표적이이다. 이러한 두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이 전문용어 통합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엄태경(2015)의 핵심 조어단위를 활용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방안, 김령령 신중진(2019)에서 제시한 어종을 활용한 전문용어 통합 방안 등은 신중진 외(2015-2019)의 어종 분석과 조어 분석을 기초로 한다.

2)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교과서의 전문용어 > 광명 백과사전의 전문용어 > 조선말대사전의 전문용어로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남측의 선행 연구들은 가장 후순위로 설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2.1.2 한계점

위와 같이 신중진 외(2015-2019)는 여러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도 명확하다. 아울러 보완 방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계로는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기준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이다. 현재의 기준은 신중진 외(2018)에 설립된 것이다. 신중진 외(2018)의 기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체계성의 도입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인 신중진 외(2015-2017)은 체계성의 기준을 확인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필터 기준인 문법성과 윤리미학성 또한 신중진 외(2016)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이는 곧 신중진 외(2015)에서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중진 외(2015)를 대상으로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의 기준이 다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후 수정 작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준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신중진 외(2015-2019)에서는 위계 기준으로 설정한 '투명성 - 친숙성 - 일의성 - 경제성 - 고유성 - 일관성'이 전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우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언어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전문가들이 위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즉, 각 학계에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진행할 경우, 각 기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쉬운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문용어 통합 작업에 전문용어 전문가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용어 전문가는 통합 기준의 조정 및 통합 기준의 적용 과정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용어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문용어 감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중진 외(2015-2019)의 또 다른 한계점은 새터민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신중진 외(2016)에서 새터민을 섭외하여 수집한 남북 전문용어와 통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의 판단으로는 몇몇 용어를 대상으로 소수의 새터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의 설문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치밀한 설문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한 전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설문조사 과정의 정밀성이고, 다른 하나는 새터민 인력풀의 마련이다.[3)]

이처럼 신중진 외(2015-2019)는 의의가 상당하나,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보완, 그리고 각 학계의 도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보완되면,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가능할

3)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전문가가 연구 팀에 합류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확인한다.

2.1.3 발전 방향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신중진 외(2015-2019)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가진다. 그리고 위에서 논의된 한계를 극복하면, 보다 더 정밀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중진 외(2015-2019)의 연구 결과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단기적인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중진 외(2015-2016)에서는 수학 및 자연과학의 남북 전문용어 대응 목록 3,700여 개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전 분야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천문학/지구과학' 분야이다. '천문학/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 구축 및 통합이 요구된다.[4)]

또한 사회과학의 전문용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사회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용어들을 들 수 있겠다. 해당 교과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지리', '경제', '법과 사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 경제학, 철학, 법학, 경영학 등과 관련된다. 이들 용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5)] 하지만 국어 및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남북 전문용어 통합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은 주요 교과의 전문용어 통합에만 매달린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중에서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은 중학교 교과인 '기술/가정' 그리고 '직업 탐구 영역'의 교과들이다.[6)] 이들 교과는 모두 이데올로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문용어 통합 과제에서 고려할 만한 대상이다.

이처럼 아직 통합할 수 있는 교과 분야는 여럿 남아있다. 그리고 이들 전문용어를 통합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남북 전문용어 사전의 편찬이다. 물론 남북 전문용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남북 전문용어의

4) 지질 및 지리학, 그리고 천문학과 관련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성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2.2 참고.
5) 다만 모든 사회 탐구 교과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리 분야의 전문용어는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직업 탐구 영역의 교과로는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가 있다. 이 중 남북의 농업 전문용어와 수산업 전문용어를 비교한 성과는 최근에 공개된 바 있다.

체계적인 관리이다. 수집한 전문용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남측이나 북측의 사정이 변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가 요구된다.[7)]

이와 같은 남북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관리는 궁극적으로 남북 전문용어 사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편찬될 남북 전문용어 사전에는 남북 전문용어의 비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뜻풀이, 사용례,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전문용어의 원어 등이 포함된 구성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은 <겨레말큰사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이므로, 그 의미도 상당하다. 물론 이는 종이 사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웹사전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2.2 그 외의 연구 성과

2.2.1 단행본

이 절은 그간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가 단행본이나 연구보고서로 생산된 것을 정리한다.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과 달리 단행본이나 연구보고서는 분량의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가 보다 수월하다. 이로 인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남북 전문용어 연구는 그 분량과 깊이가 상당하다. 이 글에서는 총 36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목록을 정리한다.[8)]

번호	저자(연도)	제목	출판사(발행)	연구 성과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04)	남북과학기술용어집[전자자료][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전 분야 남북 전문용어 22만 개 비교 분석
2	한국법무부 통일법무과(2017)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양평군 생각쉼표	남북 법률 용어 157개 비교 분석
3	한국 산업자원부 (2007)	남북 산업 표준 용어 비교	산업자원부	13개 산업 분야 용어 비교[10)] 북측: 13,428개, 남측: 5,072개
4	최기호 외 (2007)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체육 용어 1,700여 개 비교 분석
5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1	한국문화사	남북 생활 분야 250항목 용어 비교 분석

7) 관리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전문용어 관리 및 감수를 위한 단체의 설립이고, 둘째는 이러한 단체가 따를 수 있는 전문용어 관리 및 업데이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8) 여기서 제시하는 문헌은 따로 참고 문헌에 제시하지 않는다.

9) 전자 자료집의 경우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검색되었으나, 출판물의 경우 여러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13개 산업 분야로는 원유 제품, 방직 및 가죽 재료와 그 제품, 금속 및 금속 제품, 동력 및 전기설비, 광업, 유용광물, 전자 통신 및 정보기술, 일반 과학기술, 문화용품 및 관리, 운수 수단 및 용기, 화학, 고무 및 돌솜 제품, 건설 및 건재, 측정계기 및 기구, 요업 재료 및 제품이 해당한다.

번호	저자(연도)	제목	출판사(발행)	연구 성과
6	겨레말큰사전 (2017)	남북 생활 용어 2	맵씨터	남북 생활 분야 250항목 용어 비교 분석
7	조명철 외 (2008)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남북한 무역 용어 1,000여 개 비교 분석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2007년 남북학술 전문용어 비교사전 편찬 사업 참여를 위한 남북한 여성 전문용어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전문용어 95개 비교 분석
9	한만길 외 (1997)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교육 용어 500여 개 비교 분석
10	이창건 외 (1998)	남북 원자력 용어 비교	한국원자력협회	원자력 분야 남북 공통 용어 2,211개 비교 분석
11	이상수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 사회 분야 용어 900개 비교 분석
12	최용기 외 (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 인문 분야 용어 900개 비교 분석
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남북한 IT 용어 사전	한국정보화진흥원	남북한 IT 관련 용어 1,000개 비교 분석
14	김호용 외 (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 비교 연구조사	과학기술부	남북한 전력 분야 용어 1,000개 비교 분석
15	부경생 외 (2013)	남북한 농업용어 비교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남북 농업 분야 전문용어 3,000여 개 비교 분석
16	대한의사협회 (1996)	남북한 의학용어	아카데미아	남북 의학 분야 전문용어 35,000여 개 비교 분석
17	국사편찬위원회 (2002)	남북 역사용어 및 영문표기 기초 조사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 역사 용어 5,058개 비교 분석
18	한국교열기자협회 (2002)	남북 매스컴 용어 사전	한국교열기자협회	남북 매스컴 관련 용어 4,500개 비교 분석
1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남북공통) 정보화 교육 용어 사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남북 정보화 용어 2,491개 비교 분석
20	이상준 외 (2007)	남북 학술 전문용어 비교 사전: 예비 작업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주요 분야 남북 전문용어 700여 개 비교 분석
21	김희철 (2018)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수류책방	남북 경제 금융 전문용어 163개 비교 분석
22	김승철 (2005)	남북한 IT 용어 비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 IT 분야 전문용어 1,000여 개 비교 분석
23	유호열 외 (2013)	남북 수자원 비교 용어집	대전: K.water	남북 수자원 용어 1,200여 개 비교 분석
24	정종남 (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1.	종로서적	남북 신문, TV, 실생활 용어 2,000개 비교 분석
25	정종남 (2001)	남한 주민이 알아야 할 북한 어휘 2000개 2.	종로서적	남북 신문, TV, 실생활 용어 2,000개 비교 분석
26	전수태 외 (2002)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남북 방송 용어 1,610개 비교 분석
27	전수태 외 (2002)	북한 신문용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남북 신문용어 990여 개 비교 분석

번호	저자(연도)	제목	출판사(발행)	연구 성과
28	국립수산과학원 (2018)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국립수산과학원	남북 수산업 관련 용어 1.043개 비교 분석
29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1	국립국어원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12,600여 개 비교 분석
30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2	국립국어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8,600여 개 비교 분석
31	국토교통부(2015)	북한건설용어집	국토교통부	남북 건설 용어 5,364개 비교 분석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	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북 ICT 전문용어 7,181개 비교 분석
33	도로교통공단 (2018)	남북한 도로교통용어 비교	도로교통공단	남북 도로교통용어 139개 비교 분석
34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8)	남북 철도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북 철도용어 1,680개 비교 분석
35	대한간호협회 (2018)	남북한 간호학 용어집	대한간호협회	남한 간호학 용어 중 필수 용어에 대한 북한 대비 분석
36	한국관광공사 (1996)	북한 관광 용어집	한국관광공사	3천여 개 북한 용어 분석 남북 관광 용어 대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한 수량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작업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제시된 숫자를 모두 더하면 약 29만여 개에 해당한다. 물론 이 중에는 신중진 외(2015-2019)에서도 다뤄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통합할 전문용어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학문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11] 그것은 바로 심리학 분야와 뇌과학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남북과학기술용어집,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과 같은 대단위 업적들에서 조금씩은 다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여러 분야를 아우르다 보니, 용어 수집의 깊이는 다소 부족하다. 더불어 분야별 편차도 극심하다. 즉,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쪽 연구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용어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금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려면,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특정 분야만을 대상으로 심화 전문용어의 수집이 요구된다.[12] 다시 말해 중등 교과 차원의 전문용어와 고등 교과 차원의 전문용어 수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에는 북측의 전문용어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용어 수집 및 비교 지침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학계별로 가치 있는 업적을 내고 있으나, 연구 과정은 잘 알려지지

11) 학문 분류에 따라 나눈 결과물은 엑셀 파일로 따로 제시한다.
12) 심화 전문용어는 대학 교과 차원에서 다루는 전문용어를 지칭한다.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이성우 신중진(2016), 신중진 외(2016)을 참고할 수 있다.

않았다. 신뢰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용어 수집 및 비교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셋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신중진 외(2017-2018)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므로,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세 과제는 단기간에 진행될 수 없다. 긴 안목과 끈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2.2.2 학위 논문

그간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는 몇몇 학위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다만 교과 전문용어에 다소 한정된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을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13)]

번호	저자 (연도)	제목	학교(구분)	연구 성과[14)]
1	김창숙 (2005)	남북한 생물학 용어 통일을 위한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약 210개의 남북 생물 전문용어 통합 방안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모형 제시
2	허진영 (2000)	남북한 치의학 용어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약 2,000여 개의 남북 치의학 전문용어 비교집 제시
3	이영신 (2012)	우리나라와 북한의 생물 교과서 용어 비교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약 230개의 남북 생물 전문용어 통합 방안
4	임세현 (2005)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북한 수학 교과서 비교 및 용어 12개 비교 분석
5	이경미 (2002)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한의학 전문용어 258개의 비교 및 분석
6	최인선 (2002)	남북한 학교 수학용어 비교 분석 연구 및 통일 후 수학용어 선정에 대한 방향 모색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북 수학교과 전문용어 40개 비교 분석
7	김연정 (2001)	남북한 중등 과학 교육 비교 및 통합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남북 과학교과 전문용어 158개 비교집 구축
8	전미선 (2019)	남북표준 비교 분석에 따른 표준 통합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남북 건설분야 전문용어 86개의 비교집 구축
9	최근수 (2003)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비교 분석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북 지질학 분야 전문용어 1,272개 비교집 구축
10	장해광 (2004)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북 수학 전문용어 112개 비교집 구축
11	이호성 (2005)	남북한 화학과 교과서 비교 분석 및 북한 화학 용어에 대한 이해도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북측 화학 용어 40개에 대한 남측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

13) 논문은 리스(www.riss.kr)을 통해 수집되었다. 검색어로는 '남북 용어'를 입력하였다. 검색 결과 중 일정 수량 이상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논문만 수집하였다.

번호	저자 (연도)	제목	학교(구분)	연구 성과[14]
12	이치연 (2018)	북한 치의학 연구 현황 분석 및 용어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북한 치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정리
13	이정복 (1996)	남북한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수학 용어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14	손범규 (2002)	남북한 방송언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석사)	남북한 방송 용어 61개 정리
15	천현후 (2009)	남북한 중등학교 한국지리 용어 차이와 통합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측 지리 전문용어 423개, 북측 지리 전문용어 344개 수집
16	이광주 (1994)	남북한 국민(인민)학교 산수 교과서 용어에 관한 비교 분석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석사)	-
17	김사랑 (2017)	남북한 영문법 용어 비교분석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석사)	-
18	김효정 (200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중등 수학교과서의 비교	창원대학교 대학원(석사)	남북 수학 전문용어 269개 비교집 구축
19	윤여진 (2018)	남북한의 중학교 미술교과서 용어 조어 분석 비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북 미술교과 전문용어의 329개 조어 분석
20	조섭기 (2007)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21	곽미란 (2006)	남북한 음악용어의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22	금명근 (2000)	중등분야의 남북한 수학교과서 비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23	이환섭 (2013)	남북한 도로선형설계 기준 및 표준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석사)	남북 도로교통 용어 50개 수집 및 비교집 구축
24	변준희 (2010)	남북한 상징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남북의 상징어 1,255개 수집 및 비교집 구축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학위 논문에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신중진 외(2015-2018)의 연구 성과와 겹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다. 허진영(2000), 이경미(2002),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논의는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허진영(2000), 이경미(2002)는 고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용어의 비교이고,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은 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용어의 비교이다. 신중진 이성우(2016)와 이성우 신중진(2016)의 기준을 따르면, 허진영(2000), 이경미(2002)는 심화 전문용어에 해당하며, 전미선(2019), 최근수(2003), 천현후(2009), 변준희(2010)은 기초 전문용어에 해당한다.

14) 연구 성과가 공란인 경우는 저자가 열람을 거부한 논문이다. 따로 도서관에 찾아가서 수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까지는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 연구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이들의 연구 범위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건설/교통', '문화/예술/체육', '지역/지리/관광'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이들 분야는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비교적 적은 분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등 교과와의 교점이 없는 영역은 비교적 연구가 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원자력'과 같은 분야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들 논문이 특수 대학원의 석사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다룬 분야는 향후 이루어질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과 영역이다.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의학' 및 '한의학'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의학 전문용어 사전>과 궤를 같이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금의 연구가 중등 교육 과정의 전문용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 교육 과정의 전문용어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자료

이 장은 남북 전문용어 연구를 위한 자료들의 성격을 거칠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어 분석한다. 1차 자료는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를 지칭하고, 2차 자료는 남한에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2차 자료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의 전문용어를 연구하기 위해 생산한 자료로만 한정하여 언급한다. 따라서 2.2에서 언급한 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할 것이다.

3.1 1차 자료: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

위에서 말했듯이, 1차 자료는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이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 전부를 남한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중요한 자료는 남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이 절에서 소개하려는 자료는 크게 3종이다.

첫째는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말대사전>이다. <조선말대사전>은 북한에서 국정 사전의 지위를 지닌다. 또한 2017년 증보되어 편찬되었다. 총 44만여 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말대사전>은 북한 전문용어의 기본적인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전문용어 연구를 위해 편찬된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광명백과사전>이다. '광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전 또한 <조선말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형 사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개념어에 대한 뜻풀이가 상세하다. 또한 분야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개론서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광명백과사전>의 수준은 현재 남한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2학년 정도의 개론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광명백과사전>은 해당 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뜻풀이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는 해당 분야 전문용어의 전수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를 비교하는 것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광명백과사전>은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권의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권1(조선의 력사), 권2(세계의 력사), 권3(정치, 법), 권4(철학), 권5(경제), 권6(문학예술), 권7(교육, 어학, 출판보도), 권8(조선의 지리), 권9(세계의 지리), 권10(수학), 권11(물리학), 권12(화학), 권13(생명과학), 권14(천문, 지구환경), 권15(정보, 조종, 나노기술), 권16(채굴, 금속, 기계, 전기, 전자공업), 권17(화학공업, 경공업, 건설, 운수, 체신), 권18(농업, 산림업, 수산업), 권19(인체, 보건), 권20(체육)

이러한 <광명백과사전>은 북한 전문용어를 연구하는 데에 아주 소중한 자료이나, 기존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15] 대부분의 연구가 <조선말대사전>이나 <광명백과사전> 이전에 편찬된 백과사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 중에는 북한 교과서도 현재 열람이 가능하다.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자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열람이 가능한 북한 교과서는 거칠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 관한 참고 자료이다. 전자는 북한의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자료이고, 후자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15) 신중진 외(2015-2019), 그리고 박상준(2007) 등에서 <광명백과사전>을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연구에서는 <광명백과사전>을 참고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광명백과사전>은 2010년도에 출간된 것으로 비교적 최신 자료인데, 이러한 점에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두 종류의 교과서 모두 북한의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연구자가 직접 전문용어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교육 과정 및 기타 여러 부분에서 남한과의 괴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의 노고가 요구된다. 더불어 대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교과서도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보다 심화된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한에서 열람이 가능한 북한 자료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잘 활용하면 보다 깊이 있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성과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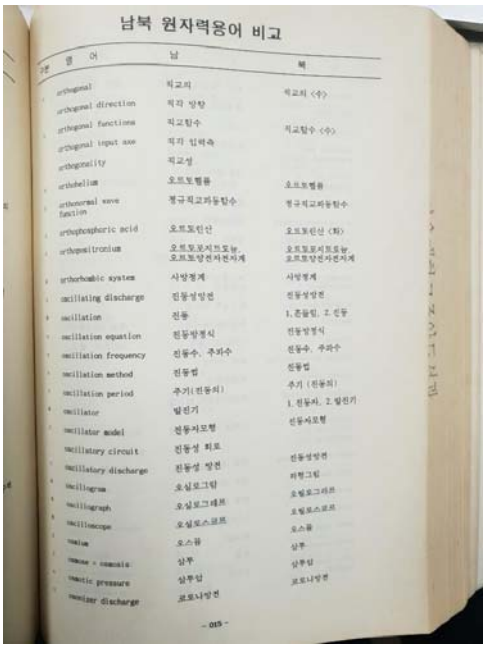
3.2 2차 자료: 남한에서 가공한 자료

이 절에서는 남한에서 생산된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를 조망하는 자리를 갖는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는 상당하며, 분야도 다채롭다. 하지만 신뢰도와 깊이가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현황을 되짚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려고 한다.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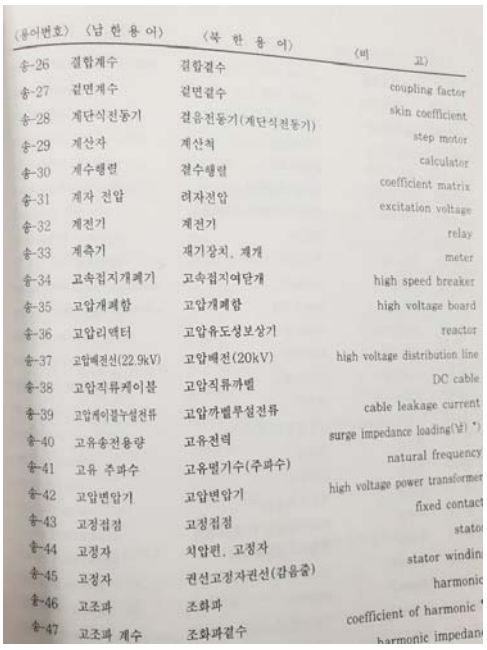
3.2.1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원어)' 구성

이 구성은 대부분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성이다.[16] 원어의 경우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표로 예시 몇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 <남북과학기술용어집>이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 또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1, 2>는 이러한 구성에서 원어가 일부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2장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학위 논문은 이러한 방식 혹은 원어가 빠진 구성으로 짜여졌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원어' 구성은 가장 일반적인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원자력용어 비교

영 어	남	북
orthogonal	직교의	직교의 〈수〉
orthogonal direction	직각 방향	
orthogonal functions	직교함수	직교함수 〈수〉
orthogonal input axe	직각 입력축	
orthogonality	직교성	
orthohelium	오르토헬륨	오르토헬륨
orthonormal wave function	정규직교파동함수	정규직교파동함수
orthophosphoric acid	오르토린산	오르토린산 〈H〉
orthopositronium	오르토포지트로늄 오르토양전자전지계	오르토포지트로늄 오르토양전자전지계
orthorhombic system	사방정계	사방정계
oscillating discharge	진동성방전	진동성방전
oscillation	진동	1. 흔들림, 2. 진동
oscillation equation	진동방정식	진동방정식
oscillation frequency	진동수, 주파수	진동수, 주파수
oscillation method	진동법	진동법
oscillation period	주기(진동의)	주기 (진동의)
oscillator	발진기	1. 진동자, 2. 발진기
oscillator model	진동자모형	진동자모형
oscillatory circuit	진동성 회로	
oscillatory discharge	진동성 방전	진동성방전
oscillogram	오실로그램	파형그림
oscillograph	오실로그래프	오실로그라프
oscilloscope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osmium	오스뮴	오스뮴
ounce = osmole	삼투	삼투
osmotic pressure	삼투압	삼투압
ozonizer discharge	코로나방전	코로나방전



〈용어번호〉	〈남 한 용 어〉	〈북 한 용 어〉	〈비 고〉
송-26	결합계수	결합결수	coupling factor
송-27	겉면계수	겉면결수	skin coefficient
송-28	계단식전동기	걸음전동기(계단식전동기)	step motor
송-29	계산자	계산척	calculator
송-30	계수행렬	결수행렬	coefficient matrix
송-31	계자 전압	려자전압	excitation voltage
송-32	계전기	계전기	relay
송-33	계측기	재기장치, 재개	meter
송-34	고속접지개폐기	고속접지여닫개	high speed breaker
송-35	고압개폐함	고압개폐함	high voltage board
송-36	고압리액터	고압유도성보상기	reactor
송-37	고압배전선(22.9kV)	고압배전(20kV)	high voltage distribution line
송-38	고압직류케이블	고압직류까벨	DC cable
송-39	고압케이블누설전류	고압까벨루설전류	cable leakage current
송-40	고유송전용량	고유전력	surge impedance loading(낱) *)
송-41	고유 주파수	고유떨기수(주파수)	natural frequency
송-42	고압변압기	고압변압기	high voltage power transformer
송-43	고정접점	고정접점	fixed contact
송-44	고정자	치압편, 고정자	stato
송-45	고정자	권선고정자권선(감응줄)	stator windin
송-46	고조파	조화파	harmonic
송-47	고조파 계수	조화파결수	coefficient of harmonic
			harmonic impedan

전력 분야 남북한 용어 비교 연구 조사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구성의 자료는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를 원어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즉, 원어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전문용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어를 제시하지 않는 연구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한 한계를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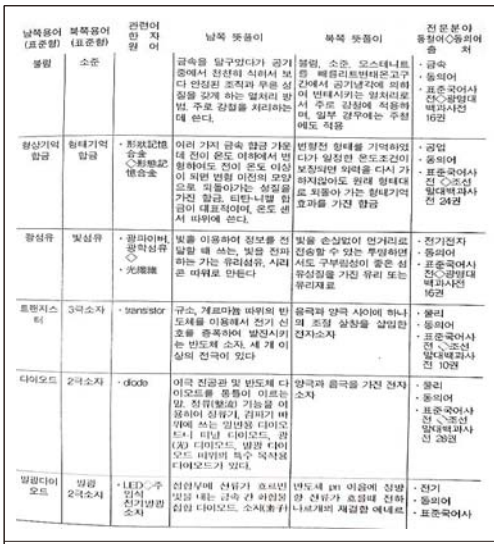
이러한 구성은 남북 전문용어를 형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남북 전문용어의 의미 차이를 포착하기는 어렵다.[17] 더불어 이러한 구성은 해당 전문용어가 가지는 용어 체계, 개념 체계, 그리고 맥락적인 의미까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곧 남한의 전문용어와 북한의 전문용어의 엄격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성은 향후 남북 전문용어 비교, 통합 연구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의미와 맥락까지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2.2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정의)' 구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태 중심의 비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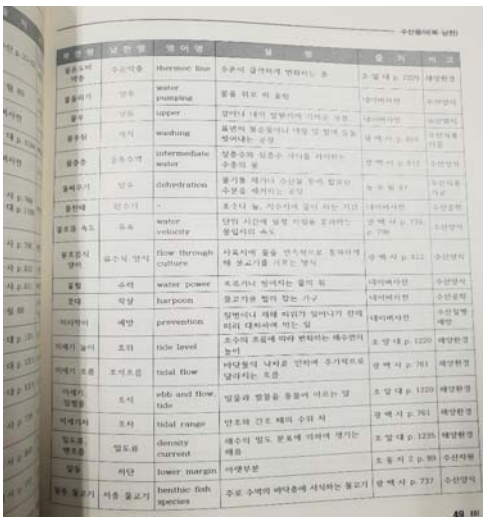
17) 원어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비교한 시도로 파악된다. 다만 원어가 동일하다는 점이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더불어 영어 원어만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 북한의 전문용어를 의미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18] 다만 의미를 중심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남한 전문용어와 북한의 전문용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형 사전의 뜻풀이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국가 주도형 사전의 뜻풀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미를 규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남북용어 (표준형)	북북용어 (표준형)	관련어 한 자 원 어	남북 뜻풀이	북북 뜻풀이	전 문 분 야 동 음 이 의 어 ◇ 용 처
볼림	소준		금속을 달구었다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히어 보다 연성과 조직과 무른 성질을 갖게 하는 열처리 방법. 주로 강철을 처리하는 데 쓴다.	불림, 소준, 오스테나트 를 페를리트변태온고구 간에서 공기냉각에 의하 어 변태시키는 열처리로 서 주로 강철에 적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주철 에도도 적용	· 금속 · 동의어 · 표준국어사 전◇광업대 백과사전 16권
형상기억 합금	형태기억 합금	· 形狀記憶合金 ◇形態記憶合金	어러 가지 금속 합금 가운데 전이 온도 이하에서 변형하여도 전이 온도 이상이 되면 변형 이전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합금. 티탄-니켈 합금이 대표적이며, 온도 센서 따위에 쓴다.	변형전 형태를 기억하였다가 일정한 온도조건이 보장되면 원래 형태를 다시 가지려는 경향이 있는 합금으로 회돌아 가는 형태기억 효과를 가진 합금	· 공업 · 동의어 · 표준국어사전 ◇조선말대백과사전 24권
광섬유	빛섬유	· 광의이버, 광학섬유 ◇ · 光纖維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빛을 전파하는 가는 유리섬유. 사러콘 따위로 만든다	빛을 손실없이 먼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구부림성이 좋은 섬유성질을 가진 유리 또는 유리재료	· 전기전자 · 동의어 · 표준국어사전◇광업대백과사전 16권
트랜지스터	3극소자	· transistor	규소, 게르마늄 따위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증폭하여 발전시키는 반도체 소자. 세 개 이상의 전극이 있다	음극과 양극 사이에 하나의 조절 살창을 삽입한 전자소자	· 물리 · 동의어 · 표준국어사전 ◇조선말대백과사전 10권
다이오드	2극소자	· diode	어극 진공관 및 반도체 다이오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류(整流) 기능을 이용하여 상류기, 검파기 따위에 쓰는 일반용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광(光)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따위의 특수 목적용 다이오드가 있다.	양극과 음극을 가진 전자 소자	· 물리 · 동의어 · 표준국어사전 ◇조선말대백과사전 2권
발광다이오드	발광 2극소자	· LED◇주입식 전기발광 소자	전압부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금속 간 화합물 접합 다이오드. 소재로 카	반도체 pn 이음에 정방향 전류가 흐를때 전하 나르개의 재결합 에너로	· 전기 · 동의어 · 표준국어사

남북 학술 전문용어 비교 사전: 예비 작업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

이와 같이 최근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에서는 해당 용어의 뜻풀이까지 함께 제시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남북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원어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이용자가 해당 용어의 뜻풀이를 통해 두 용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위의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뜻풀이의 정확성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국가 주도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전문용어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 주도 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8) 이를 전문용어학에서는 '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조화'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를 접근한 논의로는 신중진 외(2017, 2018)과 엄태경 신중진(2019)를 들 수 있다. 특히 엄태경 신중진(2019: 537)에서는 전문용어의 조화에 대한 개념이 [ISO 860]에서 소개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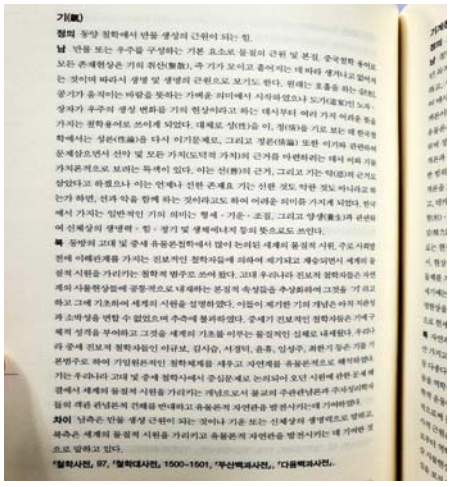
둘째는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이다. 전문용어의 의미 차이는 전문가 계층이 직접 사용 맥락을 확인해 봐야 온전히 드러난다. 해당 학계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개념과 맥락이 정밀하게 짜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19] 따라서 특정 사전의 뜻풀이를 제시하는 정도로 남한 전문용어와 북한 전문용어의 차이를 언중들이 확인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수산 전문용어 비교집>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정의가 소략하여 미세한 의미 차이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20] 이러한 경우 또한 남북 전문용어의 깊이 있는 비교와 통합 작업은 불가능하다. 용어 간의 관계, 체계, 위계 등을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 또한 결국 형태 중심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로 귀결될 것이다.

이처럼 뜻풀이를 제공하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 또한 형태 차원의 통합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모색하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3.2.3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 차이' 구성

다음은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구성 - 차이' 구성이다.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으로 파악된다. 남한 전문용어와 북한 전문용어의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려고 노력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table>
<tr>
<td>  </td>
<td>소유권(所有權), [독] Eigentum
정의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남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수익), 매각하든, 또는 파괴(처분)하든간에 전히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은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 일정한 재산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은 경제적 범주인 소유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유권은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그 형태는 국가소유형태, 사회협동단체소유형태, 개인소유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소유를 소비적 목적만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소유에는 제한이 없다.
차이 남은 소유권을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개인소유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북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국가소유를 기반으로 극히 일부분에만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법률도해용어사전』, 『법학사전』 388~389, 『민사법사전』 399.</td>
</tr>
<tr>
<td>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인문</td>
<td>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 사회</td>
</tr>
</table>

19) 주지하듯이, 학문의 시작은 용어를 얼마나 정밀하게 정의하느냐에서 시작한다. 용어의 정의는 단순히 해당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용어와 다른 용어의 체계와 위계를 함께 고려해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 이는 용어 정의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방법일 수도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 사전'의 미시 구조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표제어', '뜻풀이',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표제어의 부분은 기존의 사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뜻풀이'와 '차이'는 기존의 사전과 구분되는 시도이다.

먼저 뜻풀이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와 남한의 뜻풀이, 북한의 뜻풀이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인 정의는 간략하게 제시하는 한편, 남한의 뜻풀이와 북한의 뜻풀이는 상세하게 제시한다. 이때 제시하는 뜻풀이는 단순히 사전을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기존의 여러 사전을 잘 정리하여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풀이를 바탕으로 '차이' 부분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차이' 부분에 남한의 전문용어와 북한의 전문용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의 구성은 남한 전문용어와 북한 전문용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전의 구성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 형태 중심에서 의미를 고려한 방향까지 나아가려면, 이러한 사전의 미시 구조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편찬될 남북 전문용어 사전의 미시 구조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일 것이다. 아울러 정의 및 의미 제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지난한 일일 것이다.

그래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질적 도모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통일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쉽게 이루어질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용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여기에 국립국어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5년 동안 진행한 과제인 남북 전문용어 통합 사업(신중진 외 2015-2019)를 들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발전 방향으로는 다른 교과 분야 전문용어의 통합을 우선 제시하고, 궁극적인 방향으로는 남

북 전문용어 사전의 편찬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신중진 외(2015-2019) 외에 다른 남북 전문용어 연구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 연구의 성과를 단행본과 학위 논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행본은 총 35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위 논문은 총 18편을 언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연구된 분야를 정리하였다. 총 35권의 단행본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다룬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의 연구가 다소 미진하였다. 이와 달리 총 18편의 학위 논문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탐색하는 것에 그쳐있었다.

셋째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를 위한 자료를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차 자료는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로 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조선말대사전>, <광명백과사전>, 북한 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2차 자료로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자료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교 자료의 구성에 따라 다시 셋으로 나누었다.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원어' 구성,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구성,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 차이'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남한 전문용어 - 북한 전문용어 - 뜻풀이 - 차이' 구성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남북 전문용어 연구는 상당히 많은 업적이 쌓였다. 또한 비교 자료의 형태도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용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추적해 나가는 자세, 그리고 시간과 끈기만 있다면 상당히 수준 높고 밀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전문용어의 비교 및 통합 연구가 보다 더 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07),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집』,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편(2018),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집』, 국립국어원.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글』 274, 한글학회, 231-266.

김한샘(2015),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제42회 한말연구학회 발표요지』, 한말연구학회, 224-232.

김한샘(2016),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5-218.

신중진 · 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_____(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_____(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_____(2018),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_____(2019 예정), 『남북 음악·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양명희(2003),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26, 한국사전학회, 7-39.

_____(2019),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엄태경 · 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82, 국어학회, 181-212.

이성우 · 신중진(2016),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문화연구』 66,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이현주(2007),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전문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_____(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40-67.

_____(2017), 「전문용어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5-98.

정연진(2013), 「용어학을 위한 ISO 전문용어 표준」, 『통번역학연구』 17-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39-155.

한용운(2015ㄱ),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99-210.

한용운(2015ㄴ),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권 2호, 국립국어원, 25-44.

ISO 704(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 860(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주제" 3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원리와 방향

엄태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회의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원리와 방향

엄태경(경희대학교)

2019. 12. 13.

차 례

1. 머리말
2. 남북 전문용어의 추출 및 목록화
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및 원리
4.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5.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

- 본 발표는 중등 교과 과정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남북의 전문용어를 추출하여 그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 또한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언어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하여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제 표준의 전문용어 형성 원칙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의 기준들을 확인한다.

1.2. 연구 사업 소개

- 본 발표는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한다.
-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사업을 시작하였다.
- 남북 수학 및 자연 과학 분야 기초 전문용어 분석 및 용어 통합안 마련이 주요 과제였으며, 남북의 초중등 교과서 및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후 매년 교과 분야를 달리하여 전문용어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1.2. 연구 사업 소개

연도	사업명	용어 수
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수학: 352개 과학: 1,135개
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심화) - 체육 분야(기초)	수학: 568개 과학: 619개 체육: 1,173개
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어: 2,200개
2018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역사: 2,049개
2019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음악: 1,124개 미술: 476개

1.3. 연구 사업의 목표

1 남북 전문용어의 추출 :

- 남측과 북측의 교과서 및 참고 자료 수집
- 절차에 따른 전문용어의 추출
- 남북 전문용어 대응 쌍 목록화

2 통합의 기준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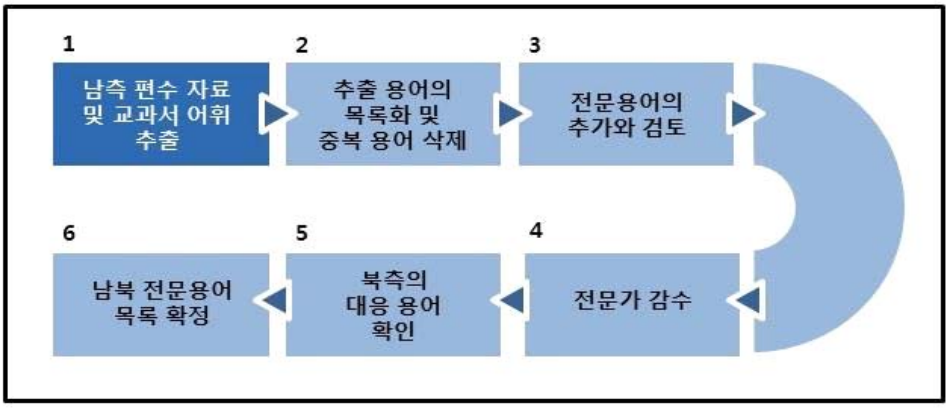
-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AB형을 중심으로 통합 기준 설정
- 투명성, 고유성, 경제성 등의 기준 정립

3 언어학적 분석 실시 :

- 어종 분석
- 조어 분석
-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분석

2. 남북 전문용어의 추출 및 목록화

2.1. 전문용어 추출의 절차



2.1. 전문용어 추출의 절차

- 북측의 자료 종류

교과서

사전 자료

참고 자료

2.2. 남북 전문용어 목록 구축

- 남북 전문용어의 뜻풀이 확인
  -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지 확인이 필요함
  - 남측의 전문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하고, 북측의 전문용어는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함
  -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남측 전문용어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두산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활용하여 뜻풀이 입력, 확인
  - 북측 전문용어의 경우, 해당 용어가 사용된 문장이나 맥락을 뜻풀이에 입력

2.2. 남북 전문용어 목록 구축

- 남북 전문용어의 뜻풀이 확인

(1) 《표대》 **규방가사**(閨房歌辭): "조선 시대에, 부녀자가 짓거나 읊은 가사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영남 지방에서 널리 유행하였으며, 주로 *시집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예절 따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계녀가〉, 〈춘유가〉 따위가 있다.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다."

(2) 《조대》 **부녀가사**(婦女歌辭): "봉건시기 부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고 *이중삼중의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가는 녀인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가사. 17세기이후시기에 주로 량반부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2.2. 남북 전문용어 목록 구축

- 남북 전문용어의 뜻풀이 확인

(1) 《표대》 **막뿌리**: "제뿌리가 아닌 줄기 위나 잎 따위에서 생기는 뿌리. 연, 옥수수 따위의 뿌리가 있다."

(2) 《고대》 **부정근**(不定根): "뿌리 이외의 부분, 즉 줄기나 잎 따위에 나는 뿌리. 연, 옥수수 따위의 뿌리가 이에 속한다."

(3) 《조대》 **막난뿌리**: "줄기나 잎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뿌리."

2.2. 남북 전문용어 목록 구축

- 남북 전문용어의 목록화

✓ 남측의 용어와 북측의 용어 외에 뜻풀이, 동의어, 대응 유형, 각 용어의 출처, 기타 특기 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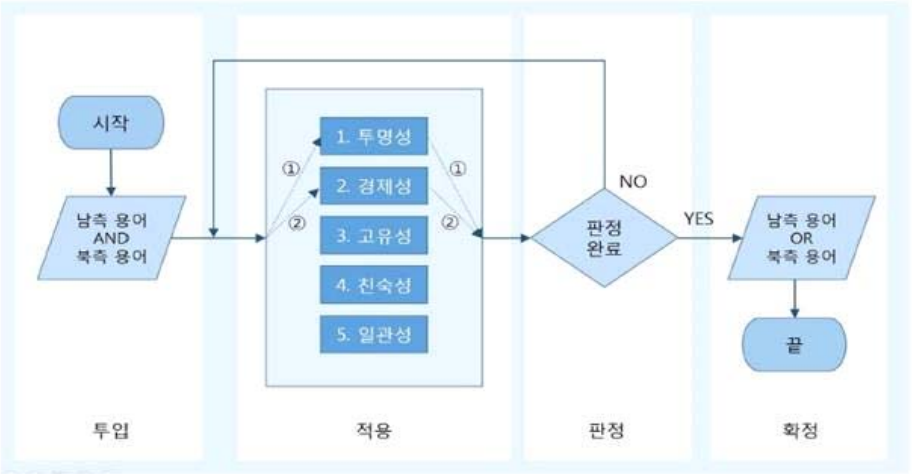
3.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및 원리

3.1. ISO 704의 용어 형성 원칙

투명성(transparency)	용어의 형태가 의미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경우
일관성(consistency)	전문용어는 그 분야의 개념 체계에 상응하는 일관된 용어 체계에 부합
적합성(appropriateness)	제안된 용어는 그 언어 공동체 내에서 잘 알려진 의미 양상을 따라야 함
언어 경제성 (linguistic economy)	용어는 간략해야 함
파생력과 합성력 (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	생산적인 용어 형성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언어적 정확성 (linguistic correctness)	전문용어는 해당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구조를 따라야 함
모국어 선호 (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직접적인 차용보다 해당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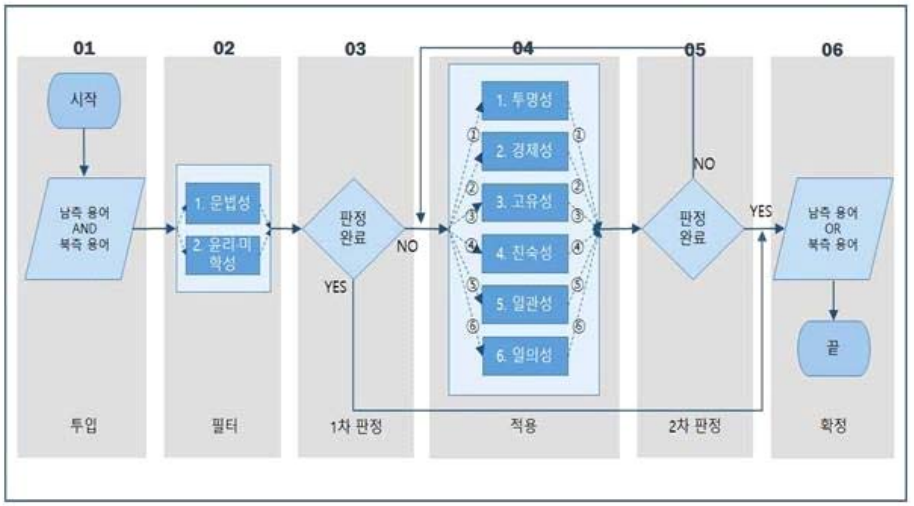
3.2. 본 연구에서의 통합 기준 변천

- 2015년 통합 기준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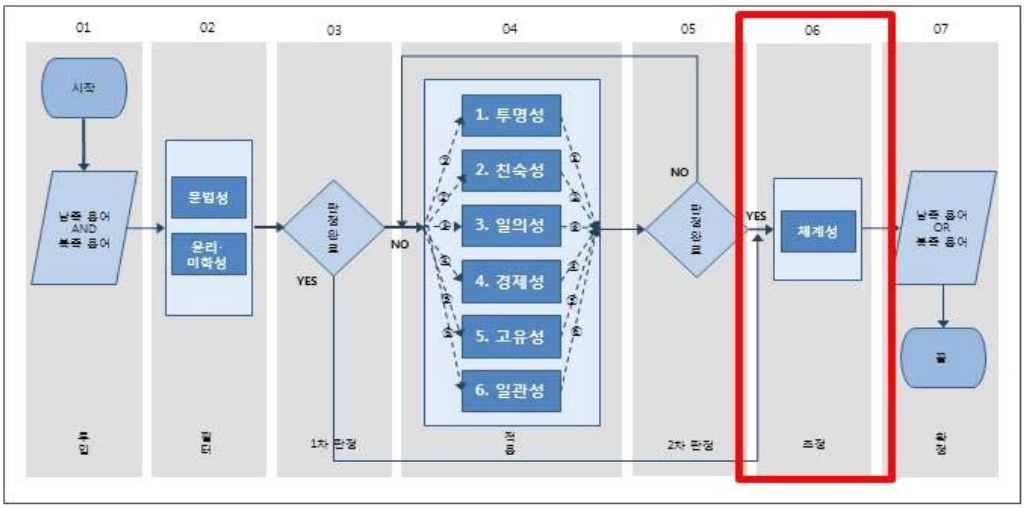
3.2. 본 연구에서의 통합 기준 변천

- 2016-2017년 통합 기준 알고리즘



3.2. 본 연구에서의 통합 기준 변천

- 2018-2019년 통합 기준 알고리즘



3.2. 본 연구에서의 통합 기준 변천

▪ 통합 판정표

기준 \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모루떼기	때려깨기
필터 기준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0	
	윤리・미학성	비속성 없음, 미학성 동일	0	
위계 기준	투명성	'모루떼기'보다 '때려깨기'가 그 뜻(재료를 때려서 깨는 일)을 유추해 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 우세	<	
	친숙성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북측어가(때리다・깨다) 남측어(떼다)보다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	<	
	일의성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0	
	경제성	두 용어 모두 4음절로 동일	0	
	고유성	'고유어'로 동일	0	
	일관성	'모루떼기'(남측 예: 간접떼기)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	
조정 기준	체계성		>	
	최종 판정		모루떼기(남)	

3.2. 본 연구에서의 통합 기준 변천

▪ 2019년 통합 기준 알고리즘

문법 분야(2017년 결과)

- 청유형 종결어미(남)/추김의 맺음토(북): 친숙성에 의해
- 명령형 종결어미(남)/시킴의 맺음토(북): 경제성에 의해

역사 분야

- 강서고분(남) - 강서세무덤(북)
- 고구려고분(남) - 고구려옛무덤(북)
- 고구려고분군(남) - 고구려무덤떼(북)
- 각저총(남) - 씨름무덤(북), 금관총(남) - 금관무덤(북), 금령총(남) - 금방울무덤(북), 무용총(남) - 춤무덤(북) 등

4.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 유형 분류

유형		전문용어의 예(남-북)
AA	AA	• 거문고-거문고, 담묵-담묵, 가락바퀴-가락바퀴 등
	Aa	• 농구-롱구, 뱃노래-배노래, 양감-량감, 고딕-고시크 등
AB		• 단조-소조, 가드-방어수, 각저총-씨름무덤, 색상환-색고리 등

• 두음법칙,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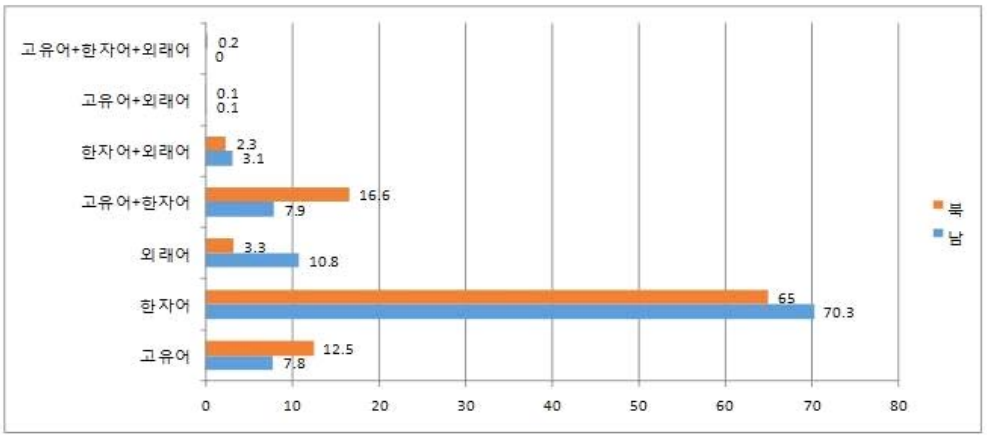
4.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 유형 분류

연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19년
분야 / 유형	수학	자연과학	수학	자연과학	체육	국어	역사	미술	음악	합계
AA	163	750	219	333	209	1,279	1502	312	802	5,569
Aa1	43	136	84	71	29	120	184	33	122	822
AB	146	249	265	215	935	801	363	131	200	3,305
합계	352	1,135	568	619	1,173	2,200	2049	476	1,124	9,696

4.1. 어종 분석

▪ 남북 전문용어의 어종 차이



① 한자어가 사용된 전문용어가 대다수이다.
② 북측 전문용어는 남측 전문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유어의 비율이 높다.

4.2. 조어 분석

▪ 남북 전문용어 조어 단위의 품사별 양상

순위	수학_남	수학_북	역사_남	역사_북	문법_남	문법_북
1	보통명사 (217)	보통명사 (225)	보통명사 (498)	보통명사 (583)	보통명사 (941)	보통명사 (930)
2	접두사(14)	**용언의 관형형(23)**	**고유명사 (224)**	**고유명사 (186)**	**접미사 (198)**	**접미사 (157)**
3	접미사(10)	**용언의 명사형(17)**	접미사(42)	접미사(38)	어근적 형태소(62)	용언의 명사형 (126)
4	어근적 형태소(8)	접미사(15)	어근적 형 태소(2)	관형사(24)	접두사(39)	용언의 관형형(61)
5	숫자, 기호 (2)	부사(12)	관형사(20)	접두사(15)	용언의 명사형(17)	조사(38)
6	용언의 관형형(1)	조사(3)	조사(19)	조사(15)	용언의 관형형(16)	접두사(33)

4.2. 조어 분석

▪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적 차이

순위	수학_남 (빈도)	수학_북 (빈도)	역사_남 (빈도)	역사_북 (빈도)	문법_남 (빈도)	문법_북 (빈도)
1	nc (57)	nc^nc (50)	nc^nc (55)	nc^nc (73)	nc^nc (183)	nc^nc (161)
2	nc^nc (53)	nc (28)	npp^nc (55)	npp^nc (47)	nc^xs (101)	nc^xs (57)
3	mm^nc (4)	va^nc (12)	npp (31)	npp (36)	nc (84)	nc (46)
4	xp^nc^xs (4)	nc^xs (7)	nc (27)	nc^nc^nc (34)	nc^nc^xs (30)	vn^nc (30)
5	xp^nc (4)	vn^nc (6)	nc^nc^nc (21)	npp^nc^nc (23)	nc^nc^nc (19)	nc^nc^nc (27)
	16개 유형	29개 유형	73개 유형	73개 유형	62개 유형	78개 유형

• 조어 단위의 품사별 양상이 전문용어의 결합 관계에 그대로 드러남

4.2. 조어 분석

▪ 고빈도 조어 단위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통합_역사 분야의 예

■ 난 - 반란
구십육각간의난-각간대공의반란, 김헌창의난-김헌창의반란, 왕규의난-왕규의반란, 이시애의난-리시애의반란, 이자겸의난-리자겸의반란, 조위총의난-조위총의반란

■ 난 - (농민)폭동, 농민전쟁, 농민투쟁
만적의난-만적의폭동, 망이망소이의난-망이농민폭동, 이시애의난-함경도농민전쟁, 홍경래의난-평안도농민전쟁, 황건적의난-황건농민폭동, 황소의난-황소농민폭동, 김사미와효심의난-경상도농민군의투쟁

■ 전투, 해전 - 싸움
노량해전-로량바다싸움, 안시성전투-안시성싸움, 왕검성전투-왕검성싸움, 천문령전투-천문령싸움

■ 대첩 - 싸움, 대승리
귀주대첩-구주대승리(구주성싸움), 명량대첩-명량대승리(명량바다싸움), 북관대첩-북관대승리, 살수대첩-살수에서의대승리(살수싸움), 진주성대첩-진주대승리, 한산도대첩-한산대승리(한산도앞바다싸움), 행주대첩-행주대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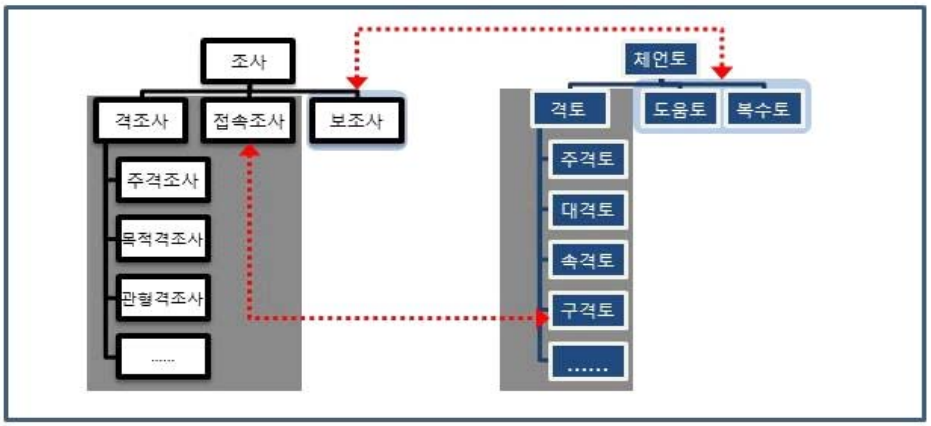
4.3. 분야별 특징

- 각 전문 분야의 특징

수학	다단어적 용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체육	가장 큰 비율로 외래어와 고유어의 대응 관계
문법	다단어적 용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문학	일반 어휘와 전문용어의 경계 모호
역사	고유명사(유적명, 유물명, 인명, 지명)의 활용이 두드러짐
음악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관계, 남측이 오히려 순화된 용어 사용

5.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 개념 조화



개념 체계에서 차이를 보임

5.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 개념 조화

- 개념 조화(concept harmonization):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 문화적 또는 다른 차이를 가지는 둘 이상의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
- 용어 조화(term harmonization): 다른 언어 또는 같은 언어 내에서 조화된 개념의 명칭을 선택하는 활동.

- 《ISO 860》에서 밝힌 전문용어의 조화 개념 -

5.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방향

▪ 실용적 방안 모색

제5장 · 혼인과 상속

2 중혼금지

북한용어 **일부일처제**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가족법에서도 '일부일처제'를 규정하여 중복하여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중복하여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혼인할 경우 중혼에 해당하여 기존의 배우자는 법원에 중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배우자와 먼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북한 가족법에서도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지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북한 가족법 제8조). 이는 우리의 중혼금지와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중혼을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민법에서는 중혼을 무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의 예

• 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민사편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 가족법

제8조(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사이에만 할 수 있다.

"주제" 4

통일인가 표준인가

- 컴퓨터 용어 남북통일안(1996)의 회고와 전망 -

김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통일인가, 표준인가

- 컴퓨터 용어 남북통일안(1996)의 회고와 전망 -

김 병 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컴퓨터 용어는 20세기 말에 도래한 지식정보시대의 산물로서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언어생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용어들이 우리의 언어체계 가운데 번역어로 정착되기도 전에 원어 그대로(외국어), 또 일부는 외래어로 굳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용어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을 공용어로 쓰고 있는 북한 및 중국의 동포사회와의 전문용어 통일을 위한 연구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 연길에서 열린 ICCKL의 정보처리용어의 통일안 합의 내용을 다룬다. ISO 2382에 바탕을 둔 연구 대상 용어의 선정, 용어 통일안의 제정 기준 및 연구 방법의 합의 내용, 통일안 합의의 경과 및 원칙과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사실상 시장의 표준이 엄연한 시대이지만, 전문용어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전문용어의 순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용어의 통일안은 각측의 국가 표준를 제약하지 않는 권고안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아울러 (1) 연구와 교류를 위한 모든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2) 중국의 동포학자를 매개로 해야 함. (3) 용어표준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야 함. (4) 전문용어의 표준안 제정과 함께 학술적인 교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 컴퓨터 용어 통일의 배경

컴퓨터 용어(정보통신용어)는 20세기말에 도래한 지식정보시대의 산물이다. 이 용어들은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언어생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가 서구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그에 관련된 용어들도 물밀듯 들어왔다. 이 용어들이 우리의 언어체계 가운데

번역어로 정착되기도 전에 원어 그대로(외국어), 또 일부는 외래어로 굳어졌다. 용어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보다 정보산업이 앞서 있던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한자 용어가 사용되는 일도 많았다. 컴퓨터 용어 순화작업의 속도는 용어의 도입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더러는 시장의 표준이 형성되기까지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뒤늦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보산업의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용어를 붙여야 할 때, 기존 어휘의 의미를 확장하여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란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점에서 컴퓨터 용어의 통일 또는 표준화 작업, 나아가서는 순화 작업의 필요가 절실했다. 그리고 한국어 언중의 범위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이제 막 교류를 시작하던 중국의 조선족 사회와 통일 한국을 대비한 북한과의 논의도 필요했다. 특히 중국 조선족 사회는 개방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느는 상황에서 기존의 표준(북한을 따르는)과 현실의 상황(남한을 따르는)과의 괴리가 문제로 부각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어정보학회(당시 서정수 회장)는 이 문제를 학회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생각하여 컴퓨터 관련 표준의 통일을 목표로 남북한과 중국의 동포사회와의 협의를 시작하였다. 정보처리 용어의 남북통일안 제정은, 장차 남북통일을 대비하며, 혹은 통일 이전의 남북 간의 학술적인 교류와 정보화 시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남북 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며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물론 어문 관련 규범 자체의 통일 작업도 중요하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용어 통일 작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보처리 분야의 용어 통일이 시급했다. 그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보처리 분야의 용어는 그 당시에 아직 보급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현재의 차이를 극복하여 통일안을 만든다면 서로 다른 용어로 굳어지기 전에 공통의 용어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상 새로운 용어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새로운 용어를 지속적인 남북 합의를 통해 제정해 나갈 경우에, 더 이상의 이질화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처리 분야에서 외국어나 외래어 용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순화작업을 통한 통일안 제정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열린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ICCK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Processing for Korean Language)>에서 연구된 바 있고, 그 결과로 합의에 이른 정보처리용어 남북통일안의 제정 경위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문용어 남북 교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2. 전산용어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

2.1. 남한의 표준화 작업 현황

(1) ISO에 대응한 KS 규격

정보처리 분야의 용어 규격은 1996년 당시 한국공업규격 중 KSC 5602와 5811부터 5830 및 5868 등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기구) 2382(정보처리 분야 용어 규격)에 대응하여 우리말 용어를 제시하고, 그 해설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이는 ISO 규격에 대응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ISO의 규정 개정 기간과 KS 규격 개정 기간(5년 단위)이 맞물려 있지 않아 일부는 제대로 대응되지 않는 상태였다. 아울러 ISO 규격에 추가된 용어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특히 2382/9 Data Communication)도 적지 않고, 당시에 아직 우리 규격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2382/20-1990 System Development, 2382/25-1992 Local Area Network)도 있었다.

[표 1] 1996년 당시의 규격 목록 비교표

ISO 번호	명 칭	KSC 규격(확인)	비 고
2382/1-1984	기본 용어	5602-1992	
2382/2-1976	산술연산 및 논리연산	5811-1992	
2382/3-1987	장치 기술	5812-1990(95)	신판초안
2382/4-1987	데이터 구성	5813-1988(93)	신판초안
2382/5-1989	데이터 표현	5814-1988(93)	
2382/6-1987	데이터의 준비 및 취급	5815-1990(95)	신판초안
2382/7-1989	프로그래밍	5816-1988(93)	
2382/8-1986	규제, 완전성 및 안전보호	5817-1990(95)	
2382/9-1995	데이터통신	5818-1988(93)	
2382/10-1979	운영기법 및 기능	5819-1988(93)	
2382/11-1987	제어장치, 입출력장치 및 연산장치	5820-1990(95)	신판초안
2382/12-1988	데이터매체, 기억장치 및 관련 장치	5821-1993	신판초안
2382/13-1984	도형처리	5822-1988(93)	
2382/14-1978	신뢰도, 유지보수 및 이용도	5823-1988(93)	
2382/15-1985	프로그램언어	5824-1988(93)	
2382/16-1978	정보이론	5825-1988(93)	
2382/18-1987	분산데이터 처리	5827-1993	신판초안
2382/19-1989	아날로그 계산	5828-1990(95)	
2382/20-1990	System Development	없음	
2382/21-1985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5830-1990(95)	
2382/22-1986	계산기	5868-1993	신판초안
2382/25-1992	Local Area Network	없음	

(2) 전산용어의 순화 사업

전산용어의 순화 사업은 문화체육부가 후원하고 국어정보학회가 주관하여 1992년부터 착수되었다. 약 1,700개의 실용 전산용어를 중심으로, 그 통일안을 만들되 적극적으로 고유어 용어를 제안한 것이다. 문화체육부, 조선일보사 및 국어정보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산기용어검토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하고, 또『조선일보』지상을 통하여 일반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국어심의회 전산기 용어 순화 소위원회와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1994년 3월에 <전산기 순화용어집>으로 공표되었다. 이것이 당시 어문규범 및 용어의 최종 심의기관인 국어심의회를 통과한 국내표준 전산용어였다.

이 사업을 주관한 국어정보학회는 1993년에 <전산기 기본 용어 순화 시안>을 마련하였고, 전산용어 순화사업의 종료와 함께 이를 일반에 보급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추가하고, 올림말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순화용어 목록을 만들었다. 여기에 뜻풀이를 덧붙이고, 각종 목록을 보충하여『우리말 전산용어 사전』(정음문화사, 1995)을 펴냈다.[1)]

<전산기 용어 순화집(1994, 문화체육부)>을 제외한 시중의 전산용어 사전에 올라 있는 표제어는 대부분 한자어와 외래어 일색으로서 고유어의 비중은 4%도 안 되었다. 특히 한자어는 거의 모두 일본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들을 수입한 것이었다.[2)] 컴퓨터 용어의 순화작업을 통해서 고유어의 비중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부득이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생경한 일본식 한자어를 피하였다. 한글 표기만으로도 뜻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외래어는 "바이트, 비트"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나, 고유명사, 그리고 아주 굳어진 말 외에는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3) 정보통신용어 통일 작업

비록 문화체육부의 전산기 순화용어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화한 것이 아니라, 용어 순화차원에서 새로운 고유어 용어들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표준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힘들었다. 이미 KS 규격집 등에서도 전산용어를 표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에게 보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어, 외래어 용어가 난무하는 등 사실상 표준 규격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규

1) 순화용어의 보급을 위해서 국어정보학회의『우리말 전산용어사전』의 대표 집필자인 필자가『전자신문』에 1994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매주 1회씩 원고지 5장 분량으로 순화용어를 소개하고 명확한 의미와 간략한 용례 등을 중심으로 기고하였다. 아울러 PC 통신 <천리안>의 국어정보학회 방에서 이를 소개하기도 했다.

2) 이 사정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어로 되어 있고 더구나 번역어 없이 원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다수였다.

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용어의 표준과 관련된 국내의 여러 규정들이 서로 다른 점도 지적되어, 이것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까지 되었다.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산 용어가 서로 다르고, 교육부의 편수자료나 KS 규격집 등에서 규정한 용어들이 다르고, 그나마 국어심의회를 거친 유일한 표준인 순화용어가 보편화되지 못함으로써 범국가적인 용어 순화 및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산 용어 표준과 관련된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국립기술품질원(구 공업진흥청)의 지원 아래, 한국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1995년 7월 '정보통신용어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화 작업을 한 바 있다.

2.2. 북한의 용어 표준화 현황

북한에서 정보통신 분야 혹은 전산 분야의 국가규격으로 지정된 용어표준은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우리가 '94 ICCKL 이전에 입수할 수 있었던 이 분야의 자료는 1986년도에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나온『전자계산기 프로그람 용어사전』뿐이었다. 국판 124면으로 된 이 사전은 영어 올림말 순서로 편집되어 있으며 '전자계산기의 장치부분에 대한 용어를 제외하고, 프로그람 작성자들을 위하여, 프로그람 기술용어들을 기본으로'(일러두기) 올린 것이다. 그 '일러두기'에서 밝힌 것처럼 이 사전은 본격적인 사전으로서보다는 프로그램 작성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간략한 기본용어집 정도였다. 이 사전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전산과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에서도 전산용어의 국가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4년도 제1회 ICCKL은 그들에게도 표준 국가 규격 제청의 기회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전산용어의 통일작업이 상호 연구과제로 등장한 이래 북한에서 이 방면의 국가 규격화를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어정보학회는 1994년 말에 공동 연구의 자료 및 지침으로『우리말 전산용어 사전』과 필자가 기초한 <용어 표준화 평가 지표>를 북한에 전달하였고, 북에서는 이 사전을 새로운 표준화 작업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3)]

북한에서는 조선컴퓨터센터의 허주 박사를 중심으로, 국제규격인 ISO 2382에 기초한 용어 표준규격화 작업에 임하였다. '95 ICCKL에 참가하기 전, 이미 ISO 2382의 용어를 우리말로 옮긴 시안(정보처리용어 표준화 시안)을 만들었으며, 허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의 전문가들과의 회합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바 있다고 하였다. 이 시안이 고유어를

3) '95 ICCKL(중국 연길, 1995. 9.14-16)에서는 북한의 허주 박사(조선컴퓨터센터)가 우리의 순화용어와 북한의 용어 시안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살리는 것을 취지로 하고, 외래어에 대응한 새로운 용어를 제안한 것들이어서 북한의 학자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하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였다.[4)]

2.3. 남북 전산용어 순화어의 비교

순화용어 표준안을 마련할 때의 자료로서 북한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람 용어사전』을 참고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 사전이 북한에서 규범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5)], 적지 않은 용어가 같은 표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용어 통일의 필요를 제기하는 것임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6)] 이 작업을 통해서 남북한의 전산용어 사용실태가 일부 드러났는데, 남북 전산용어의 성격 및 구성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7)]

[표 2] 남북 전산용어 성격 및 구성 비율

<table>
<tr><th></th><th colspan="2">남한(순화 전)</th><th colspan="2">남한(순화 후)</th><th colspan="2">북한</th></tr>
<tr><td>외래 용어</td><td>419개
(26.4%)</td><td>419개
26.4%</td><td>37개
(2.3%)</td><td>37개
2.3%</td><td>25개
(4.8%)</td><td>25개
4.8%</td></tr>
<tr><td>한자 용어</td><td>787개
(49.6%)</td><td rowspan="2">1,074개
67.6%</td><td>717개
(43.7%)</td><td rowspan="2">749개
45.7%</td><td>392개
(75.8%)</td><td rowspan="2">429개
83.0%</td></tr>
<tr><td>한자+외래 용어</td><td>287개
(18.0%)</td><td>32개
(2.0%)</td><td>37개
(7.2%)</td></tr>
<tr><td>고유어 용어</td><td>52개
(3.3%)</td><td rowspan="3">95개
6.0%</td><td>456개
(27.8%)</td><td rowspan="3">853개
52.0%</td><td>22개
(4.3%)</td><td rowspan="3">63개
12.2%</td></tr>
<tr><td>고유어+외래 용어</td><td>8개
(0.5%)</td><td>23개
(1.4%)</td><td>0개(0%)</td></tr>
<tr><td>고유어+한자 용어</td><td>35개
(2.2%)</td><td>374개
(22.8%)</td><td>41개
(7.9%)</td></tr>
<tr><td>합계</td><td colspan="2">1,588개</td><td colspan="2">1,639개</td><td colspan="2">517개</td></tr>
</table>

4) 이 사전의 집필자는 허주, 김연옥 두 사람으로, 심사는 이수락, 김명규, 최운철 등 세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B5판, 416페이지의 미발행 원고본인데, 전산 원고를 점행렬인쇄기(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었다. 심사를 맡은 이수락 씨와 김명규 씨는 '94 ICCKL에 참석한 인사들로서 모두 조선컴퓨터센터에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아서, 조선컴퓨터센터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5 ICCKL에 허주 박사는 이 용어시안의 초고 1부를 지참하기는 했으나, 이를 단지 전시하기만 하였다. '96 ICCKL에서는 '95 제2회 대회 때 제시한 자료를 정비하여 다시 제안하였는데, 필자가 보기로는 1995년도에 마련했던 시안보다는 고유어 쪽에서 약간 물러선 감이 있다.

5) 1996년 제3회 ICCKL에서 필자와 함께 전산용어 통일안 제정 작업에 임했던 허주 박사(조선콤퓨터센터)에 따르면, 이 사전이 북한에서는 가지는 표준으로서의 역할 및 영향력은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하였다.

6) 국어정보학회의 『우리말 전산용어사전』 영문-한글 대조 목록에서 북한의 용어를 아울러 제시하였다. 이것이 남북한의 용어 통일 작업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된다.

7) 남북한의 컴퓨터 용어 자체도 많이 달랐다. 양쪽의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124개의 공통된 용어 중에서 37%인 33개에 불과하였다.

[그림 1] 95 ICCKL 개막식(중국 연길)

3. ICCKL과 용어의 통일 연구

3.1. 전산용어 통일안 제정 기준 설정

1994년 ICCKL 이후 남한에서는 전산용어 통일안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전산용어를 비롯해서 전산부호계, 자판 및 자모순의 통일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타협이나 통일을 위한 열의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이 분야의 현실적인 표준이 다르고, 변화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만이 통일에 이르는 길이며,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의 절차상 먼저 용어에 대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별 어휘에 대한 통일안을 합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각측의 표준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용어분야에서는 필자가 1995년 4월에 그 평가기준을 제안했고, 1995년 6월의 정보문화의 달 기념 학술회의(국어정보학회 주최)에서 일차 검토한 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 기준은 다음에서 보듯이 ① 표준화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② 순화대상 용어의 확정, ③ 용어의 분석, ④ 용어의 비교와 정의, ⑤ 문헌자료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8)]

8) 여기 제시한 것은 우리가 제안한 평가 기준에 '95 ICCKL에서 추가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남북 용어 공동안 제정 기준(평가 기준)

000 일반적인 고려 사항

001. 개념의 정확성 : 원어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002. 사용의 보편성 : 현재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003. 인지의 용이성 : 용어로써 대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가? 혹은 쉽게 연상될 수 있는가?
004. 표현의 경제성 : 용어의 길이가 짧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해야 한다.
005. 범주의 체계성 : 다른 용어와의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념의 범주에 적절해야 한다.
006. 사용의 변별성 : 다른 용어와의 개념 구분이 용이한가? 1용어:1개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007. 표기의 고유성 :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로 순화해야 한다. 부득이 외래어를 쓸 경우에도 고유어 대안이 있어야 한다.
008. 국제적 상관성 : 중국, 일본 등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009. 장차의 확장성 : 새로운 용어의 제정에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010. 어법의 적절성 : 제정되는 용어는 우리의 맞춤법, 어법 및 조어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100 순화대상 용어의 선정

101. 용어의 수집
  1. ISO 2382를 기본으로 한다.
  2.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용어를 포함한다.
102. 범주 및 분야의 결정
  1. ISO 2382의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
  2. 상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정한다.
    (1) 일반용어
    (2) 하드웨어에 관한 용어
    (3) 소프트웨어에 관한 용어
    (4) 전산 통신 용어
   (5) 기타 용어
  3. 위 분야는 다시 하위 구분될 수 있다.
103. 용어의 수집
  1. 각 지역의 용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기타 국가
  2. 국가규격(KSC 등)에 규정된 용어를 조사, 수집한다.
  3. 사전의 올림말로 올라 있는 용어를 조사, 수집한다.
104. 용어의 등급 정하기
  1. 전문 용어와 일반 용어로 나눈다.
  2. 각각 1, 2, 3등급으로 나눈다.

200 용어의 분석

  1. 현재의 용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용어 제정의 밑바탕을 삼는다.
  2. 영어 원어와 한글 용어에 대해서 각각 분석한다.

201. 순방향 어휘 목록 만들기
  1. 동일 접두어 낱말 정리
  2. 동일 어근 낱말 정리
202. 역방향 어휘 목록 만들기
  1. 동일 접미사 낱말 정리
  2. 동일 어미 낱말 정리
203. 관계되는 어휘 목록 만들기
  1. 동의어
  2. 유의어
  3. 반의어
204. 특별한 형태의 어휘 목록 만들기
  1. 약어
  2. 단위명
  3. 상품명 및 고유명사 어휘

300 용어의 비교와 정의

301. 지역적 차이 분석 및 공통 사용 용어 수집
  (남과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만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한다. 중국은 남과 북의 공동 사용안을 따르되 새로운 용어를 제안할 수 있다.)
  1. 남과 북이 함께 쓰고 있는 용어
  2. 남과 북이 달리 쓰고 있는 용어
  3. 남이나 북 한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
  4. 중국 조선족의 용어(중국국가 표준 및 상용어)와의 비교, 대조
302. 의미적 차이의 개략적 분석
  1. 단일 개념과 중의개념
  2. 다른 분야 용어와의 연계성과 차이점 확인
  3. 용어의 사용 실례 제시
303. 정확한 의미의 기술
  (이는 용어의 확정과 정의의 기술에 필요한 사항이다.)
  1. ISO 2382에서 규정한 의미 기술 검토
  2. ISO 2382에서 규정한 의미 번역
  3. 의미적 변화 사항 기술

400 문헌 자료 목록

401. 남한
  1. 우리말 전산 용어 사전(1995, 국어정보학회)
  2. 정보통신 용어사전(1995, 한국통신기술협회)
  3. 등불 6호(1993, 국어정보학회)
  4. 전산기 용어 한글화 및 데이터베이스 표제어 개발에 관한 연구(1994, 국어정보학회)

5. 한국공업표준 규격(KS)의 제 용어 정의
6.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자료집

402. 북한
1. 전자계산기프로그람 용어사전(198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 전자계산기 용어 표준화 사전(미간행, 조선컴퓨터센터)

403. 중국(연변)
1. 중국 국가 표준

404. 일본 및 기타

(1) 남북 용어 대비 연구

'95 ICCKL에서는 남한의 문체부 순화용어와 북한이 새로 제안한 용어를 비교한 자료가 발표되었다. 북에서 발표한 논문『계산기 관련 용어의 표준화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허주, 김용률)에서는 양측의 기존 자료에 공동으로 들어 있는 것이 365개에 이름을 밝혀냈으며, 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성분 분석하고 모두 6가지 부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남과 북에서 완전히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106개

② 북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용어 중 남에서 허용한 용어는 29개(예: 단어-낱말)

③ 합성어의 경우, 일부 표현이 통일될 때 손쉽게 공동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용어는 15개[9] (예: 전산기[남]-계산기[북], 주소[남]-번지[북], 글자[남]-문자[북])

④ 기타 서로 달리 사용하는 용어는 215개

<북한>의 용어와 <남한의 문체부 순화용어>가 다른 것 용례 몇 개

computer	전산기, 셈틀(남한), 계산기, 전자계산기(북한)
keyboard	글쇠판, 자판(남한), 건반(북한)
disk	저장판(남한), 자기원판(북한)
host computer	주전산기(남한), 어미계산기(북한)
cold boot	첫띄우기(남한), 초기프로그람 부담(북한)
hardware	굳은모(남한), 장치기술(북한)
software	무른모(남한), 프로그람기술(북한)
sensor	감지기(남한), 수감요소(북한)
font	글자체(남한), 동일문자무리(북한)
toggle	똑딱(남한), 쌍안정(북한)
utility program	도움모 풀그림(남한), 편의프로그람(북한)

9) 합성어가 많은 전산용어의 특징을 전제한다면, 그 어근이 되는 말을 통일할 때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한 가지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2) 연구 방법에 대한 합의

'95 ICCKL을 통해 남북한 및 중국의 학자들은 용어 순화 및 통일 작업의 원칙 몇 가지를 토론을 거쳐서 합의하였다.[10]

1) 대상 용어의 선정 : 통일안 대상 용어는 ISO 2382를 기본으로 하면서 남과 북, 중국에서 더 보충하려고 하는 상용어도 포함시킨다.
2) 통일 기준 : 현행 용어 가운데서 표기가 같은 것, 복수 용어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같을 경우 통일된 것으로 인정한다.(<표기가 같다>는 기준에서 각 측의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는 허용한다)
3) 통일 원칙 :
   ① 일치안은 용어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ISO 2382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다.
   ② 고유어를 적극 찾아 쓰는 원칙을 지킨다. 같은 뜻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어만 쓴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유어의 어근에 기초한다.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진 한자 용어는 그대로 둔다.
   ③ 영어 어휘를 우리말 발음에 기초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은 단위를 표시하는 용어들과 약어들에만 적용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면서 우리말로 당장 다듬기 힘든 외래어 용어들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되 반드시 우리말 대안이 있어야 한다.
4) 협의 절차 : 1996년 대회에서 통일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기 마련한 방안을 수시로(약 2개월에 1차씩) 교환하고 검토하여 통일된 시안은 내년 6월까지 완성한다. 통일된 용어의 출판은 내년 대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4. 전산용어 통일안의 합의 경과

4.1. '95 ICCKL 이후의 상황 변화 및 문제점

'95 ICCKL에서 우리가 북한 측에 제안했던 문체부 순화용어가, 사실 하나의 권고안에 불과하고 시장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미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국립기술품질원 등을 중심으로,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전산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문체부의 순화 용어는 약 1,700개의 상용어 위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남북의 논의 대상은 ISO 2382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ISO 2382에 대해서는 일부 국내표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고, 또 남한에서도 표준으로의 위상이 자리 잡히지 못한 상황이었다.

10) 토론 내용은 『국어정보학회논문집』 9호(국어정보학회 발행, 1996, pp. 465-476)에 녹취되어 수록되어 있다.

한편 남과 북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매 2개월마다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창구가 없었고, 중간 역할을 했던 중국의 사정도 복잡한 면이 있어서 결국 자료교환은 진척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문체부 순화용어와 평가 기준 등은 북한에 전해졌지만, 북한의 전산용어 현황과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산용어에 대해서 상설 연구 및 교류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용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닫힌 세계가 아니라 개편되고, 추가되고, 삭제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상시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관에서 북한의 연구 및 사용 상황을 분석하고, 최근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남북한 간에 학술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11)]

4.2. 용어 통일안 합의 과정

'96 ICCKL(96.8.11-15,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은 실질적인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온전히 투자되었다. 자모순, 컴퓨터 코드, 컴퓨터 자판, 컴퓨터 용어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남북한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통일한 산출을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용어 분야는 회의장으로 사용되었던 연길호텔 111호실에서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거의 중단 없이 진행하였다.

(1) 용어분야 참가 학자

남한에서는 어문전문가인 필자가 통일안 합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고, 전산전문가들인 박찬모(포항공대), 진용옥(경희대), 황종선(고려대), 이균하(인하대) 교수 등은 주로 해당 분야의 용어 심의에 한 사람씩 참석하였다. 북한에서는 조선컴퓨터센터의 허주[12)] 박사가 기본적으로 참가하고, 같은 조선컴퓨터센터의 김정국 연구사가 때때로 보조하였으며, 최종 합의안 정리 과정에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지도원 고명구 씨가 참석하였으나 합의안 자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박상일, 박창화 연구원, 연변대학의 김진용 교수가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는데 이분들은 본래 언어학 전문가로서 전산분야를

11) 두세 차례의 회의 결과로 볼 때에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직접 접촉에 의한 언어의 통일 작업도 제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1차 회의에서 북한이 사용하던 '조립형' 부호체계라는 용어는 2차 회의 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조합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우리 쪽에서는 '조립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 '계산기'라는 용어 대신 '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12) 허주 씨는 조선컴퓨터센터의 연구사 보임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수, 박사로서 북한에서의 이 분야의 지위가 막강한 분이었다. 제어공학 전공자로서, 용어제정 작업에 북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졌다. (이 분은 통일안 합의 이듬해인 1997년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었다. 현용운 연변과학기술협회 국제부장은 최종 합의안 작성 시에 참가하였다.

(2) 용어 통일안 토론 자료

용어분야는 전년도에 이미 확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ISO 2382 문서에 대한 각 측의 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일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남한에서는 전에 제출한 바 있는『우리말 전산용어 사전』의 용어들과, KS 규격집의 용어들, 그리고 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작업 토의 자료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13] 북한에서는 '95 ICCKL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의 관계기관, 학자들의 토의를 거쳐 새로이 조정한 자료(ISO 2382에 근거한)를 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ISO 2382에 의해서 현재 사용 용어를 수집하고, 남북한의 안을 참고하여 자료를 만들었으나, 소위 '조선어' 전산용어 표준이 없는 관계로 양측의 안을 참고하여 조정한 새로운 자료를 일부 제시하였다.

당초에 '95 ICCKL에서는 ISO 2382 외에 상용어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북한과 중국측이 별도의 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우리가 제출했던『우리말 전산용어 사전』의 상용어만 유일한 자료로 제안된 셈이었고, 시간도 여유가 없어서 결국 상용어의 통일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안 제정의 자료가 된 ISO 2382의 분야별 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14]

1. 기본용어(1984)
2. 산술연산 및 논리연산(1976)
3. 장치기술(Draft 1987-)
4. 데이터 구성(Draft 1987-)
5. 데이터 표현(1989)
6. 데이터의 준비 및 취급(Draft 1987-)
7. 프로그래밍(1989)
8. 규제, 완전성 및 안전보호(1986)
9. 데이터 통신(1984)
10. 운영기법 및 기능(1979)

---

13) 용어 통일 작업에서는 서로의 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남한에서는 회의 참가 1주일 전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안을 받을 수 있었으며, 96 ICCKL에 참석할 때는 겨우 회의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으나, 다행히 이를 전산처리하여 검색, 소트함으로써 통일안 제정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14) ISO 2382-22 'calculator' 항목에 대해 북한에서 '수산기'(정확한 한자 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數算器?, 手算機?)를 제안하였으나, 우리가 제안한 '계산기'를 복수 표기로도 허용하지 않아, 결국 보류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computer를 '계산기'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남	북	중
computer	전산기, 컴퓨터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機)
calculator	계산기	수산기	계산기(-器)

11. 처리장치(Draft 1987-)
12. 데이터매체, 기억장치 및 관련 장치(Draft 1988-)
13. 도형 처리(1984)
14. 신뢰도, 유지보수 및 이용도(1978)
15. 프로그램언어(1985)
16. 정보이론(1978)
17. -- 제외[15)]
18. 분산 데이터 처리(Draft)
19. 아날로그 계산(1989)
20. 체계개발(1990)
21. 프로세스 인터페이스(1985)
22. <계산기(Draft, 1986-)> -- 제외
23. <미확인> -- 제외
24. <미확인> -- 제외
25. 구내망(1992)
26. <개방형 체계 연결(1993)> -- 제외

4.3. 통일안 합의 내용

(1) 합의 원칙 및 방법

이미 '95 ICCKL의 합의문을 통해서 용어 통일 작업의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용어 심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더 우선하기로 하였다.

1)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한 용어는 통일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다른 어느 원칙보다도 우선한다.
2) 남북이 달리 쓰는 용어는 합의안을 위해 토론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복수안으로 처리한다. 일단 양측의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먼저 ISO 2382의 의미를 밝혀서 더 적당한 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각 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① 남과 북의 표현이 아닌 새로운 안으로 합의한다.
   ②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안으로 통일한다.
   ③ 한쪽의 안을 조정하여 통일한다. : ( ) 괄호 등을 사용함.
   ④ 의견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복수안으로 처리한다.
3)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어는 외래어로 표기하되, 이에 대한 대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하지만 일부 용어에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4) 되도록 말다듬기(고유어로 순화)하여 통일안을 만들기로 한다. 다만, 양측이 이미 보편화하

15) 우리나라의 대응 표준은 <한글베이직언어 KSC-5826>인데, 이는 제외한다.

여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우선한다.

5) 한자어 용어에는 되도록 고유어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어느 한 측에서 고유어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복수안으로 제안하는 정도에 그쳤다.

6) 남북의 맞춤법, 정서법 및 서사 규범(외래어표기법 등)이 달라 표기에 차이가 생긴 경우는 그 차이를 무시하기로 즉 서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3] 남북 전산용어의 차이 사례

① 표기의 차이	② 정서법의 차이	③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④ 관습적 어법의 차이
산술(남)-산수(북) 전환(남)-절환(북) 단말(남)-말단(북)	사잇소리의 사용 : 숫자(남)-수자(북), 깃발(남)-기발(북) 두음법칙의 차이 : 오류(남)-오유(북), 연결(남)-련결(북), 배열(남)-배렬(북), 영(남)-령(북), 연속(남)-련속(북), 임계(남)-림계(북)	케이블(남)-까벨(북) 프로그램(남)-프로그람(북) 컴퓨터(남)-콤퓨터(북) 카탈로그(남)-까따로그(북) 페이지(남)-페지(북) 벡터(남)-벡토르(북) 레이블(남)-레블(북) 볼(남)-볼(북) 레이저(남)-레이자(북) 블럭(남)-블로크(북)	닫힌(남)-닫긴(북) 틈(남)-홈(북) 차폐(남)-차페(북) 은폐(남)-은페(북) 건넘(남)-건늠(북)

토의 결과는 각 측이 각자 자료에 표기하여 정리하였고, 허주 박사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서춘자 씨(연변과학기술잡지사 근무)와 함께 완성본을 만들었다. 이를 다시 김병선, 박창화, 허주, 현용운 위원 등이 모여서 재검토하였으며, 재검토 후 용어분과 위원 대표(김병선, 허주, 박창화)가 서명함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전체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였다.[16]

(2) 통일안 분석

'96 ICCKL의 전체회의에서 합의사항으로 선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SO 2382를 기본으로 한 2,100개의 용어를 통일안 대상용어로 선정하였다.

2) 이 중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는 10% 정도의 용어는 복수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90%의 용어는 단일안으로 확정하였다.

3) 합의된 용어는 『정보처리용어표준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97년 5월까지 공동으로 출판하여 보급한다.

16) 다루어야 하는 분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용어분과 위원들은 이틀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그림 2] 용어분과 김병선, 허주, 박창화 대표

이것은 용어 분야에서 합의안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던 중이었지만, 그 사이에 열리는 전체회의의 합의문에 포함시키려고 임시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10%나 90%는 통일 작업 진행 과정에서 추론한 숫자다. 이 합의안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합의 대상은 앞에서 제시한 ISO 2382 목록 중 < >로 표시된 5개를 제외한 21개 분야를 통일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항목수로는 약 1,600여 개이고, 용어수로는 2,109개가 선정되었다. 필자가 그중 전체 용어 중 <1>, <2>, <3> 분야 233개 용어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복수형이 46개로 밝혀져 복수 용어안이 약 20%에 달했다. 그러나 복수안의 경우 기본 용어의 차이 때문에 복합형 용어의 차이가 생겨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의 복수안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17]

2382-1 남북 단일형 33, 남북 복수형 15
2382-2 남북 단일형 114, 남북 복수형 30
2382-3 남북 단일형 40, 남북 복수형 1

5. 용어 통일, 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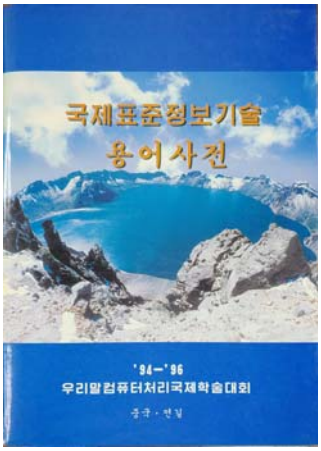
'96 ICCKL의 남북 정보통신용어 통일안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산용어 외에도 한글코드, 한글 자모순, 한글 자판 등에서도 통일안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향후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뿐 아니라, 사전 편찬 및 자료 교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96 ICCKL 합의사항이었던 '정보처리용어표준사전'도 다소 늦었지만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1999년 8월, 중국 길림성 내부자료성 출판물) 출판으로 마무리되었다.[18] 필자가 편집한 원고에 중국 측에서 중국어 표기를 덧붙이고, 당초 합

17) 예를 들면 'computer' 포함한 합성어가 상당히 많은데, 남한에서는 이를 '전산기'로, 북한에서는 '계산기'로 표기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당 합성 용어들도 달라진다. 또 'set'는 남한에서는 '집합'으로, 북한에서는 '모임'으로 표기함에 따라 자연히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된다. 빈집합-빈모임, 부분집합-부분모임, 완전집합-완전모임, 자모집합-자모모임, 부호집합-보호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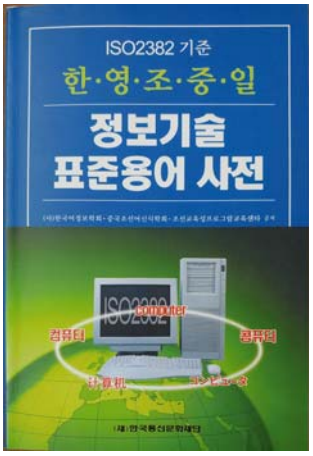
18) 이 책의 출판에 대해서는 편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① 용어집 자체를 한 판(version)으로 하느냐, 아니면 남한판, 북한판 혹은 중국판으로 나누어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판본 문제. ② 한 판으로 만들 때 남과 북의

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17 데이터베이스 용어, 22 계산기, 23 문서처리, 24 컴퓨터 통합 생산'까지 수록하였다. 이 분야들은 ISO 규격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초안에 불과했거나, 개정안 출판이 임박했던 것들이어서 '96 ICCKL에서는 제외했던 것이다. 이 분야는 후에 북한과 중국 측에서 추가하였고, 남한에서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19]

2001년에는 제5차 ICCKL 회의를 가지고 34까지를 추가하여 수정증보판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어정보학회(한국), 중국조선어신식학회(중국), 조선교육성프로그램교육센타(북한)가 참여하였다. 그 합의에 근거하여 이전의 용어 표준사전 원고를 증보하여 2002년 6월에 『ISO2382 기준 한·영·조·중·일 정보기술 표준용어사전』((재)한국통신문화재단)을 출판하였다.



[그림 3]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



[그림 4] 한영조중일 정보기술표준용어사전

남북한과 중국의 정보통신 분야 통일안의 기초가 되었던 '96 ICCKL의 통일안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 학술 교류의 열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간 대표가 곧 국가 대표가 되는 북한 사회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영호 박사(사회과학원 응용언어학연구소)가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다. 하지만 양측이 양측 정부의 후원 아래 다년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귀중한 열매이므로 그 학술적인 의의나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본다.

표기나 해설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순서 문제. 결과적으로 이 사전은 한 판으로 간행되었고, 표기의 순서는 북-남-중국 순으로 하였다. 사전의 색인은 '96 ICCKL에서 합의한 자모순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19) 이 사전을 바탕으로 2002년 6월에 『ISO2382 기준 한·영·조·중·일 정보기술 표준용어사전』((재)한국통신문화재단)이 출판되었다. 이 사전에는 당시까지 발표된 다음 용어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25 구역망, 26 개방체계 상호연결, 27 사무자동화, 28 인공지능- 일반개념과 전문가체계, 29 인공지능-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31. 인공지능- 기계학습, 32 전자우편, 34 인공지능- 신경망.

문제는 이 통일안이 각 측에서 표준용어로 자리 잡을 것인가이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이 통일안이 그저 선언적인 것으로, 남북 학술 교류의 한 산물에 머물렀다. 전산용어의 순화작업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사전도 펴내고, 언론을 통해 활발한 보급 운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거의 사어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 용어가 표준용어로 공인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사실상(de facto) 시장의 표준(market standard)을 연구의 결과로 합의된 통일안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였고, 코드, 자모순, 자판에 대한 통일안 역시 시장의 표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가를 오늘 현재 필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ICCKL에 참여한 북한의 학자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규격(약칭 '국규')을 전제로 하였음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 문영호 교수가 통일작업의 의의를 학술교류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분야에서 참여한 허주 박사는 국가규격 제정에 공을 세우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서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보통신 분야처럼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분야에서는 시장의 표준이 힘을 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국가 규격이 큰 힘을 가지는 이유는 모든 출판물이 그 규격에 의해 심의를 받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한의 정보처리 용어통일안 제정 작업은 '물론 공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학술대회의 합의사항이지만,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20]는 홍기호 원장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이 의미는 남북의 전문용어 통일 작업 전반에 걸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도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단 1회에 그쳐, 일단의 성과주의에 빠져서 합의 이후 곧 바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이 작업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은 유한체계가 아니라 무한체계이기 때문이며, 통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교류의 과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어 통일안의 기준이 되었던 ISO 2382 규정 자체도 꾸준히 개정 증보되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사어(死語)들도 나타났고,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및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최신 분야의 용어목록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남북용어 표준화 작업은 ISO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0) 홍기호, 「남북한 국어정보처리 표준화」(『전자신문』, 1996. 8. 26).

마지막으로 지난 ICCKL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의 전문용어 연구 교류를 위한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와 교류를 위한 모든 예산을 한국이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2) 중국의 동포학자를 매개로 해야 한다. 비록 남과 북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중국의 동포학자들과 연계해야 한다. 적어도 연변지역은 우리말이 공용어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말 관련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남과 북을 중개하고 중재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3) 용어표준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하고 전문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4) 전문용어의 표준안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술적인 교류를 우선해야 한다. 각 측에서 교류와 협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으로 제정하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ICCK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Processing for Korean Language) 발표논문집』(1994~1996)

『전자계산기 프로그람 용어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우리말 전산용어 사전』(국어정보학회), 서울:정음문화사, 1995.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 연길:중국길림성내부자료성출판물, 1999.

『ISO2382 기준 한·영·조·중·일 정보기술 표준용어사전』. (재)한국통신문화재단, 2002.

"주제" 5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용어 통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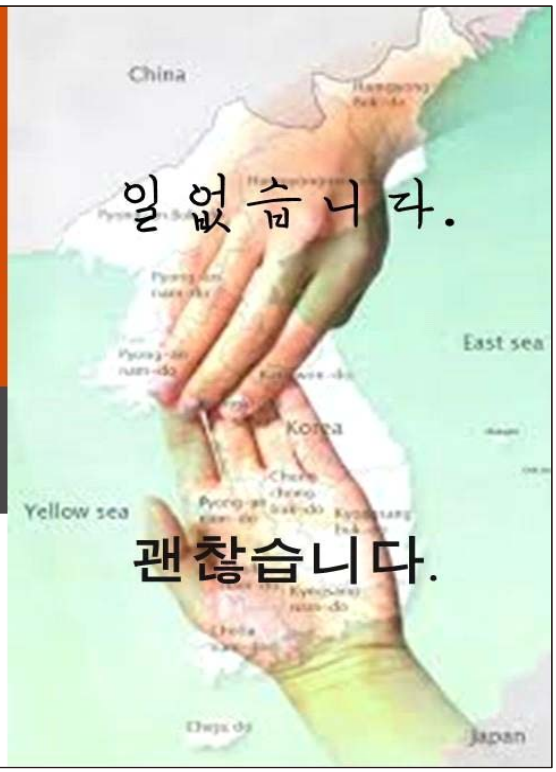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국립국어원 국제학술대회

북한 경제 현황과 남북 경제용어 통합 방안

2019. 12. 13. (금)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이태호



pwc 삼일회계법인

발표자 소개

이태호 (한국공인회계사)

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센터장
  부동산/SOC/공공 Industry Leader

저서

- 대북투자 10계명 (2010년 7월)
- 대동강의 기적-개성에서 나진까지 (공저, 2013년 12월)
- 북한 회계의 이해 (공저, 2019년 1월)
- 남북경제협력 –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공저, 2019년 5월)

약력

- 대한축구협회 감사
- 국민연금 대체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전력 부동산활용사업 자문위원
- LH공사 사업전략자문위원회 위원
- 캠코 펀드투자 심의위원회 위원
- 강원랜드 투자 심의위원회 위원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남북협력분과위원
- 캠코 통일국가자산포럼 자문위원
- 무역협회 남북투자교역협의회 자문위원
- LH공사 남북협력사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남북교류지원협회 감사
- 남북경협포럼 위원
-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회 위원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연구위원

Agenda

1. 최근 북한 경제 동향 4
2.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17
3.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30
4. 결론 40

Samil PwC 3

최근 북한 경제 동향

1. 건설 분야(도시 건축)

평양 만수대거리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2008.7 ~ 2009.8
6층~18층 규모 32개 동,
880세대 규모

평양 창전거리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2011.5 ~ 2013.12
4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편의시설, 공원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2014.8 ~ 2015.11
최대 53층 아파트 19개 동
2,584세대, 편의시설, 공원, 공공시설 등

평양 여명거리 아파트- 사진 뉴시스
2016.4 ~ 2017.4
최대 82층 고층아파트 6개 동, 상가 등

평양 금강거리 조성공사 착공 – 사진 서울평양뉴스
2019.10 ~ 현재
중구역 상업지역 재개발, 중국 자본 유치

최근 북한 경제 동향

1.건설 분야(기타)

평양 국제공항 리모델링 – 사진 연합뉴스
2011.8 ~ 2015.7
여객터미널 2개, 활주로 2본

삼지연 관광특구 건설(2018년) – 사진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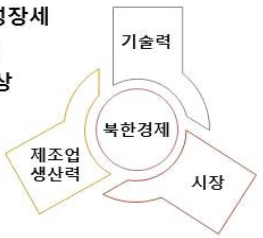
원산 갈마지구 건설현장 (2019년 4월) – 사진 연합뉴스

최근 북한 경제 동향

2. 시장의 성장

○ **기술력 기반 제조업 성장**

- 최근 제조업의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과 여러 단위 부문 간의 연계 활동 정상화
- 농업, 건설, 섬유, 식품 등 산업용 기계 분야의 수요 증가와 성장세
- 기계 및 관련 산업분야의 생산능력과 기술 역량 향상 가능성
- 식품 가공, 포장, 용기, 보관 등 소비재 분야 품질, 디자인 향상
- 실용주의적 산업정책
- 국산화 정책
-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력 양성 등



○ **시장의 제도화**

- 제조업 성장의 기반
- 대북 경제제재에 대응
-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 용인
- 국가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
- 정부 재정 확충

최근 북한 경제 동향

3. 북한의 신흥 부유층 : 돈주

○ **돈주의 출현과 성장**

- 1950년대 말 재일조선인 북송교포들이 일본의 생필품과 외화를 송금하면서부터 시작
- 점차로 보따리무역, 무역업자, 도매상 등으로 성장
- 최근에는 관료들과 결탁해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나 기업 · 공장 운영 활동에 직접 관여

○ **북한 사금융 시장의 성장**

80년대	→	90년대	→	2000년대	→	현재
외화상점에서 시작		고리대금업		대출, 투자		송금, 대금결제

○ **북한 돈주와 사금융 시장에 주목하고, 정상적인 투자재원으로 양성화할 필요**

- 사금융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 개인 돈주들이 북한의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진출
- 거래규모와 자금 수요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현상(초기 사채업의 특징)
- 사금융 시장을 통한 외화 유입 정책 실시 (전자카드, 휴대폰, 전자상거래)

최근 북한 경제 동향

4. 전시, 투자설명회 등 행사 활발

(출처 : 노동신문)

○ 평양국제상품박람회(15차)

- 2019.9.23 ~ 2019.9.27
-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350개 회사 참가
- 전기제품, 전자제품, 건설자재, 기계, 경공업 제품 등 (기사 내용 : 뉴시스 인용)

※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무역투자 전시회 참가

- 고속철도 사업 제안 및 협의 진행

○ 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

- 북한의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와 중국의 덕형로펌이 공동 주최 (19.04.03, 칭다오)
- 북한의 투자관련 법률, 경제개발구 소개,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평양국제상품전람관 건설 프로젝트 소개 등
- 북한의 경제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

[사진 : 칭다오 무역관 현장 촬영]

최근 북한 경제 동향

5. 에너지 사업 강화

○ 송배전망 현대화 사업

- 전국적으로 13,000여 대 주상변압기와 주변압기, 1만 km 배전선로 개선
- 남포시 송배전부 과대용량 변압기 개선, 예비변압기 확보
- 함경북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양시, 자강도, 강원도 등에서 각자 실정에 맞게 역량과 설비를 집중하여 송배전망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대비 60%를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

※ 북한의 발전력 235억 kWh, 북한 주민의 30% 정도만 혜택, 낙후된 송배전 시설로 인한 높은 전력 손실률(15% 이상)

○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 재생에네르기법 제정
- 신설 건물, 주택, 공장은 물론 버스, 배 등에도 태양광 전지판 설치 증가
- 중국 단둥, 연길 등 접경지역을 통해 소형 태양광 설비, 충전기 등 구입 증가

최근 북한 경제 동향

6. 물류, 유통 분야 성장

○ 북한 대도시 주변 개인 택배회사 증가

- 북한의 돈주들이 10톤급 화물 차량을 중국에서 구입해 개인택배 회사를 운영
- 평안남도 평성, 함경북도 청진 등 대형 시장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과거에는 기관, 공장기업소에서 물류,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됨
- 돈주는 화물차를 구입 후 매월 약 8,000위안 수입, 운전기사에게 약 2,000위안 지급

(시장환율로 계산 시 북한 돈 240만 원 수준의 고액)

[뉴스 자료 : 데일리NK]

Samil PwC 11

최근 북한 경제 동향

7. 관광 통한 외화 획득

○ 캐나다, 북미 최초 북한 전문여행사(프로투어)의 재외동포 대상 관광상품 출시

- 조선국제려행사와의 협약, 캐나다 현지에서 북한 단체관광상품 판매(2018년 8월 1일 설립)
- 2018년 10월 11일 ~ 19일, 평양-금강산-마식령스키장-판문점 관광 진행(캐나다 한인 12명 참가)
- 명산관광, 상품전람회, 교회·사찰 방문, 겨울 관광상품 등 계획

○ 북한, 금강산 관광상품 홍보

- 2019년 7월 ~ 11월 상품 판매 홍보
- 3박 4일 일정
- 등산, 낚시, 온천, 치료 상품
- 만물상, 구룡연, 삼일포, 해금강

○ 중국, 접경지역 중심 관광 교류 활발

- 중국 지린성 지안 도로통상구에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 지안 – 만포 대교 개통
- 훈춘에서 보트로 두만강을 건너 두만강 전통마을, 승천대, 서번포 호수 등 관광하는 상품 홍보
-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2020 평양 마라톤 패키지 상품 소개
- 심양 철도국제여행사 그룹은 북한 관광 위한 8개 노선 신설
- 중국 보하이페리그룹과 남포시와 연태-남포, 다롄-남포간 해상항로 운영에 관한 MOU체결
- 다롄, 마카오 ~ 평양 고려항공 직항 개설, 평양~선양 노선 증편(4회)

Samil PwC 12

최근 북한 경제 동향

8. 주택 사유화 현상

○ 라선 지역 부동산, 주택 사유화 정책

- 국가 소유 주택의 유상 분양
- 거주 주택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 개인에게 매매
- 일시불 납부 또는 25년간 월 분할 납부 가능

최근 북한 경제 동향

9. 소비 시장 발전

○ 외식 등 개인 소비층의 증가

- 2009년 평양 패스트푸드 1호점 오픈
- 이후 다양한 종류의 서양식 음식점 성업
- 햄버거, 와플, 치킨, 피자, 스파게티, 샤부샤부, 커피숍, 일식, 회전초밥, 중식당 등
- 손톱관리업소, 성형 수술까지 등장
- 장마당, 휴대폰의 발달로 배달 시장도 성장세

※ 부유층, 중산층의 소비 패턴 변화
양극화 현상, 지위의 상징, 식습관의 변화로 성인병 증가

+평양 금성1호거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종업원들(사진=조선신보)

A menu at the SoGwang Green Leaf Coffee Shop in Pyongyang. Photo: AFP

최근 북한 경제 동향 – 시사점

■ 현재 대북 제재하 북한 경제활동의 특징

- 현재 북한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 교육, 관광, 시장, 자력갱생, 절약, 에너지 등
- 대북 제재로 인해 석탄의 수출이 막히자 이를 국내 발전소 가동에 활용하여 북한의 전력사정 다소 개선
- 북한 고급 수산물, 농산물의 내수시장 출시로 북한 시장 경기가 활성화
-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활동이 이뤄졌으나 최근 삼지연, 원산, 접경지역 등 타 지역에서의 건설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의미한 현상
- 시장과 사금융 시장의 확대는 북한 정부로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
-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조금씩 자본주의경제, 개인소유 영역의 증가 현상 발생
- 제재 이후의 경제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교육, 전시회, 투자유치설명회)

↳ *경제용어 통합 관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

Samil PwC 15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1. 시기별 차이

○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의 동질성 유지**
- 남북한 동일한 맞춤법 사용
- 1933년 조선어학회 제정 "한글맞춤법 통일안" 함께 사용
- 1937년 표준어 제정 보급

○ **남북 분단기의 다른 길**
- 1948년 남북이 서로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맞춤법을 사용하기 시작
- 1954년 북한은 "조선어철자법" 제정

○ **분단으로 인한 차이 심화**
- 남한 : 1933년 제정 "한국맞춤법 통일안" 사용, 1988년 개정 한글맞춤법 사용, 외래어의 급속한 유입과 사용, 한글 파괴 현상
- 북한 : 1960년대 주체사상과 결합, 인위적으로 이념적이며, 혁명적인 어휘 생성 한자 폐지, 조선어 전용 사용 등 당국의 인위적 활동

▶ 일상용어, 전문용어, 한글표기법, 외래어표기법, 한자사용, 대화법, 언어문화 등 상당한 차이

Samil PwC 17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2. 경제분야 용어 차이

알기힘든 북한 경제용어

◎계좌→돈자리,전매행위→되거리,돈놀
형,수표→행표,해직→철직,중소기업→중
절대 사용안해/교류합의서 마련때 논란

「돈자리」(은행계좌) 「변놀이」(돈놀아이
「중세소업」(중소기업).

남한 사람들이 들으면 정확히 그 뜻을
경제용어들이다.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큰 차이가
심지어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경제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마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경제에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북
고집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우선 「자본」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화폐」나 「재산」 등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쓴다.

남한	북한
계좌	돈자리
졸부	갑작부자
서명	수표
상계	맞비비기 결제
연체독촉	돈단련
아파트	고층살림집
맞벌이부부	직자세대
격일제근무	하루돌이근무

북한의 경제용어 가운데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금융부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남한에서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자리」라는 말을 쓰는데 「외화돈자리」

라고 말하며,수표도 「행표」라고 부른다.
는 말을 쓴다.

을 대신해 자기이름을 나타내는 일종의
할 수 있다.

이」라고 부르는가
을 챙기기 위해 되파는 전매행위를
는 말 대신 반드시 「담보한다」라는

과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맞벌이부부」는 「직장세대」로,「격일제 근무」는 「하루돌이 근무」,「격일로 하는 일」은 「날거리」로 각각 부른다. 「해직」이나 「해임」은 「철직」으로 말하고 「태업」은 「태공」,파업은 「경제투쟁」이라고 한다.

Samil PwC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3. 남북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부록(2000.12.16)

남측	북측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원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Samil PwC 19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부록 (2000.12.16)

남측	북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 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대가	료금
지배관계	종속관계

Samil PwC 20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Samil PwC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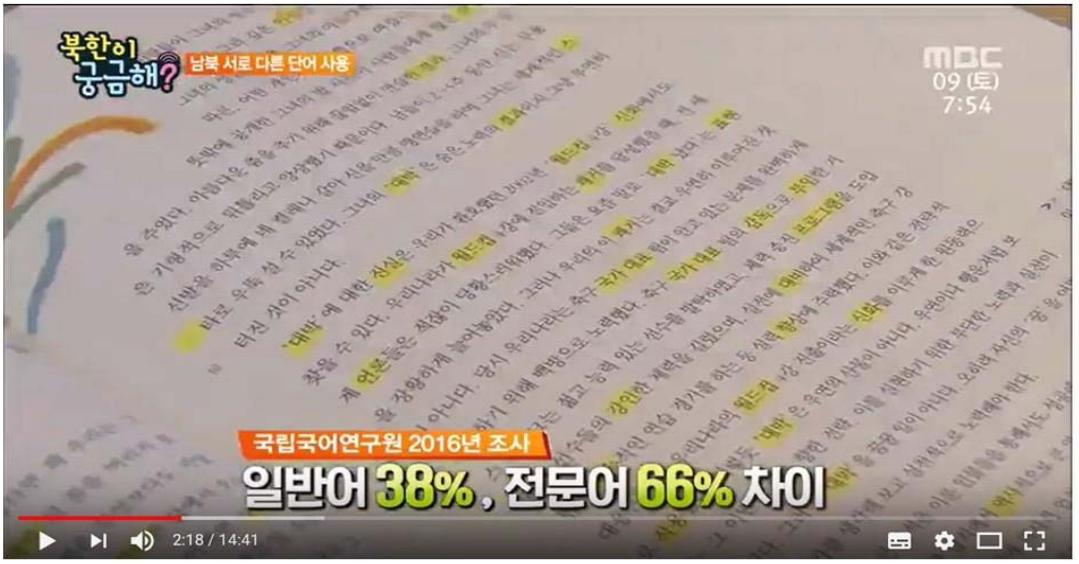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Samil PwC 22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Samil PwC 23

남북한 언어와 용어의 차이



Samil PwC 24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1. 남북한 언어와 경제용어 통합의 필요성

○ 언어 자체의 통합 필요성
- 한국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뿐. 70여 년의 단절에 따른 언어 차이 심화
-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언어의 약 30%가 서로 상이함
- 나이와 세대가 진행될 수록 높아지는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 심화 가능성
- 정확한 의사와 감정의 전달을 위한 언어 통합 필요성 증대

○ 경제용어 통합의 필요성
- 남북 기업인의 경제 활동 수요에 대응하며, 기업 활동의 효율성 증대
- 경제용어의 표준화를 통한 정보화 비용 절감
- 향후 미래의 통일 경제 세대를 대비하는 활동

○ 북한의 시장경제 진행 상황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 방안 모색
- 지식공유프로그램(KSP) 등 적극 활용 필요
- 시장경제지식 교류, MBA, 해외 경제시찰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 용어 습득
- 제3국을 통한 남북 간 교류 활동도 추진 필요

Samil PwC 26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2.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1) 시장경제 관련 교육 진행

- 나진기업학교 설립(1998년, UNDP 후원)
  -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필요한 시장경제일군 양성
  - 무역관료, 기업간부, 일반 학생 대상
  - 관광, 기업경영, 통계, 지역관리, 복지, 관계법령, 과세, 금융, 부동산 등 교육

사진:NK조선

- 시장경제와 국제 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 설치(1999년)
  - 국제문제연구소(노동당 국제부 산하)
  - 남조선문제연구소(통전부 산하)
  - 대외경제연구소(무역성 대외경제조사국 산하)

- 평양 비즈니스 스쿨(PSB) 설립 (2004년, 스위스 개발협력기구 지원)
  - 중학교 졸업한 어린 신세대 대상 교육 (외국경영자, 해외유학파가 강의)
  - 국제상법개론, 전략경영론, 시장조사, 구매자행태, 전자상거래 등 교육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2) 북한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2007~2010)

년도	프로그램	참여 주체	시기	북한 측	장소	세부 내용
2007	ICPC(IBM)	시라큐스 대학 및 통일부	가을	김책공대 연구진	중국 (북경)	· IT 교육
2008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기획재정부	9.10~11.19	24명 국제기술경제교류위원회, 김책공대, 평양외대, 국영기업관리부 국장	대련대, 동북재경대 (중국)	· 경영, 경제, 외국어 훈련 · 고위급 현장 학습
2009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대련대학 중조교류센터 (기획재정부)	10.3~12.11	48명 무역성, 외무성,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기업인 등	대련대 (중국)	· 국제무역, 국제경제, 지적재산권, 중국 중재법, 주식시장 및 기념품 산업 활성화 · 인민소비품 보장을 위한 경공업 활성화
2010	김책공대-시라큐스대 협력연구	시라큐스 대학 및 통일부	1.24~1.29	김책공대 총장 등	북경 (중국)	· 김책공대 내 IT연구소 건립 관련 논의

※ 최근 북한-중국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

- **북한 사회과학원 – 중국 북경대학** 협력 : 최근의 세계 경제 관련 정보, 동향을 가감 없이 공유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 중국 연변대학** 협력 : 북한 실정에 맞게끔 일부 가공 및 필터링 된 정보 공유

⇒ 시사점 : 향후의 남북 간 지식 교류, 언어와 용어 통합 과정에서의 완충 기능과 지대 필요성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3) 캐나다-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 (KPP) (2011~)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과 북한 대학 간 지식 교류
- 북한의 경제, 경영, 무역, 금융 등 분야 전공 교수 중 매년 6명을 선발해 캐나다 UBC에서 7월 ~ 12월, 6개월간 연수
  - 김일성종합대, 인민경제대, 평양외대, 김책공대, 평양상업대 등
- 거시경제, 미시경제, 조직경영, 무역, 재정 과목 수강
- 법률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견학, CEO와의 대화

- 2013년, 2014년 평양에서 경제특구 개발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 7개국 20여 명의 경제특구, 경제개발 전문가들과 200여 명 이상의 북한 경제학자, 전문가, 정부관계자, 평양주재 외교관 등 참가
- 2015년, 북한의 '학습고찰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스위스 방문
  - 인도네시아 : 경제개발 현장 방문, 사례 연구
  - 스위스 : 제네바 UN본부, 베른대학 방문, 축산과학기술 관련 학습 (강원도 세포군 축산전문협동농장위원회 관계자 포함)

Samil PwC 29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4) 조선익스체인지(싱가포르 NGO)
– 제프리 씨 (2010년 창립)

- 북한 내 사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개인 대상 교육
- 스타트업 기업, 벤처 투자 등 경영, 마케팅, 회계, 브랜딩 등 단기 MBA과정
- 해외대학 경제학교수,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자원봉사 교육
  - 10년간 북한 주민 2,600여 명 교육 (여성 700여 명)
  - 이 중 100여 명은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창업 연수
- 평양에서 연 3~5회 창업 세미나 개최
- 2015년 북한 시민 12명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4개월간 창업 교육
  -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전자, 식품 등 10여 개 기업 창립
- 조선익스체인지 출신 북한인들이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영
  - 건강음료 등 소비재 관련 17개 스타트업 탄생
  - 북한판 위챗,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맘카페 등 아이디어 표현
- 2018년 11월 평성에서 스타트업 창업 연수회 개최
- 2019년 5월, 제1회 북한 경제포럼(DPRK Economic Forum) 개최

[자료: 조선교류(Chosun Exchange)]

Samil PwC 30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5) 북한 내 MBA 교육 과정 도입(2019.4)

-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의 시장 경제 교육
- 싱가포르 NGO '조선익스체인지'의 자본주의 경제, 창업 관련 교육 등 기반으로 하여 도입

-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내에 기업관리 인재 양성반(MBA) 과정 개설**
  - 유엔 등 국제 제재에 대비, 시장 경제 교육 목적
  - 해외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교수들이 다수이며, 경제 관련 교육 과정이 우수한 배경
  - 전국 국영기업체, 기업소 등에서 30~40대 초반 간부 100여 명 선발 후 집중 교육
  - 2년간 전원 기숙사 생활, 대외금융강좌, 해외 투자유치 등 시장경제 관련 교육
  - 의욕에 비해 북한에 처음인 MBA 과정이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문 교수진도 부족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국제관계 등이 개선될 경우에는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대학에도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Samil PwC

"최근, 원격강의에 의한 졸업생도 배출"

31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6) 평양과학기술대학교(PUST)

- 북한 유일의 기독교 기반 사립 국제 대학교
- 국제화된 고급 인재 육성 목적
- 남북한 정부 승인(2001년), 개교(2009년), 신입생 입학(2010년)
- 모든 과목은 외국 국적 교수에 의해 영어로 교육(한국 국적 교수는 5.24 조치로 불허)
- 정보통신공학부, 농생명공학부, 산업경영학부, 보건의료학보, 건설공학부
- 산학복합단지(R&D Center) 운영
- PUST 학생의 국제화 위한 국제 학술대회, 해외 파견 등 실시

[사진: 박찬모 전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Samil PwC

32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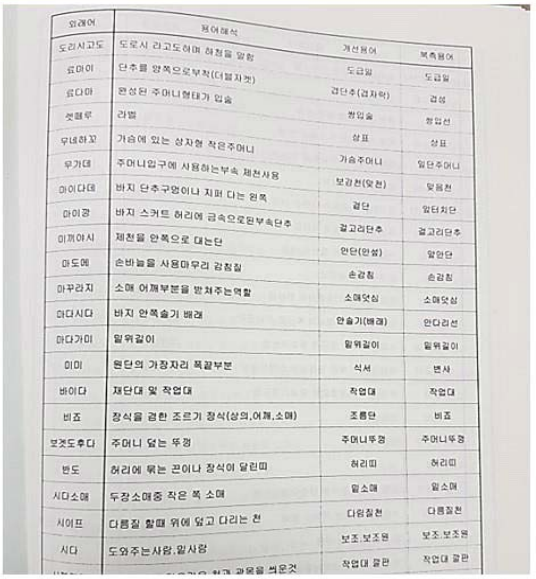
3. 경제 용어 통합 추진 노력

1)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원" 해외연수

- 2004년 10월, 개성공단 내 공장 착공
- 2004년 11월 말~ 12월 초,

  북측 직원 선채용하여 중국에서 실습

  연수기간 중 봉제 용어 남북 통합 작업
- 2004년 12월 중순, 북측 지원 1차 정식 입사
- 2005년 2월, 개성 공장 준공
- 2005년 3월, 개성 공단 첫 제품 생산



외래어	용어예식	개선용어	북측용어
도리사고도	도로시 라고도하며 허점을 말함	도급일	도급일
딴다이	단추를 왕쪽으로부착(더블지퍼)	겹단추(겹자락)	겹섶
딴다마	완성된 주머니형태가 입술	봉입술	봉입선
셋폐루	라벨	상표	상표
무네하고	가슴에 있는 상자형 작은주머니	가슴주머니	일단주머니
무가대	주머니입구에 사용하는부속 제천사용	보강천(덧천)	덧붙천
마이다대	바지 단추구멍이나 지퍼 다는 왼쪽	겉단	앞터치단
마이광	바지 스커트 허리에 금속으로된부속단추	겉고리단추	겉고리단추
이끼아시	제천을 안쪽으로 대는단	안단(안섶)	앞안단
마도메	손바늘을 사용마무리 감침질	손감침	손감침
마꾸리지	소매 어깨부분을 받쳐주는역할	소매덧심	소매덧심
마다시다	바지 안쪽솔기 배래	안솔기(배래)	안다리선
마다가이	일위길이	일위길이	일위길이
이미	원단의 가장자리 폭끝부분	식서	변사
바이다	재단대 및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비죠	장식을 겸한 조르기 장식(상의,어깨,소매)	조름단	비죠
보조도후다	주머니 덮는 뚜껑	주머니뚜껑	주머니뚜껑
반도	허리에 묶는 끈이나 장식이 달린띠	허리띠	허리띠
시다소매	두장소매중 작은 쪽 소매	밑소매	밑소매
시이프	다림질 할때 위에 덮고 다리는 천	다림질천	다림질천
시다	도와주는사람,밑사람	보조,보조원	보조,보조원
		작업대 끝단	작업대 끝단

[자료: 신원]

개성공단 초기 성공적 정착, 남북 근로자 간 이해와 화합에 큰 기여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2) 개성공단 남북 관계자 공동 해외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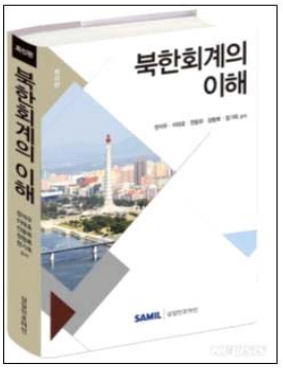
- 2005년, 2006년, 2009년
- 중국 청도, 소주, 심천, 베트남 엔퐁 공단 등 시찰, 국제 수준의 공단 개발 모색
- 교류를 통한 소통, 공감대 확산, 국제적 규범·기준 준수 필요성, 용어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3) 한국공인회계사회 남북회계협력위원회 구성(2018.7)

○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남북 회계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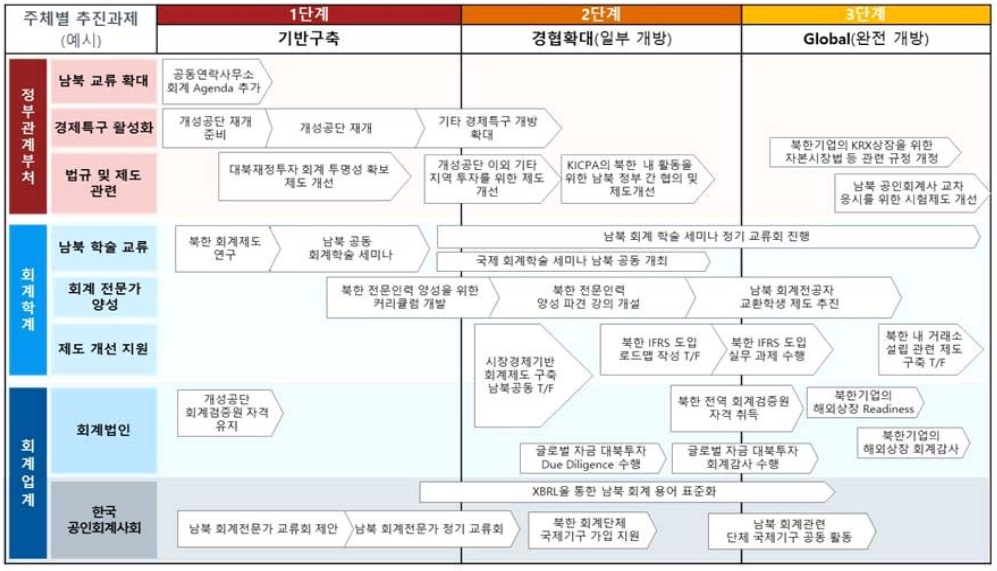
- **경제의 언어인 "회계" 통일**은 북한 경제 개혁과 개방 촉진 및 국제 신뢰 향상의 도구
- 중국, 베트남 등과의 사례 비교를 통한 추진 프로세스 마련
- 정부, 회계학계, 회계업계 간 단계별 협력 방안 마련과 프로세스의 이행



Samil PwC 35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 북한 경제발전 단계별 남북회계협력 Grand Design



Samil PwC 36

남북한 경제용어 통합 추진 방안

4) 한국도로기술사회 남북 도로협력 추진

ㅇ 남북 도로협력의 목적

- 산업 인프라로서의 통일 도로망 구축,
  유라시아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4차 산업과 자율 주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도로 건설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목표
-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조사, 건설기준,
  관리체계 통합 위한 공동 검토 필요
- 남북도로협력분과 회담을 통해 도로 현대화사업과 공동조사 시행(2018.12)

ㅇ 남북도로 협력과 용어 통합

- 북한의 도로 설계기준, 통행 여건, 교통 체계 등 감안
- 도로 실태조사, 도로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 남북한 도로 기술자 교류
-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도로 건설 관련 **도량형,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한 용어 통합**

Samil PwC 37

결론

4

결론

1. 경제 용어 통합의 원칙과 방향

○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 남북한 경제 용어 통합 작업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
-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과 통합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제도 필요

○ 경제 용어 통합의 로드맵과 표준화 방식 마련
- 남북한 경제 용어 수집과 분석, 통합 작업 추진
- 경제용어 표준화 적용 방식 연구(남한용어, 북한용어, 신용어, 복수용어, 국제표준어 등)
- 남북 간의 용어가 상당 기간 혼용되면서 통합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포용 기간 필요

○ 어느 일방에 의한 경제 용어 통합 방안 지양
- 북한의 경제 수준과 현실, 사회 문화 환경을 감안한 배려로 협의와 조정 과정 필요
- 경제 언어 통합과정 및 향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
- 남북한 경제 수준의 차이가 언어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인식

○ 경제 용어 통합의 의미와 가치 확산
- 남북한 경제 용어 통합 작업은 단순한 말과 언어의 통합을 넘어서는 경제적 통합 과정의 중요 단계
- 현재 대북 제재하 남북 교류의 중단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

Samil PwC 39

결론

2. 경제 용어 통합 방법

○ 지식 공유(KSP) 프로그램 활용한 교류 확대
-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 관련 수용 욕구를 충분히 활용
- 남북간 경제 용어 통합을 위해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 추진
- 단순 용어 통합이 아닌 북한의 경제 사정과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산업별 국제 표준 규격, 기준 등과 연계한 용어 통합 방안 추진
- 남북간 언어·용어 통합과정에서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평양과기대 사례)
- 현재 남북관계 제약으로 남북한 내에서의 접촉이 어렵다면, 중국 등 제3국을 활용 방안 모색

○ 통합 경제 용어 사전 제작
- 남북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회 사전 제작 작업의 성공적 이행 (2004 ~현재)
- 독일 두덴출판사 독일어대사전 편찬(1991) 사례 참고
- 스마트기기 통한 보급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Samil PwC 40

참고 자료

- 권재일,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우리만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2015)
-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 간추린 남북 언어 차이(2018, 국립국어원)
-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8, 국립국어원)
- 정근식, 북한 주민 생활의 변화와 대학 경제교육
- 개성공업지구법규집(통일부)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통일뉴스

감사합니다.

www.sam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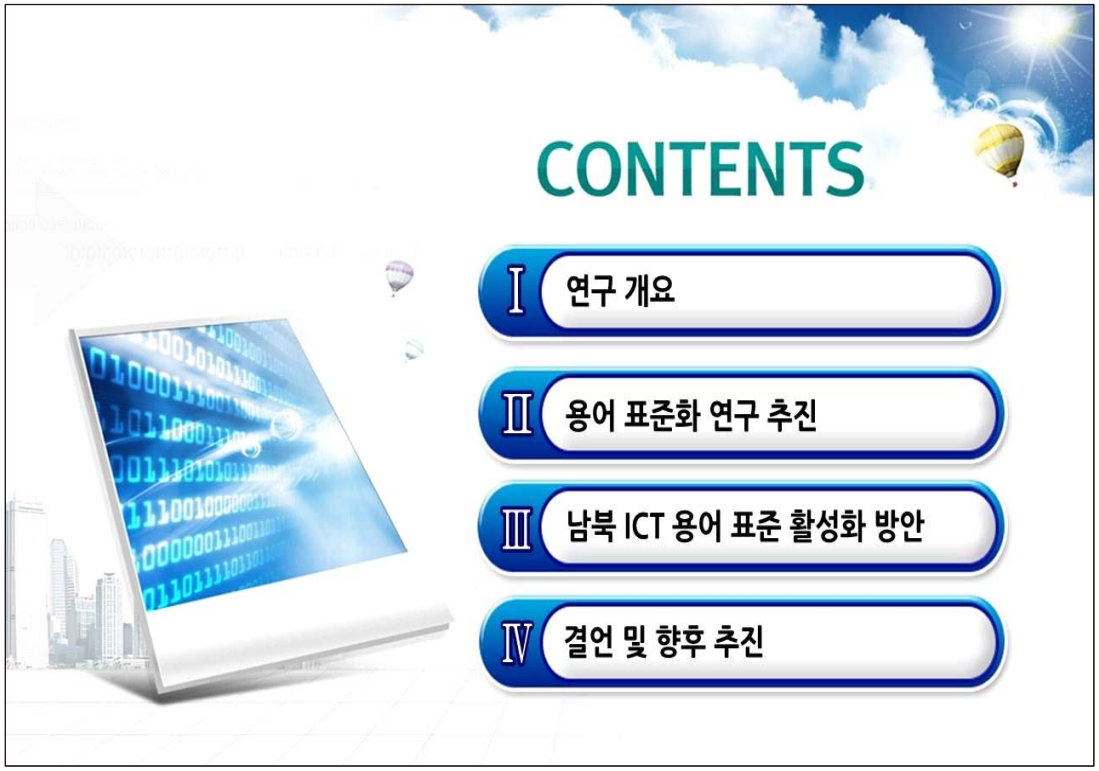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
이태호 센터장 02-709-0718, 010-3783-0718, thlee@samil.com
이경찬 실장 02-709-0451, 010-2422-5867, kclee@samil.com
천진아 과장 02-3781-9430, 010-8665-9430, jachoun@samil.com
(0438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6층

"주제" 6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 방안 연구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 방안 연구
2019. 12. 13.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창균 실장 / Ph.D, P.E.


CONTENTS
Ⅰ 연구 개요
Ⅱ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Ⅲ 남북 ICT 용어 표준 활성화 방안
Ⅳ 결언 및 향후 추진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배경

1) 상호 다른 기술체계와 언어 정책에 따른 이질화 발생

| 남북은 상호 다른 기술체계와 언어 정책을 도입하여 발전해 왔으며, 분단 70여 년 동안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로 인해 그 격차와 이질화는 지속적으로 커짐.

2)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따른 효율적 ICT 인프라 구축 협력에 제동

| 남북한은 ICT 전문용어의 형성 및 언어 정책의 차이로 용어의 형태와 사용 방법이 달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남북 통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ICT 인프라 구축 협력에 제동이 걸림

|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도약 기반인 ICT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시공 현장에서 활용되는 언어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어의 표준화 / 표준화 협력 방안 등 기초 환경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4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배경

3)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분야 경제협력 방안 논의 확산

| [김정은 , 2012년 4월 6일] '새 세기 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 강국 건설'을 당면한 핵심 과업으로 제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 中)

| [문재인 , 2018년 4월 27일]"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북한도 통신산업 발전이 중요할 텐데, 과학기술, 통신 분야 표준을 맞춰 나가자" 제안

〈2018 남북정상회담, 2018. 4월〉

〈남북 ICT 교류 협력 세미나, 2018. 7월〉

〈남북교류 ICT 역할과 준비, 2018. 9월〉

5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배경

4) 남북 교류 및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ICT 중요성 증대

| ICT 산업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북한의 경제 활성화 기여에 파급효과와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산업**이며, 남북교류 및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 ICT 인프라는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각종 산업 등에서 **남북한 통합의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 구축 및 통합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됨.

5) 북한 시장 진출과 남북 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한 산업 차원의 준비 필요성 인식

| 남한의 ICT 자원(기술, 자본 등)의 지원을 통한 남북 통합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언어 통합 ▲기술 표준화 ▲관련 법, 제도 통합 등의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6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1) 상호 다른 기술체계와 언어 정책에 따른 이질화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 남북은 상호 다른 기술체계와 언어정책을 도입하여 발전해 왔으며,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변화로 인해 용어의 형태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이질화 예방 대책이 필요

- 북한은 1949년 한자 폐지 이후 순우리말 위주의 말 다듬기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폐쇄정책으로 외래어 유입을 차단해 옴

| 남북 상호 간 기술공여국이 다른 특성과,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되는 남북 간 정보 및 기술 격차는 용어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관련 대책 필요

- 겨레말 큰사전 사업회의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비교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용어는 66%**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7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남북 사전의 표제어 비교 결과

		≪표준국어대사전≫ (1999)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006)
표제어	주표제어	437,865 (북한어 66,460개 포함)	313,198
	부표제어	68,411	39,745
	계	506,276	352,943
한쪽 사전에만 있는 말		228,474	138,472

|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 비교(예)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남한용어	북한용어
라우터	경로기	부팅	기동	마이크로프로세서	극소형 처리장치
케이블	까벨	서버	봉사기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네트 통신규약
호스팅	대여봉사	랜	국부망		

- 겨레말 큰사전 사업회의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비교 결과 정보통신기술 용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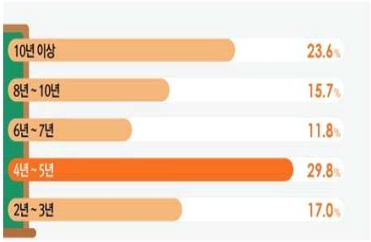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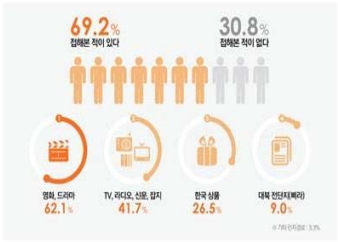
2) 남북한 언어차이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표준화 대책 마련 필요

| 남북 언어차이 실감 정도는 89.8%, 생활 불편 경험도 71.9%, 영어 적응도(적응 안 됨) 75.9% 등으로 이미 언어의 이질화가 상당 부문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언어에 대한 익숙함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 80.3%가 남한말이 익숙해지는 데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이 중 69.2%만이 남한말을 접해본 적이 있음)



〈남한말에 익숙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



〈남한말을 접해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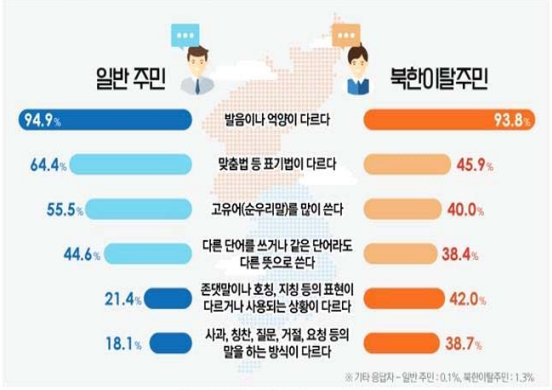
9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2) 남북한 언어차이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표준화 대책 마련 필요

| 발음과 억양, 맞춤법 등 표기법의 차이를 비롯하여 존댓말이나 호칭, 지칭 등의 표현과 사과, 칭찬, 질문, 거절, 요청 등의 표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느낌



〈남북 주민 언어차이 인식도 조사결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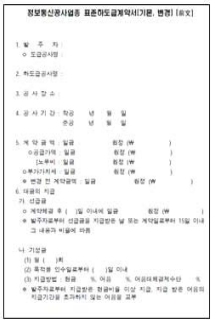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 용어 및 의사소통 등의 차이는 전문분야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ICT 분야 활용 용어 상당 부문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어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 => 효율적인 남북 통합의 정보통신분야 경제협력 등을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ICT 인프라 시공 현장의 협력에 제동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예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붙임 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설계서(시방서 등)
5. 산출내역서

〈계약도서〉

⇒ 남북한 각종 계약문서 작성 및 활용 시 용어 표현, 인식의 차이로 인한 계약상의 분쟁 등이 예상되며, ICT 인프라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용어 표준화 대책 마련이 필요

1. 연구 개요 - 배경 / 필요성

○ 연구 필요성

3) 정보통신기술 용어에 대한 선제적인 비교 및 표준화 연구를 추진 및 확대 필요

| 남북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언어 표준화를 통한 통합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언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ICT 기술 발전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 분야 역시 남북 교류활성화 또는 협력 준비에 따른 북한 시장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용어 표준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건설 및 전기분야의 경우 각각 북한건설용어집과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의 비교 등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언어의 통합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무적인 차원의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용어를 추출하고 비교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용어 표준화 방안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Ⅱ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노력

남북 정보통신현황 검토 및 국제학술활동 참여를 통한 표준화 및 교류협력

| ICT 분야의 남북한 현황 조사 / 사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의, ICT 표준화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동북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유선, 무선, 위성 등) 및 방송 현황
- 남북 ICT 관련 용어사전 연구 사례 조사
- 북한의 ICT 법제도 및 추진정책 현황
-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의 현행화 검토
- ICT 분야 주제 발표를 통한 학술대회 참여

〈남북 참여 국제학술대회(중국 연길), 2018. 8월〉

⇒ 북한 정보통신 현황 검토, 관련 전문가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및 정례 행사를 통한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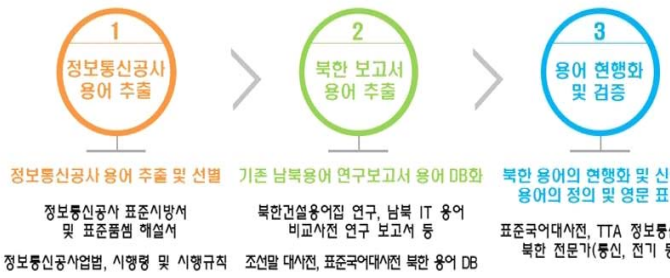
14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용어 비교를 통한 표준화 추진 절차 마련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표준화연구 추진 절차 (3단계 추진)



정보통신공사 용어 추출 및 선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해설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존 남북용어 연구보고서 용어 DB화
북한건설용어집 연구, 남북 IT 용어 비교사전 연구 보고서 등
조선말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북한 용어 DB

북한 용어의 현행화 및 신뢰성 확보
용어의 정의 및 영문 표현 검증
표준국어대사전, TTA 정보통신용어 사전
북한 전문가(통신, 전기 등) 자문

남북 정보통신 기술 용어 표준화

15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1/5)

가.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활용 자료

표준시방서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표준품셈 해설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항목별 제·개정 이력사항, 작업절차, 시공사진 및 질의회신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

- 향후 다양한 산업 용어 및 활용 유형 확대, 정보통신기술 표준공법, 관련 기술기준, 법규 용어 등 추가

16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2/5)

나.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결과(정보통신기술 표준시방서)

- 구내통신분야, 정보망/보안설비 용어 등 6개 분야 : 63,963개 용어 추출

17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3/5)

다.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결과(정보통신 표준품셈 해설서)

- 공통사항, 관로공사, 케이블 공사 등 12개 분야 : 28, 311개 용어 추출

18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4/5)

라.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결과(정보통신기술업법, 시행령, 규칙)

- 정보통신기술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4,004개 용어 추출

19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4/5)

마. 정보통신기술 활용 용어 정제화 - 추출 용어 중복 제거 및 DB화

- 1차로 추출된 정보통신기술 활용 용어 96,278개는 중복 용어 처리 과정을 거쳐 31,369개(약33%)로 제거 및 통합 되어 Excel DB화 처리함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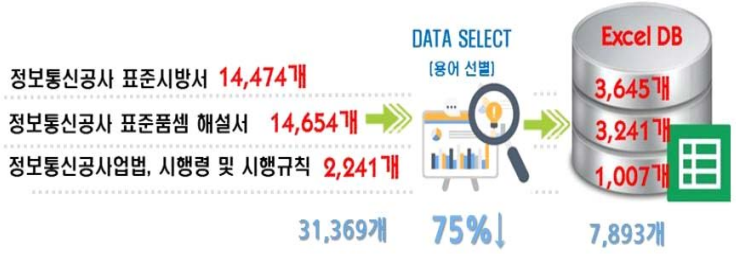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1) 정보통신기술 용어 추출 (산업/시공 현장 활용사례) (5/5)

마. 정보통신기술 활용 용어 정제화 - 추출 활용 용어의 선별(용어의 활용 빈도수 확인 및 전문가 검토)

- 중복 용어 처리과정으로 통합된 31,369개의 용어를, 빈도수 추출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7,893개 (약 25%)로 선별하고 Excel DB화 처리함.



21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2) 북한 관련 자료 활용 용어 추출

| 북한 관련 자료 활용 용어 추출

- 선행 용어 비교 자료 및 보고서에서 북한 용어 검토 / 분석, Excel DB화 구축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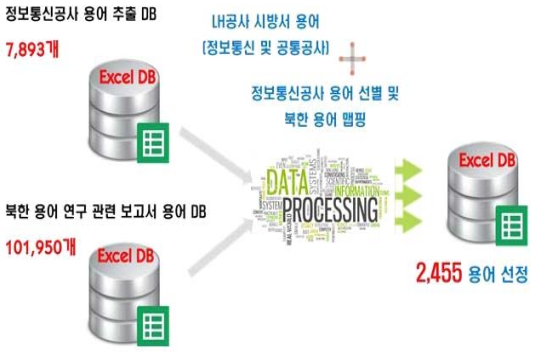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1/5)

가. 정보통신기술 활용 용어 선별

- 정보통신기술 용어 7,893개 중 선행 용어 자료(LH공사 시방서 등) 활용하여 빈도수가 높은 2,455개 용어를 선정하고, 북한 용어 보고서의 북한 용어와 비교 검토



23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2/5)

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선별 용어의 정의 및 영어 표현 정립

-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립을 위해 공신력 있는 1)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2)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 3)표준품셈 해설집, 4)온라인 백과사전(위키백과, 지식백과 사전 등) 등을 우선순위 두고 활용

24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3/5)

다. 북한 용어 전문가(새터민, 북한 전문가 등) 검토를 통한 검증 작업 (1/2)

-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북한 용어에 대한 최신화 및 용어 검증, 영어 표현 등 검증 작업을 통해 (2,455개 용어) 도출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3/5)

다. 북한 용어 전문가(새터민, 북한 전문가 등) 검토를 통한 검증 작업 (2/2)

- 북한 용어 전문가 검토, 총 5회에 걸쳐 추진 [북한 통신 및 전기 관련 전문가] -> 전문가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남북 정보통신기술의 비교 용어(1,975개)로 최종 선정

자문내용	자문요청	검증용어	추가검증필요
북한 용어 검증 및 현행화	2001개	1,764개	237개
신규 북한 용어 확인	454개	211개	243개
합 계	2,455개	1,975개	480개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4/5)

라. 표준화 용어 최종 선별 / 선별 결과 분석

- 북한 연구 전문가, 표준화 담당(기술,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 담당 등) 협조를 통해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산업현장 표준화 추진 결과 도출

구 분	추출수	구분	추출수
ㄱ	261	ㅈ	245
ㄴ	58	ㅊ	38
ㄷ	90	ㅋ	32
ㄹ	37	ㅌ	33
ㅁ	72	ㅍ	34
ㅂ	162	ㅎ	50
ㅅ	169	합계	1,476개
ㅇ	195		

-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최종 선별 결과 분석 : 1,476개 비교 시 594(40.3%)개의 용어는 남북 용어의 표현이 같았으며, 나머지 882개(59.7%)의 용어는 용어의 표현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27

2. 용어 표준화 연구 추진

○ 추진 절차

3) 용어 현행화 및 검증 (5/5)

마. 표준화 용어 활용을 위한 산업분야별 용어 분류

- 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표준시방서 기준) 및 정보통신 관련법을 통한 8개 영역으로 용어 분류하여 활용

분 야	용어수	비 율
총칙 및 공통 용어	222개	15.04%
관로 및 배관. 배선공사	271개	18.36%
구내통신공사	287개	19.44%
정보망. 매체공사	184개	12.47%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341개	23.10%
무선설비공사	113개	7.66%
방송설비공사	33개	2.24%
정보통신기술업법	25개	1.69%
합 계	1,476개	10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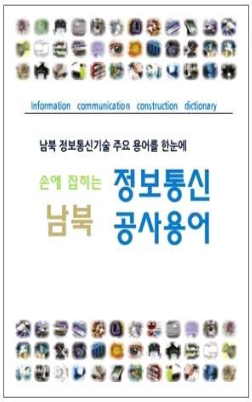
3.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표준 활성화 방안

○ 남북한 용어 비교 활용 측면

남북 ICT 표준용어집(책자, 스마트폰 앱 등) 제작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방향

-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국제 표준 등 준수, 스마트폰 앱 등 제작을 통해 남북 교류현장에서 활용성 제고



- 정보통신기술 주요 용어 및 일반 활용 용어의 정의 및 영어 용어 작성(약 1,476여 개)
  남한용어를 기준으로 북한용어, 영어용어를 비교 정리
-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비교표
-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용어의 색인, 시설분야별 용어의 표준화

| 용어 표준화 (국제표준 준수)

1. 가공선			
북)	가공선	영)	overhead line, aerial cable
공중에 가로질러 설치한 전선 전력을 보내거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공중에 가로질러 설치한 선			

30

3.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표준 활성화 방안

○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 측면

1) 남북 ICT 표준위원회 등 통한 민간분야 교류 확대

| 향후, 남북한 정보통신분야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 전문적인 용어의 표준화 연구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진행 필요

- 북한의 ICT 인프라 구축비용은 약 10조 원 이상이 예상(KISDI, 2015)됨에따라, 향후 남북 ICT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한 정보통신분야 교류 활성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표준화 준비 필요

| 남북 전문 용어의 통합 및 효율적 관리, 남북 ICT 산업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속 필요

- 과학기술분야 용어는 약 5천만 어휘를 상회하고 있어, 전문용어 작업에 대한 남북 정보의 교환, 노력의 공유 및 협력은 필수적 임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전문용어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함
- 남북한 용어 표준화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기술용어 및 표준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에서 남북 정보통신분야 용어는 물론이고 관련 규격과 설계기준 등을 통합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

31

3.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표준 활성화 방안

○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 측면

2) 남북 ICT 교류협력은 대북 제재 수준 고려한 추진

| (제재 중) 북한 ICT 기술 교류 및 국제 표준화 협력
| (제재 해소) 유무상 원조 지원, 협력 사업을 통한 공동 이익 실현

→ 단계별 협력

제재 중 — 교류 여건 조성

ICT 산업 협력, 북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사
- 북한 인력 및 기술 수준, 표준화, 정보통신산업 협력분야, 북한 통신망 고도화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사 추진

학술행사 등 민간 교류, 표준화를 통한 남북 협력 여건 조성
- 학술행사,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인력교류 • ICT 대학을 통한 북한의 우수인재들에 대한 인력 교류 등 협력 기반 조성

제재 해소 — 경협 교류 지원 활성화

북한 ICT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대
- 남북 경협 지원사업 등 예산확보를 통해 북한지역 철도/도로/항만 등 연계된 ICT 인프라 확충 및 시공

타산업과 연계된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
- ICT 기술 활용한 융복합서비스 및 제품 생산 확대 • 스마트 농장, 에너지, 교통 등 타 산업과 연계된 기술 융합 확대

32

4. 결언 및 향후 추진

○표준화 기반의 남북 교류활성화 추진

1) 한반도 평화시대에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

- 한반도 평화 조성 및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및 법제도적 조건 성숙, 글로벌 시장변화, 개성공단 운영 등 사업 경험과 교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ICT 인프라 협력 추진 방향 마련의 중요한 시점임.

2) 북한의 "단번도약"과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분야 표준화 협력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확보, 능동적인 협력관계 개선, 상호 이익과 발전이 가능한 ICT 분야 용어 표준화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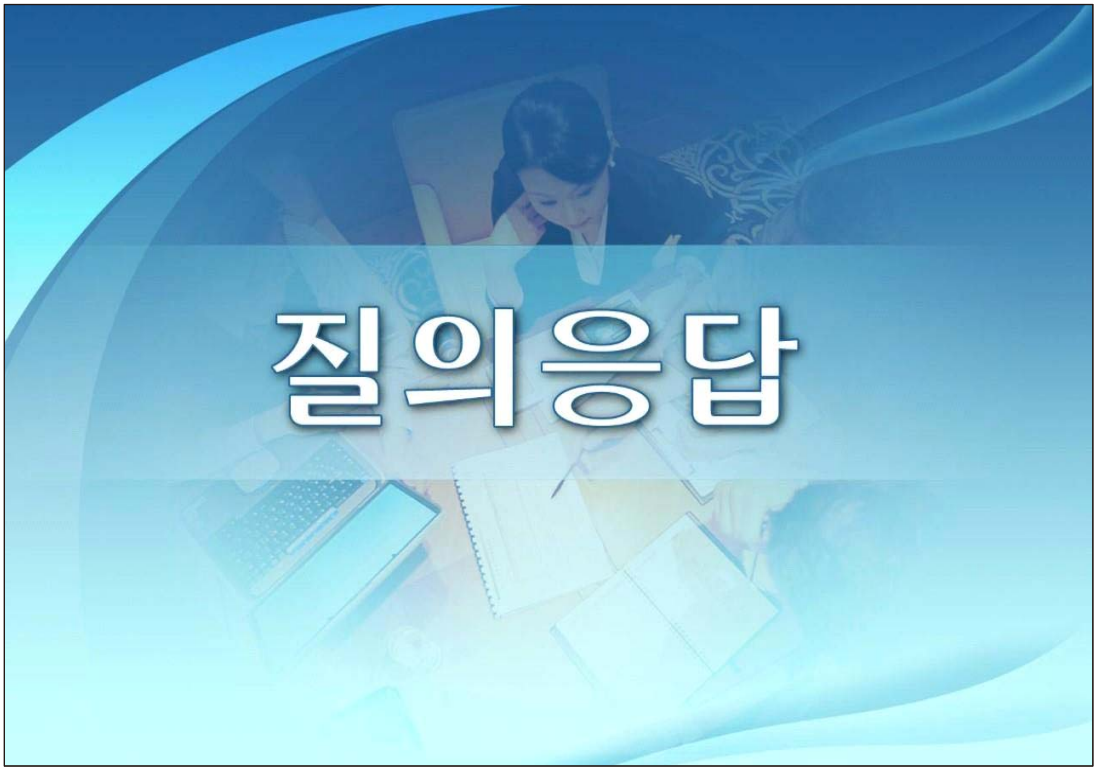
3) 국제사회 제재 등 협력 추진시 제약사항 극복을 위해 단계적 교류 및 협력체계 추진

- 기업 간 소모적 경쟁, 불필요 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통의 목표와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유관 산업과 정보 공유, 북한에 대한 실상 이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적 교류 추진
- 법·제도적 측면,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지속적이고, 안정된 협력체계 마련 추진

남북 ICT 용어 등 관련 표준화 협력을 시작으로 한반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마련

3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주제" 7

중국에서 남북중 전문용어 사용의 현황과 문제점

백해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

중국에서 남북중 전문용어 사용의 현황과 문제점

백 해 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

1. 서론

전문용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류의 매개체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전문용어는 과학연구의 성과를 반영하며 인류 과학지식의 언어적 결정체이다. 전문용어의 심사 채택과 통일, 규범화는 한 국가와 민족의 지식 축적과 과학진보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사업이다. 전문용어 사업은 용어의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전문용어를 심사 채택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의와 명명하는 학문인 "술어학"은 20세기 3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술어학은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지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지금 사회에서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20세기 50년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전문용어표준화 원칙과 방법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전문용어 표준화 목적은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각종 표준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분야의 과학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 사회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문용어 심의 채택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와 교류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규범화는 과학의 발달을 나타내며 학과건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남북분단이 분단되면서 한국과 북한, 중국에서 한국어(조선어)는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언어 사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전문용어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중한 수교이후 연변은 남북한 교류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1차례 국제회의를 열고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간 약 1,000여 명의 전문가, 학자가 6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5년 논의만 진행해 온 동안 산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였고 그간 나타난 전문용어에 대한 표준화와 규범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중국 조선어 어문규범과 한국 표준어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전문용어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조선어 어문규범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중국 내 전문용어 심의 채택 사업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발전에 대하여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 내 전문용어 사업 발전 개황

2.1 전국 전문용어 사업 개황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全國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이하 전국과기명사위)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기관이다. 주로 과학기술부와 중국과학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며 중국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국과기명사위는 중국 과학기술용어 규범화 사업의 방침, 정책, 원칙, 계획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의 용어들을 심의, 결정, 공표와 조율, 보급 업무를 진행하다. 또 해협 양안(兩岸: 중국대륙과 타이완) 및 중국어권 지역의 과학기술 용어의 교류, 조율, 통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술어학(術語學)학과 건설과 국내외 전문용어 학술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용어 심의 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기관은 1909년 청나라 정부가 설립한 과학명사편정관(科學名詞編訂館)이다. 신해혁명(1912년) 후 지앙수교육회(江蘇教育會)의 물리화학교수연구회에서 물리학과 화학의 전문용어를 심의 결정하였고, 중화의약회(中華醫藥會)에서 의학전문용어심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15년 화학, 물리학, 수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등 학과의 전문용어를 연이어 심의 채택하였다. 1918년 중국과학사(中國科學社)에서 과학 전문용어 심의 채택 초안을 작성하여 1919년에는 과학명사심사회를, 1928년에는 번역명사통일위원회를 성립하여 1931년까지 각 학과의 전문용어 초안 14부를 심의 채택하였다. 1932년 남경국민정부가 국립편역관(國立編譯館)을 설립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 번역 용어와 학술 용어를 규범화하고 통일하였다. 1949년까지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광물학, 생물학 등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전문용어 초안을 50~60여 부를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1950년 중국과학원편역국(中國科學院編譯局)이 국립편역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각 분야의 전문용어 초안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1950년 4월 6일 “학술명사통일공작위원회(學術名詞統一工作委員會)를 설립하고 중국과학원장 곽말약(郭沫若)이 주임을 맡았다. 위원회 산하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약위생, 시사, 문학예술 등 5개 조직을 설치하고 1960년대까지 각 분야의 과학 전문용어 100여 종을 심의 채택, 공표, 출판하였다. 전문용어

심의 채택 작업은 1960년대 중반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에 다시 회복되어 1985년 전국자연과학명사심정위원회(全國自然科學名詞審定委員會)를 성립하기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전문용어를 술어(術語)라고 부르고 “음운이나 문자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거나 한정하는 특정한 기호”라고 정의한다.[1] 전국과기명사위는 전면적인 기획, 전문가에 의존, 과학적 심의 채택, 공식적인 공표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 체계에 따른 전문용어 심의 채택한다. 전문용어는 구체적으로 전문용어학의 이론에 따라 중국어(한어) 한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심의 채택한다. 그 주요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의성. 하나의 전문용어는 하나의 개념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과학성. 과학적 개념을 내포한 규범적인 용어를 정하여 지시하는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체계성. 전문용어는 그 용어의 사용 범위에서 고립되고 수의적인 것이 아니라 층위가 있고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간결성. 용어는 간결해야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용하기 쉽다.
다섯째, 관습성.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수정하지 않는다.
여섯째, 민족성. 최대한 중국 특색의 용어를 선정한다.
일곱째, 국제성.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국제교류에 편리를 도모한다.
여덟째, 학술성. 일반적인 생활용 어휘를 피해 학술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현재 전국과기명사위에는 95개 분야의 심정위원회가 건립되어 있으며 중국 각 학과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 교수 13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몇천 명의 과학자들이 전문용어 심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문학, 물리학, 생물화학, 전자학, 농업, 의학, 언어학, 교육학 등 120여 종의 규범 전문용어를 발표하였다.[2]

전국과기명사위는 과학기술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전문용어위원회[3]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문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이미 발표한 과학기술 전문용어 DVD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전국적인 전문용어 홍보와 응용, 보급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양안(대륙과 타이완) 과학기술 전문용어 대조, 통일 사업을 진행하여 약 20여 개 분야의 양안 과학기술 전문용어 교류 대조본과 8개 학과의 번체자본을 출판하였고, 양안 전문가가 공동으로 “중화과학과기술대사전”(中華科學與技術大詞典)과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兩岸科學

1) 馮志偉(1997), 現代術語學引論, 語文出版社
2) 정식으로 발표된 전문용어집 목록은 부록1을 참고 바람.
3) 인터넷홈페이 http://www.termonline.cn/index.htm를 통하여 전문용어를 검색할 수 있다.

技術常用詞典) 등을 출판하였다.[4)]

전국과기명사위는 국내외 전문용어학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술어학건설시리즈”(中國術語學建設書系)를 편찬 출판하였고 전국적인 전문용어학 이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과기명사위는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한어의 특징을 살려 점차적으로 중국 특색의 전문용어학 이론을 세우고 중국 전문용어학 건설의 주력으로 되었다.[5)]

2.2 소수민족 전문용어 사업 개황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한족을 제외하면 55개 소수민족이 수십 종의 문자와 100여 종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언어와 문자를 모두 합쳐서 중국어(중문)[6)]라고 한다. 따라서 소수민족언어문자는 중국어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55개 소수민족 중 완전히 한어를 사용하는 회족(回族)과 만족(滿族)을 제외하면 기타 53개 민족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55개 소수민족은 모두 72개 언어를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중국티베트어족(漢藏語族),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南島語族), 오스트로아시아어족(南亞語族), 인도유럽어족(印歐語族) 등 5개 어족으로 나눈다. 이런 소수민족언어는 그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제1유형: 몽고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조선어는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거해 있고 그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문자역사가 유구하고 언어문자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 사용된다.

제2유형: 이족(彝族), 타이족(傣族) 등과 같은 민족은 거주지가 넓고 전통적인 문자가 있지만 문자가 규범화가 되어 있지 않고 방언 차이가 비교적 커서 민족어를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제3유형: 민족어가 민족사회 내부 일상생활에서만 사용되고 정치, 교육 등 영역에서는 기타 민족의 언어를 사용된다. 이런 민족 언어는 문자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한자를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민족 언어문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10종의 문자가 없는 민족어를 위하여 14종의 새로운 문자를 창제해 주었고, 문자체계가 불완전한 8종의 문자를 보충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55개 소수민족 중 민족어와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29개 민족은 54종[7)]의 문자를 사용한다.

4)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2를 참고 바람.
5) 전국과기명사위 각 분야별 분회 수는 약 118개가 된다. 그 목록은 부록3을 참고 바람.
6) 한국에서 말하는 “중국어”는 한족이 사용하는 “한어”와 일치하다.
7) 일부 소수민족어는 여러 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족어는 4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1975년 내몽고, 신강 등 8개 성, 자치구 몽고어교과서 협력소조를 성립하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982년에는 티베트, 청해 등 5개 성, 자치구에 티베트어교과서 협력소조를 성립하고 수학, 물리, 화학, 컴퓨터 등 과목의 한어-티베트어 대조어휘집을 출판하였다. 1985년 요녕, 길림, 흑룡강 3개 성 조선어교과서 협력소조를 성립하여 조선어 교과서의 번역 편찬, 심의 채택, 출판을 진행하였다. 이상 3개 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규범화된 통일된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소수민족언어 전문용어 규범화를 추진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사화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1991년 국무원에서 "소수민족어문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를 진행할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1995년 전국술어표준화기술위원회 소수민족어특별분회가 북경에서 성립되어 몽고어, 티베트어, 조선어, 신강 소수민족어 등 4개 언어의 술어공작위원회를 성립하였다. 이 밖에 중국민족어문번역국(中國民族語文飜譯局)은 국가급 소수민족어문번역 기관으로서 몽고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이어(彝語), 장어(壯語)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14,000여 개의 전문용어를 규범화하였다.

전문용어의 규범화, 표준화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전문용어 심의 채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했다.

첫째, 기존 어휘에서 선정하여 결정한다. 소수민족어의 전문용어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민족의 방언 중 고유한 생명력이 있는 어휘를 선정하여 어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어휘체계는 날로 발전하는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전문용어들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 소수민족어의 조어법에 따라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야 한다. 한 언어가 발전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새로 생겨나는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언어에서 빌려 온다. 중국 소수민족어는 한어에서 음역(音譯)하여 그 뜻을 빌려옴으로써 어휘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어의 정치용어와 현대과학기술 용어는 한어 어휘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소수민족어 어휘체계에 융합된다. 따라서 한어 어휘를 빌려 쓰는 것은 필요한 방법이다. 소수민족어의 어휘체계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는 우선 한어에서 빌려 오고, 그다음 비슷한 민족어나 영어 등 외국어에서 빌려 온다. 차용, 전사, 음역을 통하여 새로운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

소수민족어의 전문용어를 선정하는 작업은 소수민족 언어 내적인 규칙을 따라 조어법에 맞는 어휘를 발굴, 창제를 주요한 방법으로 하여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어는 대부분이 표음문자로 완전한 음운체계를 갖추고 있어 소수민족어 전문용어의 국제화와 국제문화교류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2.3 중국 조선어 전문용어 사업 개황

중국 조선어문은 조선민족이 중국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발전한 소수민족언어로서 북한과 남한의 언어에 그 기원을 두고 중국 현지의 다문화와 융합되어 형성된 독특한 언어이다. 따라서 북한이나 한국의 언어와 같지만 또 구별된다.

1970년대 국무원에서는 동북3성조선어문공작협력소조(이하 동북3성어문조 약칭)를 성립하고 통일적으로 중국조선어문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동북3성어문조의 지도하에 조선어규범위원회는 조선어정보처리 분야와 연관된 규범원칙과 조선어규법통일방안을 제정하였다. 1996년 중국조선어술어표준화공작위원회(中國朝鮮語術語標準化工作委員會)를 성립하고 “조선어 술어 데이터베이스 일반 원칙과 방법”의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고 “조선어 술어 표준화 공작 원칙과 방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 4월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에서는 연변대학에 중국조선언어문자정보화기지(中國朝鮮語言文字信息化基地)를 건립하고 중국, 한국 과학기술문헌정보 수집과 자동처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 과학기술 전문용어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 말뭉치에는 중국조선어말뭉치, 품사주석말뭉치, 조선어(한국)어-한어병렬말뭉치, 조선어(한국어)오류말뭉치 등 약 1.5억 자 규모의 조선어문말뭉치이다.

또한 1985년 첫 『조선어규법집』을 출판한 이후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中國朝鮮語規範委員會)의 지도하에 중국 조선어문에 대한 본격적인 규범화 사업을 진행하여 “조선어 ‘4칙’규범, 명사, 술어 규범원칙, 어휘규범세칙, 방언어휘규범원칙, 자연과학기술용어규범원칙, 한어어휘에 대한 조선어표기법, 외국어표기법, 외래어표기세칙, 지명표기세칙, 법률용어통일안, 정보처리용어통일안, 외국인명의 표기세칙 등 각항 규범원칙들을 제정하고 기본 어휘를 위주로 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의 1만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용어들을 규범화하였다.”[8] 그 후로 각각 1996년과 2007년, 그리고 2016년 “중국조선어문규법집”을 수정 출판하였다. 중국조선어문 규범화 사업과 같이 조선말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필자의 능력 부족 및 공개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1981년 이후 출판된 조선어 전문용어 관련 어휘집 혹은 사전은 약 18종 정도로 집계된다.[9]

이상 제2장에서는 중국 내 전문용어 사업의 현황을 전국적인 범위와 소수민족어, 중국조선어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래 제3장에서는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에서 전문용어 규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8)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2016), 『조선말규법집』(수정판), 연변교육출판사, pp1~2
9)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4를 참고 바람.

3.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 전문용어 규범화 비교

3.1 중국 조선말 규범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전까지 중국의 조선어는 1933년 조선어학회 정한『한글맞춤법』(즉 서울말)을 따랐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중국 조선어에는 "국무원",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품앗이조", "합작화"와 같은 새로운 어휘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한어 어휘를 한자 독음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어의 "工人"을 "로동자"라 하지 않고 한자 독음 그대로 "공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현상은 조선어에 불필요한 동의어가 생성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1957년 3월부터 6월까지 "연변일보"에서 지상 토론회를 벌렸다. 토론을 통하여 조선어의 규범화 사용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 후 진행된 논의에서 한어를 조선어 발전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조선어에는 한자 독음에 따른 조선어 어휘가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1963년 "조선어문에는 평양, 서울, 연변 3가지 표준이 있는데 평양의 표준을 규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평양의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주장의 근거는 서울말의 특징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한다. 즉, 서울말의 특징은:

첫째, 서울말에는 대량의 한자를 사용한다.
둘째, 서울말을 사용하는 언어교류에서 대량의 영어와 일본어를 같이 사용한다.
셋째, 어휘 사용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병존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말에는 어려운 말이 많고 불필요한 동의어가 많고, 또 언문이 불일치하며 글에서는 많은 영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며 거리의 간판, 상품 이름, 완구와 학용품에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건국 전에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표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 평양말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첫째, 북한은 한자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둘째, 어휘체계에서 한자어 체계를 폐지하고 고유어를 바탕으로 단일어휘 체계를 건립하였다.
셋째, 고유어를 바탕으로 실제에 맞게 한자어와 외래어를 규범화하여 생활 중에 필요한 새로운 어휘들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규범화된 어휘는 대중들이 배우기 쉽고 글말도 입말에 가까워져서 어문의 민족화, 대중화, 일반화를 이루었다. 이런 사실로부터 중국조선어문을 평양의 표준에 맞게 규범화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연변의 조선어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첫째,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자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둘째, 어휘체계를 이루지 못했지만 어휘체계가 남한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체계가 존재한다.
셋째, 외래어의 영향은 학술용어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넷째, 많은 현대 한어의 어휘를 받아들였다.

이런 중국조선어의 특징은 민족어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한어에서 무차별적으로 차용함으로서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었고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규범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조선어가 민족화, 대중화, 일반화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연변의 조선어도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1975년 중국 국무원 제47호 문서의 결정에 따라 1977년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가 성립되면서 조선어 규범화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앞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조선어의 규범은 1985년 『조선말 규범집』[10]을 발표한 후 1996년과 2007년, 2016년 3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북한을 따르던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중국 조선어의 실정에 맞게 규범화되었다.

3.2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은 1978년 12월 5일,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제2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한 규범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1985년 어휘규범에서 7가지밖에 없던 조항은 2016년에 이르러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 원칙”, “다듬은 말 처리세칙”, “방언어휘사정원칙”, “방언어휘사정세칙”, “조선말 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원칙”, “한어단어의 조선말표기법”, “<외국어표기법>통일안”, “외래어표기세칙”, “지명표기세칙”, “외국인명의 조선말표기세칙”,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등 1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10) 1985년 『조선말규법집』의 어휘규범 원칙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 사업에서는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언어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민족 어문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조선말 명사, 술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 배우라는 주총리의 지혜에 좇아 언어의 민족화와 언어의 대중성, 과학성의 요구에 맞게 규범화함으로써 조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네 가지 현대화를 위하여 훌륭히 복무 할 수 있도록 한다.

3.2.1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

우선, 『조선말규범집』(2016) “조선말 어휘규범”의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기존 어휘들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새 명사, 술어는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한어나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여 쓴다.
3.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는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에 좇아 처리한다.

반면 한국 『표준어규정』에서는 표준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실제적인 대상을 아래와 4가지 어휘로 정하고 있다.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고형(古形)이 된 것
(나) 1933년 당시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아래에 어휘규범에서 한국의 표준어규정과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존 어휘들에 대한 처리

기존어휘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쓰지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예1: 한의 -> 중의
상공업 -> 공상업

2) 새 명사, 술어에 대한 처리

새 명사, 술어는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한어나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여 쓴다.

예2: 당팔고(黨八股)
　　콰이발(快板)

3)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에 대한 처리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에 좇아 처리하되 습관적으로 한자음독법으로 써왔거나 의역하여 써온 것은 그대로 쓴다.

예3: 장족(藏族)
　　호지명(胡志明)

한어로 명명된 국내외 인명, 지명과 신문, 잡지, 통신사의 명칭은 전통적 습관에 좇아 일반적으로 한자음독법으로 처리하되 이미 습관적으로 음차하여 써왔거나 의역하여 써온 것은 그대로 쓴다.

예4: 북경(北京)
　　로신(魯迅)
　　황니허(黃尼河)

이상 규범은 중국 조선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어휘규범으로서 한국의 규범과 차이를 보인다. 1번의 경우 기존의 어휘를 중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경우이고, 2번의 경우 한어 사용에서 차용한 경우이고 3번은 한어에 대한 중국 조선어의 규범이다.

3.2.2 조선말 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원칙

조선말 자연과학기술용어의 규범화 원칙은 1981년 12월 13일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제4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원칙을 따른다. 이는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기존 자연과학기술용어(외래어를 망라하여)는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새 자연과학기술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한국의 『표준어규정』에서는 앞 3.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기술용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외래어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칙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그리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전문용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 『조선말규범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존 자연과학기술용어에 대한 처리

기존 자연과학기술용어는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뜻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과학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쓴다.

예5: 인식분해(因式分解) -> 인수분해
크로바 -> 토끼풀

동의어적 관계를 이룬 기존 자연과학기술용어에서 어느 하나로 가려잡기 어려운 것은 둘 다 쓰며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고 생명력을 잃은 기존 자연과학기술용어는 버린다.

예6: 가법 = 더하기
모터 = 전동기, 발동기
내절원 -> 내접원
엽충 -> 돼지벌레

2) 새 자연과학기술용어에 대한 처리

새 자연과학기술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선말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맞게 만들어 쓸 수 없을 때 한어로 된 새 자연과학기술용어는 조선말 한자독음법(조선말 습관에 맞게)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어로 된 새 자연과학기술용어는 원음대로 받아들여 쓴다.

예7: 살명간균(殺螟桿菌)
레이저(laser)

이상 자연과학기술용어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았다. 한국에는 전문용어에 대한 규범 원칙을 찾을 수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지만 2번의 경우 중국 조선어는 한어에서 심의 채택된 전문용어를 한자독음 그대로 쓰다 보니 한국의 전문용어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예로 든 “살명

간균"의 경우 한국에서는 영어발음대로 "세레우스균(Bacillus cereus)"으로 사용하고 있다.

3.2.3 한어단어의 조선말표기법

한어단어의 조선말표기법은 1995년 8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9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원칙을 따른다.

1. 한어단어는 그것을 적은 한어병음자모를 조선말글자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적는다.
2. 한어의 성조는 표기하지 않는다.
3. 한어의 병음자모는 조선말글자로 다음과 같이 대응시켜 적는다.

반면, 『한국 어문 규정집』에서는 한어(중국어)가 외국어이므로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을 따른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한어의 병음자모와 조선말글자(한글)의 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은 몇 병음에서 차이를 보인다.

병음자모	중국 조선어	한국어
yan (ian)	얜	옌
yuan (uan)	왠	위안

따라서 이런 병음의 한자를 표기할 때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는 표기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 제3장에서는 어휘규범과 자연과학기술용어 규범, 한자 표기법 등 어문규정의 3가지 부분에 대한 중국조선어와 한국어의 어문규정 차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에는 전문용어 심의 채택에 관한 규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고, 다만 외래어(한어 포함)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4. 결론

이상 중국 조선어의 전문용어 제정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조선어의 전문용어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사용한 어휘를 사용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어휘를 조선어 조어법에 맞게 만들되 그렇지 못한 경우 한어에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어 전문용어 선정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적 특징과 한어 어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전문용어를 선정하되 외래 과학기술용어는 "의역(意譯)을 위주로 하여 음역(音譯)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최대한 새로운 어휘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즉, 중국 조선어는 전문용어를 받아들일 때 한어를 차용하게 되므로 한국의 전문용어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 조선어의 전문용어 제정 원칙은 중국의 실정에 따른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왔고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온 과정에 많은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만들어져 남북중 3개국 언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중국 조선어와 남북 3개국의 전문용어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분단 이후 남북중 3개국에서 전문용어는 각자의 국가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3개국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원칙하에 각 분야별 전문용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 생겨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서는 3개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표준화, 규범화 원칙을 제정하고 국제표준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중국 공공어휘 정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은 중국 공공어휘에 대한 남북중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어휘 번역은 국가 간 정치, 외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공공어휘의 한국어(조선어) 번역 표준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국어기본법" 제17조에 전문용어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용어 제정이나 정리 원칙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있고 담당기관이 없다. 중국 조선어는 연변민족사무위원회에 과학기술용어소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기구로 실제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개인적인 주장일 뿐 중국조선어 학계의 주장을 반영할 수 없다.

▮참고 문헌

馮志偉(1997), 現代術語學引論, 語文出版社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2016), 『조선말규범집』(수정판), 연변교육출판사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kornorms.korean.go.kr/main/main.do

李光林(1981), 朝鮮語的名詞術語規範化, 民族語文 1981.N0.1

樸石均(1980), 關於朝鮮語名詞、術語規範化的方向和原則, 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0.No.4

葉其松(2010), 術語學核心術語研究, 黑龍江大學 博士學位論文

李建輝(2012), 規範名詞術語繁榮民族文化, 民族飜譯 2012.No.3

潘書祥(1998), 汉语科技术语的规范和统一, 科技術語研究 1998.No.1

▮부 록

1.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 전문용어집 목록

1) 天文學名詞(1987)
2) 土壤學名詞(1988)
3) 大氣科學名詞(1988)
4) 地理學名詞(1989)
5) 微生物學名詞(1989)
6) 地球物理學名詞(1989)
7) 物理學名詞(基礎物理學部分)(1989)
8) 林學名詞(1989)
9) 生理學名詞(1990)
10) 遺傳學名詞(1990)
11) 測繪學名詞(1990)
12) 醫學名詞(第一分冊·婦產科學等)(1990)
13) 海洋科學名詞(1991)
14) 自動化名詞(1991)
15) 生物化學名詞 生物物理學名詞(1991)
16) 古生物學名詞(1991)
17) 化學名詞(1991)
18) 植物學名詞(1992)
19) 人體解剖學名詞(1992)
20) 細胞生物學名詞(1992)
21) 醫學名詞(第二分冊·口腔科)(1992)
22) 力學名詞(1993)
23) 數學名詞(1994)
24) 電子學名詞(1994)
25) 地質學名詞(1994)
26) 組織學名詞 胚胎學名詞(1994)
27) 農學名詞(1994)
28) 計算機科學技術名詞(1994)
29) 石油名詞(1995)
30) 醫學名詞(第三分冊·醫學遺傳學等)(1995)
31) 化學工程名詞(1995)
32) 醫學名詞(第四分冊·心血管病學等)(1996)
33) 大氣科學名詞(第二版,定義版)(1996)
34) 航海科學技術名詞(1997)
35) 醫學名詞(第五分冊· 眼科學)(1997)
36) 煤炭科學技術名詞(定義版)(1997)
37) 物理學名詞(第二版)(1997)
38) 動物學名詞(1997)
39) 公路交通科學技術名詞(1997)
40) 建築 園林 城市規劃名詞(1997)
41) 鐵道科學技術名詞(1997)
42) 水利科學技術名詞(定義版)(1998)
43) 醫學名詞(第六分冊·外科等)(1998)
44) 船舶工程名詞(定義版)(1998)
45) 電工名詞(1999)
46) 土壤學名詞(第二版,定義版)(1999)

47) 天文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1)
48) 冶金學名詞(2001)
49) 藥學名詞(2001)
50) 心理學名詞(2001)
51) 機械工程名詞(第一分冊, 定義版)(2001)
52) 昆蟲學名詞(定義版)(2001)
53) 測繪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2)
54) 醫學名詞(第七分冊, 整形,美容等)(2002)
55) 計算機科學技術名詞(第二版)(2002)
56) 電力名詞(2002)
57) 水產名詞(定義版)(2002)
58) 地理信息系統名詞(2002)
59) 機械工程名詞(第二分冊, 定義版)(2003)
60) 機械工程名詞(第三分冊, 定義版)(2004)
61) 航空科學技術名詞(定義版)(2004)
62) 自然辯證法名詞(2004)
63) 土木工程名詞(2004)
64) 中醫藥學名詞(定義版)(2005)
65) 航天科學技術名詞(2005)
66) 高分子化學命名原則(2005)
67) 遺傳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6)
68) 地理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7)
69) 生態學名詞(定義版)(2007)
70) 海洋科學技術名詞(第二版,定義版)(2007)
71) 通信科學技術名詞(定義版)(2007)
72) 免疫學名詞(定義版)(2008)
73) 資源科學技術名詞(定義版)(2008)
74) 生物化學與分子生物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9)
75) 細胞生物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9)
76) 電力名詞(第二版,定義版)(2009)
77) 古生物學名詞(第二版,定義版)(2009)
78) 大氣科學名詞(第三版,定義版)(2009)
79) 測繪學名詞(第三版,定義版)(2010)
80) 中醫藥學名詞(內婦兒科等, 定義版)(2011)
81) 語言學名詞(定義版)(2011)
82) 材料科學技術名詞(定義版)(2011)
83) 微生物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2)
84) 地理信息系統名詞(第二版,定義版)(2012)
85) 教育學名詞(定義版)(2013)
86) 世界曆史名詞(定義版)(2013)
87) 泌尿外科醫學名詞(定義版)(2014)
88) 中醫藥學名詞(外科等6個學科, 定義版)(2014)
89) 全科醫學與社區衛生名詞(定義版)(2014)
90) 放射醫學與防護名詞(定義版)(2014)
91) 物理醫學與康複名詞(定義版)(2014)
92) 機械工程名詞(第四分冊,定義版)(2014)
93) 機械工程名詞(第五分冊,定義版) (2014)
94) 藥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4)
95) 建築學名詞(定義版)(2014)
96) 組織學與胚胎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4)
97) 人體解剖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4)
98) 心理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4)
99) 計量學名詞(定義版)(2015)
100) 醫學美學與美容醫學(定義版)(2015)
101) 管理科學技術名詞(定義版)(2015)
102) 地方病學名詞(定義版)(2016)
103) 林學名詞(2016)
104) 顯微外科學名詞(定義版)(2016)
105) 化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6)
106) 老年醫學名詞(定義版)(2017)
107) 化工名詞(一)(石油煉制煤制油及天然氣生物質制油(定義版(2017)
108) 核醫學名詞(定義版)(2018)
109) 呼吸病學名詞(定義版)(2018)
110) 生物物理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8)
111) 計算機科學技術名詞(第三版,定義版)(2018)
112) 物理學名詞(第三版)(2018)
113) 冶金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9)
114) 結核病學名詞(定義版)(2019)
115) 阿爾茨海默病名詞(定義版)(2019)
116) 腸外腸內營養學名詞(定義版)(2019)
117) 精神醫學名詞(定義版)(2019)
118) 植物學名詞(第二版,定義版)(2019)
119) 燒傷學名詞(定義版)(2019)
120) 圖書館·情報與文獻學名詞(定義版)(2019)

해외판(번체자)

1) 天文學名詞(1989)
2) 大氣科學名詞(1989)
3) 地理學名詞(1990)
4) 微生物學名詞(1991)

5) 林學名詞(1991)
6) 地球物理學名詞(1992)
7) 遺傳學名詞(1992)
8) 測繪學名詞(1992)

합본

英漢·漢英生物學名詞(合訂本)(2002)

2. 양안(대륙과 타이완) 전문용어 대조표

1) 海峡两岸大气科学名词(2002)
2) 海峡两岸昆虫学名词(2002)
3) 海峡两岸药学名词(2003)
4) 海峡两岸船舶工程名词(2003)
5) 海峡两岸航海科学技术名词(2003)
6) 海峡两岸动物学名词(2005)
7) 海峡两岸化学工程名词(2007)
8) 海峡两岸信息科学技术名词(2008)
9) 海峡两岸测绘学名词(2009)
10) 海峡两岸地理信息系统名词(2010)
11) 海峡两岸生物化学与分子生物学名词(2010)
12) 海峡两岸免疫学名词(2010)
13) 海峡两岸细胞生物学名词(2010)
14) 海峡两岸遗传学名词(2010)
15) 海峡两岸地理学名词(2011)
16) 海峡两岸经贸名词(2012)
17) 海峡两岸大气科学名词(第二版)(2012)
18) 海峡两岸海洋科学技术名词(2012)
19) 海峡两岸天文学名词(2013)
20) 海峡两岸生态学名词(2013)
21) 海峡两岸化学名词(2013)
22) 海峡两岸材料科学技术名词(2014)
23) 两岸科技常用词典(2015)
24) 两岸科学技术名词差异手册(2015)
25) 海峡两岸心理学名词(2016)
26) 海峡两岸音乐名词(2016)
27) 海峡两岸化学工程名词(2017)

3. 1984년 이래 건립된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 분회 목록

1984년: 天文學名詞審定委員會
1985년: 大氣科學名詞審定委員會 古生物學名詞審定委員會 林學名詞審定委員會 農學名詞審定委員會 數學名詞審定委員會 土壤學名詞審定委員會 微生物學名詞審定委員會 物理學名詞審定委員會 植物學名詞審定委員會
1986년: 地理學名詞審定委員會 地球物理學名詞審定委員會 動物學名詞審定委員會 海洋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化學名詞審定委員會 力學名詞審定委員會 生物物理學名詞審定委員會 細胞生物學名詞審定委員會 醫學名詞審定委員會 遺傳學名詞審定委員會 自動化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1987년: 外國科學家譯名協調委員會 測繪學名詞審定委員會 地質學名詞審定委員會 電子學名詞審定委員會 生理學名詞審定委員會
1988년: 計算機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解剖學名詞審定委員會 人體解剖學名詞審定委員會
1989년: 石油名詞審定委員會
1990년: 電力名詞審定委員會 公路交通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航海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化學工程名詞審定委員會 建築園林城市規劃名詞審定委員會 煤炭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水利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土木工程名詞審定委員會 自然辯證法名詞審定委員會
1991년: 電氣工程名詞審定委員會 電工名詞審定委員會 水產名詞審定委員會 鐵道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1992년: 船舶工程名詞審定委員會 藥學名詞審定委員會 冶金學名詞審定委員會

1993년: 航空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機械工程名詞審定委員會
1996년: 醫學美學與美容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昆蟲學名詞審定委員會
1997년: 航天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1998년: 地理信息系統名詞審定委員會 科學技術史名詞審定委員會
1999년: 生態學名詞審定委員會
2000년: 中醫藥學名詞審定委員會
2001년: 語言學名詞審定委員會 免疫學名詞審定委員會 生物化學與分子生物學名詞審定委員會 語言文字協調委員會
2002년: 資源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2003년: 通信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2005년: 核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阿爾茨海默病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腸外與腸內營養學名詞審定分委員會 材料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計量學名詞審定委員會
2006년: 經濟貿易名詞審定委員會 法學名詞審定委員會 社會學名詞審定委員會 獸醫學名詞審定委員會 畜牧獸醫學名詞審定委員會
2007년: 放射醫學與防護名詞審定分委員會 物理醫學與康複名詞審定分委員會 老年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精神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顯微外科學名詞審定分委員會 運動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環境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教育學名詞審定委員會
2008년: 神經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全科醫學與社區衛生名詞審定分委員會 感染病學名詞審定分委員會 計劃生育名詞審定分委員會 手外科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地方病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建築學名詞審定委員會 管理科學名詞審定委員會 能源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世界曆史名詞審定委員會 中國古代史名詞審定委員會
2009년: 泌尿外科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燒傷醫學名詞審定分委員會 呼吸病學名詞審定分委員會 科學技術新詞工作委員會 經濟學名詞審定委員會 馬克思主義名詞審定委員會 圖書館·情報與文獻學名詞審定委員會 宗教學名詞審定委員會 政治學名詞審定委員會
2010년: 編輯出版學名詞審定委員會 檔案學名詞審定委員會 光學名詞審定委員會 考古學名詞審定委員會 新聞學與傳播學名詞審定委員會 中國近代史名詞審定委員會
2011년: 紡織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2012년: 聲學名詞審定委員會
2013년: 軍事科學名詞審定委員會 民族學與文化學名詞審定委員會 哲學名詞審定委員會
2014년: 草學名詞審定委員會 風景園林名詞審定委員會 生物工程技術名詞審定委員會 食品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園林學名詞審定委員會
2015년: 城鄉規劃學名詞審定委員會 核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2016년: 麻醉學名詞審定分委員會

4. 조선어 명사술어 사전 목록

1) 漢朝動物名稱詞典, 韓振乾主編, 沈陽·遼寧人民出版社, 1982年
2) 漢朝植物名稱詞典, 韓振乾主編, 沈陽·遼寧人民出版社, 1982年
3) 漢朝物理名詞集, 李柱森·全紅林·金明雲編, 延吉·延邊人民出版社, 1983年
4) 朝漢-漢朝中學生名詞術語集, 張鶴編, 沈陽·遼寧人民出版社, 1984年
5) 體育術語詞典, 宋天植·金德模·薑賢模編, 牡丹江·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1年
6) 實用中韓翻譯詞典, 田洪烈主編, 北京·民族出版社, 2004年
7) 中朝大詞典, 崔奉煥主編, 北京·民族出版社, 2009年
8) 中韓辭典, [韓]康寔鎮等編, 牡丹江·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7年
9) 中朝·朝中法律訴訟用語典, 孫智慧主編, 北京·民族出版社, 2009年

10) 中韓辭典, [韓]華書堂[等]編著, 沈陽·遼寧民族出版社, 2006年
11) 語外來語辭典, 金成奎編, 牡丹江·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5年
12) 中計算機辭典, 樸在林·許泳峰主編, 沈陽·遼寧民族出版社, 2007年
13) 漢經濟貿易辭典, 劉沛霖等主編, 沈陽·遼寧民族出版社, 2004年
14) 外來語辭典, 金成奎·宋玉花編, 沈陽·遼寧民族出版社, 1996年
15) 英朝植物名词典, 孙哲洙编, 延吉·延边教育出版社, 2004年
16) 韩中商品名词典, 金东辉编, 延吉·延边人民出版社, 2012年
17) 朝动物名词典, 孙哲洙编, 延吉·延边教育出版社, 2003年
18) 名词典, 金东辉编, 延吉·延边人民出版社, 2012年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제16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기준 마련

발 행 인	소강춘
기획·편집	정호성·서민경
발 행 일	2019. 12. 13.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www.korean.go.kr
인 쇄	(주)계문사(02-725-5216)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